

南濟州郡 南元邑 衣貴里

現地學術調查

1991. 8. 1~8. 4

調査経緯 115

社會背景 117

方言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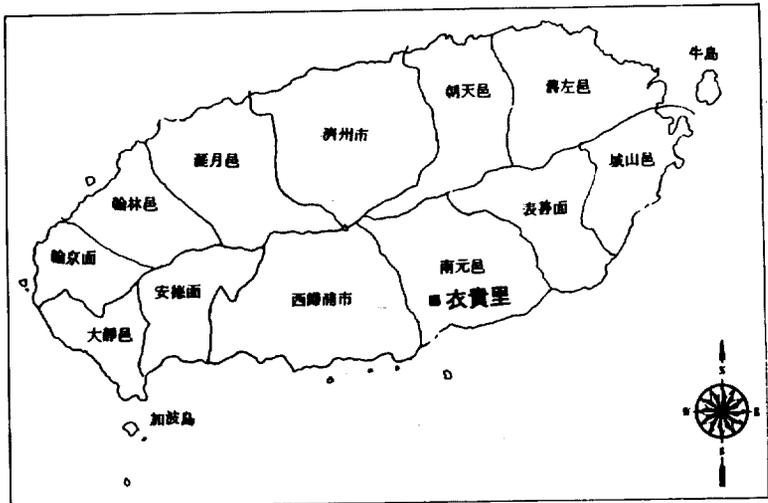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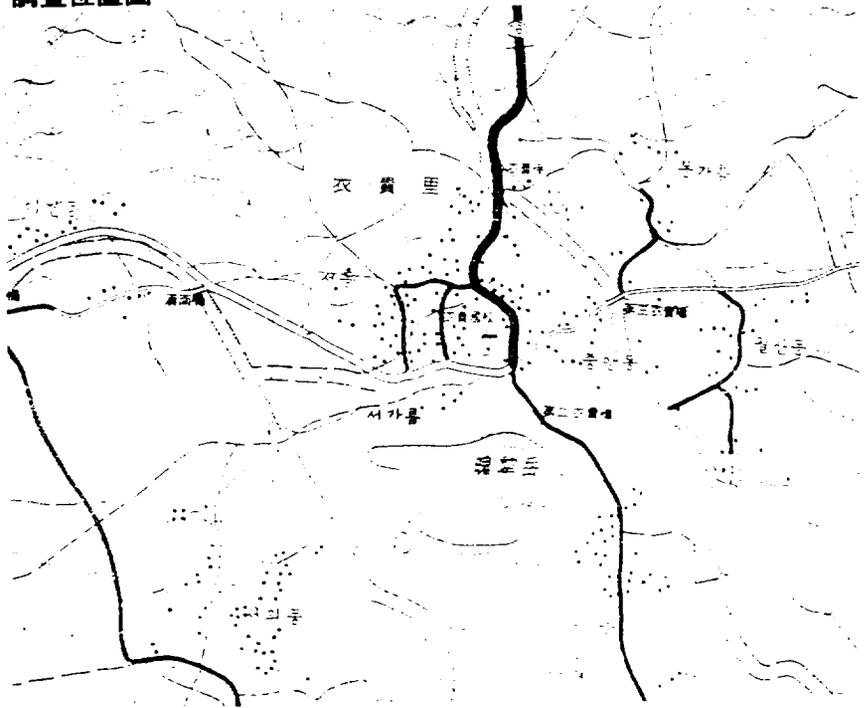
民謠 166

說話 220

信仰 233



調查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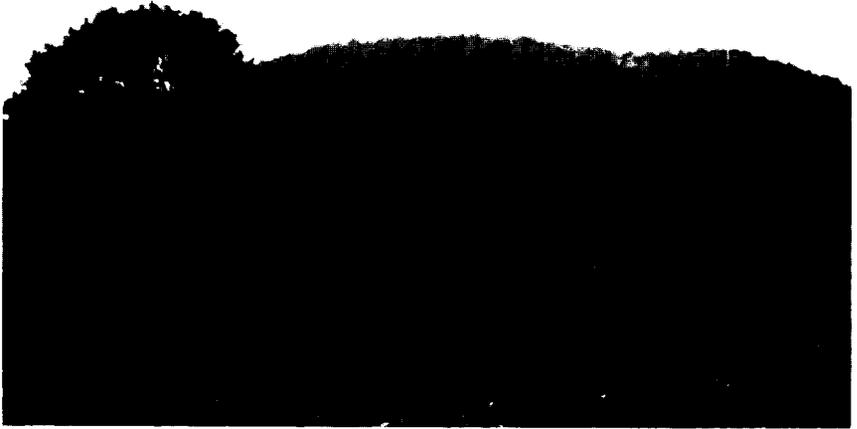




의귀 국민학교



의귀리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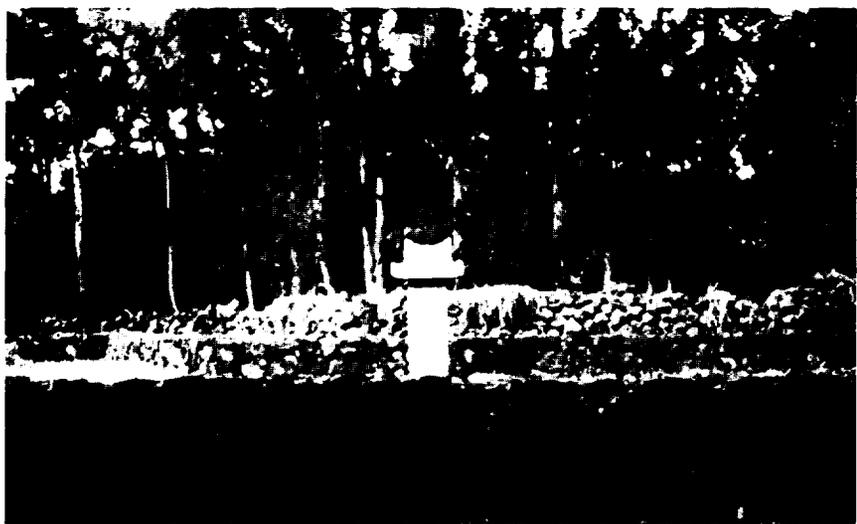
넉시오름(魄黎岳)



넉산



초 가 집



현의 합장묘



반별토론



조사광경

調 查 經 緯

現地 學術調查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내 삶의 현장에 접근하여 그 지역에서 영위되는 언어·구비문학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작업이다. 이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응용해 봄으로써 살아 있는 학습이 될 뿐 아니라, 社會背景·方言·民謠·說話·信仰 등 지역문화 전반에 걸친 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아울러 국어국문학에 대한 시야도 넓히게 한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러한 意義 아래 일찍부터 현지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본 학과에서 실시한 학술조사는,

- ① 南濟州郡 安德面 倉川里 (1972. 8. 21~8. 24)
- ② 北濟州郡 牛島面 (1973. 8. 24~8. 28)
- ③ 南濟州郡 大靜邑 加波里 (1974. 8. 23~8. 26)
- ④ 西歸浦市 中文洞 (1975. 8. 18~8. 22)
- ⑤ 南濟州郡 城山邑 蘭山里 (1976. 8. 18~8. 22 : 국교 합동)
- ⑥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1977. 7. 26~7. 29 : 국교 합동)
- ⑦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1981. 7. 16~7. 19 : 국교 합동)
- ⑧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1983. 8. 17~8. 20)
- ⑨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1985. 8. 16~3. 19)
- ⑩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1987. 7. 27~7. 30)
- ⑪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1989. 8. 1~8. 4)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의 학술조사는 1991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박4일 동안 南濟州郡 南元邑 衣貴里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지역을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과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우리가 일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읍·면

단위별로 파악한 다음 되도록이면 조사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락지나 향토지를 통하여 학술적 가치가 남아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지역을 3~4곳 선정하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결과, 남원읍 지역에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산간 부락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가 미흡했던 점을 들어 衣貴里로 결정하게 되었다.

조사 지역이 결정되자 곧바로 반 편성에 들어갔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회배경·방언·민요·설화·신앙으로 나누었다. 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3 차례에 걸친 사전답사가 있었으며, 여기서 숙식 및 취사문제를 해결하고 마을현황과 제보자 등을 파악하여 사전 자료집을 만들었다.

3박 4일 간의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1일(제 1일) : 12시 30분에 의귀국민학교에 도착하여 간단한 입소식과 이장님으로부터 마을현황 청취, 그리고 각 반 별로 조사준비에 들어가서 1차 조사에 나섰다.

8월 2일(제 2일) : 2차, 3차, 4차 조사에 나섰으며 저녁에는 하루 조사의 결과에 대한 반별토론과 전체토론이 있었다.

8월 3일(제 3일) : 실제적인 조사의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5차, 6차 조사에 열심히 임했으며 저녁에는 선배님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8월 4일(제 4일) : 마무리 조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놓친 점이라든가 제보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숙소였던 의귀국민학교를 청소하고 4일간의 학술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이번 조사에 도움을 주신 衣貴里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 제보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의귀국민학교에서 숙식 및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신 衣貴國民學校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사에 임해준 반장 및 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끝까지 우리들을 격려해 주신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社 會 背 景

指導教授 : 김 상 조

指導補助 : 김동운, 김옥주

班 員 : 이 재 숙(4)

김 현 정(4)

김 유 경(3)

한 단 보(2)

김 수 하(2)

고 윤 정(1)

目 次

I. 地理的 環境

3. 근대 이후의 의귀리

II. 歷史的 背景

4. 4·3사건과 의귀리

1. 設村 由來

III. 人文概況

2. 감독관 경주김씨

IV. 産業構造

I. 地理的 環境

南濟州郡 南元邑 衣貴里는 南元1里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漢南里(부등개), 북쪽으로는 水望里(물앗), 동쪽으로는 新興2里(여우네)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중산간 마을로, '웃귀'라고도 불리운다.

의귀리는 夏期에 동남계절풍 지대에 속하고 冬期에는 북서계절풍 지대에 속한다. 8-9월에는 초속 25m이상의 태풍이 자주 지나는데, 이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던 적도 많다. 국내 제일의 多雨지역에 속하는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1,500 mm-2,200mm에 달하고 있다. 특히 4-8월까지의 강수량이 연간 강수량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中春期로 부터 夏節期까지가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녁시오름(해발 146.2m, 녀시오름, 녀이봉, 녀이악, 魄黎岳, 魂師岳, 魂岳)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는 의귀리의 중심부락인 中央洞, 남쪽으로는 山下洞, 동쪽으로는 月山洞 등의 3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남원 -수망을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동쪽을 '동동네', 서쪽을 '서동네'로 2大分하기도 하여, 마을 안에서의 운동경기 등은 이를 중심으로 열리곤 한다.

마을의 면적은 총 916.7ha로 남원읍 총 토지면적 18,816.3ha의 4.9%에 해당하며, 지목은 이 마을의 중심 산업이 감귤임을 말해주듯 과수원이 490 ha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가 240.7ha, 전(田)이 87ha이다. (<표1>참조). 마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경작이 가능한 곳은 거의 모두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표1> 의귀리 면적

단위 ha

구분	전	과수원	임야	대지	기타	총면적
면적	87	490	240.7	8.6	90.4	916.7

1991년 현재, 의귀리사무소집계

의귀리에는 2개의 하천이 흐르는데, 이는 결국 '생이물'에서 만나 하나로 합쳐져 태흥1리 앞바다로 흘러가며, 그 본류는 '衣貴川'이라고 불린다. 수망리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의귀천은 중앙동과 월산동을 구분하는 하천으로 이 하천에는 '개턴물'을 비롯하여, '선데기소', '이데기소', '박데기소', '창세미소', '돛물', '셋물', '신나물' 등의 못이 형성돼 있는 한편, 衣貴橋와 第3衣貴橋 등 2개의 다리가 있다.

다른 한 편의 하천은 '西中川'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이 하천이 갈리는 마을 서쪽의 지명을 '셋내그림'이라 부른다. 즉, 서중천의 본류인 한 쪽은 남원2리로

흐르고 다른 한쪽이 의귀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한남리에서부터 산하동과 중앙동을 구분하며 흐르는 지류는 '셋내(西川)'라 부른다. 셋내에서는 第2衣貴橋가 있으며 '절물', '도릿물', '서신나물', '하니수', '엉물' 등이 있다.

하천에 형성된 못 중에서 개탄물과 생이물을 제외하면 모두 1969년 12월 상수도(마을공동수도)가 개설되기 이전까지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됐던 곳이다. 개탄물과 생이물은 빨래, 목욕, 목축 등에 이용됐다.

비교적 높은 마을 안의 고개로는 '군무루'라는 동산이 남원리 길목(산하동)에 있으며, 수망리가는 길목에는 '높은 무로'가 있고, 수망리쪽에 '신산무루' '서위남무루' 등이 있다. '군무루'라는 이름은 군대가 진을 쳤던 마루하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이외에 지금 의귀교회옆에 '화합의 동산'이라고 명해진 곳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 연못이었던 곳으로 물이 오래 마르지 않아 마소의 급수를 용이하게 했으며, 못 안에는 민물고기들도 많이 살았었다. 자주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나고 물이 줄어들자 1980년대 중반 마을 청년회에서 이를 매립하여 잔디와 꽃나무 등을 심고 공원으로 조성했다. 지금도 이곳은 '못거리'라 불린다.



화합의 동산

II. 歷史的 背景

1. 設村 由來

의귀리의 설촌유래는 ‘호종달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수망리에 거주하던 경주김씨인 金諱譜(入島 5대)가 의귀리 북쪽 수망리와 한남리의 경계인 ‘반드기왓(班得田)’에서 호종달과 연을 맺게 되는데 휘보의 아들인 리泓이 1600년경 호종달이 정해준 집터에 집을 지어 이주하니 이것의 촌락의 시초가 되었다 한다. 본 조사자들이 경주김씨에 의해 설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의 경주김씨 댁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족보에 ‘이홍할아버지가 수망리남편 삼리허(水望里南便三理許)에 설동하여’라고 적혀 있었다.

경주김씨가 아닌 다른 집안에서는 이러한 설촌유래에 의심을 하여 그 전부터 촌락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나 기록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비교적 가구수가 많은 오씨, 고씨, 양씨, 광산김씨 등이 마을에 들어 온 것은 1700년대 이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씨는 200여년 전 처음 入洞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양씨는 약 250년 전 예촌(신예리)에서, 광산김씨는 약 300년 전, 고씨는 300여년 전 제주시에서, 현씨는 약 200년 전 경에 수망리 등지서 의귀리에 들어오게 됐다고 한다. 김·오·양·고·현씨 외에 나머지 성씨들이 의귀리에 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 한다.

2. 감목관 경주김씨

이홍의 아들이자 경주김씨 入島祖인 金儉龍의 7세손인 金萬鎰(1550-1632)은 의귀리만이 아니라 제주의 경주김씨 가문(益和郡派)을 중흥시켜 후손들의 추앙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일찍 武科에 오른 김만일은 宣祖 15년(1582) 順天府에 있는 防踏鎮 儉制節使가 되어 벼슬을 지내고 고향에 돌아온 뒤에는 목축 사업에 뜻을 두어 선대로부터

내려온 마축개량번식에 전념하는 등 생업에 힘썼다.

그 무렵 匹馬의 用役은 戰馬·遞信 뿐만 아니라 乘馬 등으로 국가적인 비중이 컸으므로 그는 특히 育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김만일의 이러한 노력은 날로 그 열매를 맺어 입도 후 침체 속에 빠져 있던 집안을 크게 일으키며 더욱 육마 사업이 번창하던 중 선조 25년(1592) 壬辰倭亂이 일어났다. 전란으로 말미암아 국력은 극도로 쇠약해 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각지에서 굶어죽는 백성이 속출하는 등 국난의 여파는 엄청났다. 獸畜은 굶주린 백성에 捕殺되어 필마 등 운송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됐다. 이러한 참상을 딛고 조정에서는 전후복구와 민생구휼을 위해 馬政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과 마육에 성공한 김만일의 명성은 당시 司諫院에서 올린 “전마충당이 막급한 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제주에 家累萬金의 富臣 김만일이 있어 私屯馬가 반식부지하여 其數 不知計算하므로 마필을 진상토록 하사이다”라는 啓狀에 잘 드러나 있다.

이에 조정에서는 마필 진상을 요청하게 됐고, 김만일이 조정의 요청을 받아들여 良馬 5백필을 헌상한 것은 선조 33년(1600) 庚子年의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적을 높이 사 超功으로 우대하여 그해에 선조가 직접 召見한 자리에서 嘉善大夫 五衛都總府總管에 禁衛中秩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다. 얼마 후 김만일은 資憲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고 광해군 13년(1621)에는 다시 資憲大夫에 重爵 되었으며 또 인조 6년(1629)에는 從一品 崇政大夫를 제수하게 되어 제주출신으로 최대의 영예를 누리고 그 명성이 京鄕에 떨쳤다. 그가 83세로 천수를 마친 것은 인조 10년(1632) 10월이었다.

별세하기 전 김만일은 가문이 귀한 것을 뼈아프게 여겨 조정에 入島先祖(金儉龍)의 遺德을 밝혀 주도록 요청하여 訓練院都監을 추증하게 되었다.

별세후 그는 남원읍 의귀리 1773번지 ‘서위남무루’에 묻혔는데 조정에서는 의귀리 종묘에 奉祀케 하였다.

그런데 김만일의 갑작스런 높은 관작 제수는 선조에서 광해군을 거쳐 인조조에 이르는 동안 경향의 토호들과 관리배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 사헌부에서는 “김

만일은 育馬千乘 家累萬金의 海中丘珉에 불과한데 兵部相 등 위임막중한 총관직을 제수함은 부당하니 환수성명하고 金帛米布로 賞하심이 가하이다”하고 계하였으나 임금은 이를 무시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의 큰아들 金大鳴은 守令을 제수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을 세워 寶城郡守(현지에 선정비가 있다 함)가 됐으며 둘째아들 金大聲은 升堂上이 되었다.

한편 효종 10년(1659)에 이르러 김만일의 큰 손자인 礪와 아들 大吉이 다시 양마 2백필을 나라에 바쳐 그 유덕을 이었다. 이때 목사 李楡는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종문세습직으로 監牧官職을 특설하여 주도로 조정에 품신하고 왕의 윤희를 얻어 上場監牧官을 두게 되니 이것이 감목관의 시초가 되었고, 초대감목관에는 金大吉이 임명되었다.

이후 이 관직은 경주김씨 종문에서 계승되어 오다가 숙종 28년(1703), 입도 11세손인 金振赫이 감목관 때에 그 직이 혁파되어 중단되었다. 그러나 숙종 43년(1717)에 이르러 13세손 金世堯가 그 아우 世華를 서울로 보내어 수차 타원하고 상소한 끝에 경종 원년(1721)에 다시 복구되어 감목관직은 20년만에 환직되었다.

그후 고종 29년(1892)에 감목관으로 피선된 17세손 金暎治가 재직시인 고종 32년(1895) 봄 宗門의 청원에 의하여 그 직제가 폐지되었다. 임기 5년이 감목관은 제주목사와 경주김씨 都宗孫 및 視職官 3인의 공동 천거로 후계자를 선임한 후 조정에 품신하여 왕의 윤희를 얻게 되어 있었는데, 線數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직급은 從三品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같이 국난과 백성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대대로 충효와 절의에 힘쓰니 조정에서도 이를 알고 그 공을 높이 여기어 1752년 영조임금으로 옷 1습(特賜 表裳—襲)을 하사받았다. 이에 賜衣를 받은 마을이라 하여 ‘옷귀’라 부르니 ‘衣貴里’라는 마을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의귀리는 예로부터 경주김씨의 세도가 대단했던 듯하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경주김씨에서 행해지는 굿의 형식도 다른 가문과는 차이가 나는데, 이를테면 무당의 사설에 경주김씨 집안의 내력이 전부 설명되고, 다른 집안에서는 ‘큰대’를 한 개만 꼽는데 비해 경주김씨는 3죽을 세웠다고 한다.

의귀리가 이 지역의 중심지이며 마을이 세력이 컸음은 지금도 남원2리를 ‘서옷귀’(西衣貴)라고 부르는 데서도 나타난다.

3. 근대 이후의 의귀리

1609년 지금의 남원읍 지역이 旌義縣의 中面이 되자 그 사무소를 의귀리에 두게 되면서부터 이 마을은 1925년까지 줄곧 남원읍 지역의 소재지였다. 그러나 島制의 실시 이전에는 소재지로서의 기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15년 島制의 실시로 이 지역이 濟州島 西中面으로 개편되면서 의귀리가 東衣里로 행정 구역상의 명칭이 바뀌면서 면의 소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1908년 濟州警察署를 설치, 경찰권을 장악했던 일제는 島制가 실시됨에 따라 전도 15개소의 경찰관 駐在所를 두었는데 의귀리에도 주재소가 설치됐음은 이 마을이 남원읍 지역의 중심이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1917년 해안 마을을 중심으로 일주도로가 뚫리면서 도 전역이 일주도로를 위주로 교통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1925년 면사무소가 남원리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마을 이름은 의귀리로 환원되었다. 일주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의귀리 등을 통과하던 舊官道는 그 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신작로가 활기를 띠면서 면소재지도 신작로변으로 이동되었던 것이다.

서중면 당시 의귀리가 면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현재 중앙동의 버스정류소 네거리에서 제3의귀교(개터물)까지(‘장판거리’라 부름)에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5일장이 서기도 했다. 이 장에는 육지인도 보이곤 했다는데 술, 초신, 초석, 초기, 물외장사들이 5일에 한 번씩 몰려들었다 한다. 면사무소가 1925년 남원리에 이주하게 되자 장이 소멸되었다.

해방 후 의귀리는 4·3사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제주의 여러 마을 중에서도 특히 그 피해를 많이 입은 마을로 손꼽히고 있다. 4·3사건 후 7개월 동안은 마을에 단 한사람도 살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의 위귀리는 4·3사건 후 재건된 마을의 형태로 그 이전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4·3사건 때 모든 건물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마을이 재건된 이후 의귀리는 조, 보리 등을 비롯, 60~70년대에는 고구마, 무말랭이, 유채 등의 특용작물도 많이 재배해 오다가 60년대말부터 몇몇집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마을의 모든 농토가 과수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귤재배가 잘 되어 소득을 증대시켰는데, 제주지역에서의 농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남원읍 중에서도 부촌으로 손꼽히고 있다.

마을의 유적으로는 '향사터' 등이 있으나 4·3사건 등의 영향으로 그 흔적이 거의 없다. 鄉畵는 원래 안택(경주김씨종손집)이었는데 목재는 느티나무와 소나무였고 처마는 기와, 지붕은 초가로 된 5칸집이었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주재소로 이용되었으며, 일본인 부장이 가족과 함께 기거했다고 한다. 1927년경 주재소가 남원리로 내려가게 되자 마을에서는 지붕을 기와로 올렸다. '신성사숙'이라는 공부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4·3사건이 일어나자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어, 지금은 전혀 그 흔적이 없다.

4. 4·3사건과 의귀리

1948년 4·3사건의 상처는 제주도의 어느 곳이나 골 깊이 패어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찾은 의귀리는 그 깊이가 매우 깊었다.

의귀리는 한동안 면 소재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문화, 산업의 중심지였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일본 유학을 많이 다녀와 개화사상 및 평등의식과 민족의식을 갖추어 의식수준이 진보적이었다. 당시 유학생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4·3사건 당시 좌익에 동조하였다고 한다. 해방 후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이 마을에도 있었는데 야간모임을 가지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마을 중심부에 있는 녀시오름 정상에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 깃발을 만들어서 세우고 내림으로써 경찰과 토벌대 병력이 이동하는 방향을 표시하곤 했다.

1948년 5월 10일, 의귀국민학교에서는 군인 12명과 남원지서장이 직접 감시하는 가운데 5·10선거가 치뤄졌는데 마을 청년 7명이 투표를 거부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후에 지서습격의 주범으로 몰린다.

토벌이 본격화되면서 지금의 의귀국민학교에는 당신 제9연대 소속 군인 2중대가 주둔했다. 학교주변에 4개의 초소를 세우고 옥상에는 기관포를 설치했으며 주위에는 모래가마니로 바리케이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매일 '폭도를 소탕하러 간다'고 나가서 오후 6~7시에 출발하였는데, 어느날 토벌대는 거짓정보를 흘려 유격대를 유인했다. 군인들이 토벌을 위해 학교를 나간다고 거짓정보를 흘리자, 그 정보를 접한 유격대들은 학교를 습격했다. 이날 토벌대 6~8명이 전사한 반면 유격대는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유격대의 피해정도는 80여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부상자와 사망자가 동료들에 의해 산으로 이송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유격대가 후퇴한 후 군인들은 유격대에게 자신들의 토벌작전 정보를 제공해줬다는 혐의로 마을 사람들 20~30여명을 총살하였다. 이들은 남원으로 이송할 예정인 주민들이었다.

시신은 한 곳에 가매장했었는데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시신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 몸에 신표가 있는 시신들은 가족들이 찾아갔으나 나머지 10여구의 시신들은 지금의 제3의귀교(개터물)에서 동쪽으로 100미터 쯤 떨어진 곳에 합장을 했다. 그 비문(현의합장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여기에 義로운 靈魂들이 고이 잠드시도다. 三十八年間에 걸친 日帝統治의 桎梏에서 解放된 祖國山川, 그러나 思想對立과 左右衝突로 빚어지는 갖가지 悲劇들. 一九四八年 四月 三日 四·三事件은 本道 全域을 휩쓸었고, 이 悽慘한 渦中에서도 一片丹心 祖上傳來의 高장을 지키다 散華하신 아, 가록하신 그대 이름들이여!

衣貴里, 吳乘閨(당 六十五세 男) 十二月 十四日 卒, 高昌淑(당 六十二세 女) 十二月 十四日 卒, 梁祈弼(당 五十二세 男) 十二月 十二日 卒, 金允生(당 五十세 男) 十二月 十二日 卒, 高景平(당 四十八세 女) 十二月 十四日 卒, 金一石(당 十四세 男) 十二月 十四日 卒, 梁基鶴(당 四十八세 男) 十二月 十四日 卒, 梁乙玲(당 十四세 男) 十二月 十四日 卒, 梁基元(당 三十四세 男) 十二月 十二日 卒, 水望里, 金愛玉(당 六十六세 女) 十二月 十四日 卒, 金萬鳳(당 三十七세 男) 十二月 十四日 卒, 姜梅田(당 三十六세 女) 十二月 十四日 卒.

이제 後孫들이 孝誠 모아 義碑를 세우고 遺德을 기리며 冥福을 비옵나니, 고이 잠드소서. 一九八三年 癸亥 春, 文學博士 金仁顯 글, 靑石 邊榮卓書



현의 합장묘

이 의귀리의 4·3사건의 이야기는 문학작품에서도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현길언의 「깊은 적막의 끝」(1989)과 고시홍의 「유령들의 친목회」(1989)는 그 배경 자체가 의귀리이며,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1991)에도 의귀리에서의 4·3참상이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었을 정도로 이 마을의 4·3피해는 대단히 컸던 것이다.

III. 人文概況

의귀리는 1990년 현재 총 325가구에 인구는 1,358명이다. 이것은 남원읍 총 5,314가구와 전체인구 22,215의 6.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의귀리 총 인구중 성별로는 남자 640(46.5%) 여자 718명(53.5%)으로 여자가 다소 많다.

〈표2〉 연도별 가구수 및 인구수

연도	구분 가구수	인구수		
		계	남자	여자
1968	252	1055	471	584

1969				
1970				
1971				
1972	270	1142	531	611
1973	270	12112		
1974	245	1086		
1975	345	1475	703	772
1976				
1977	360	1474	695	779
1978	354	1464	694	770
1979	360	1516	726	790
1980	356	1549		
1981	351	1524	738	786
1982	350	1507	714	793
1983	351	1518	713	805
1984	349	1559	741	818
1985				
1986	332	1534	760	774
1987	326	1510	747	763
1988	325	1512	720	792
1989	325	1510	742	768
1990		1358	640	718

남제주군통계연보

〈표2〉의 1973년과 1974년의 통계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이다. 통계연보에 집계되지 않은 연도의 수치는 비워두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던 의귀리의 인구가 1980년대 초반을 고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근래 들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도시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다.

의귀리 거주자의 대부분의 가구는 농가다. 다음의 <표3>에서 비농가로 집계된 것은 의귀리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등지에 나가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표3> 농가현황

가 구 수		
계	농 가	비 농 가
325	281	44

1991년 현재. 의귀리사무소 집계

의귀리에는 모두 30가지 성씨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씨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성씨별 가구수

姓氏	金	吳	梁	高	李	鄭	玄	洪	康	姜	朴	宋	崔	文	林	張	韓
가구수	130	67	39	37	16	11	9	7	6	5	5	4	4	3	3	2	2

1991년 현재. 의귀리사무소 집계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김씨(대부분이 경주김씨와 광산김씨임)가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오씨, 양씨, 고씨 등의 순이다. 즉 김, 오, 양, 고씨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權, 孫, 辛, 慎, 朱, 嚴, 元, 俞, 安, 田, 趙, 千, 黃씨 등은 각 1가구씩이다.

의귀리의 자생단체 및 조직으로는 청년회 80명, 부녀회 60명, 청소년회 25명, 감귤작목반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 시설로는 국민학교, 보건진료소, 농협분소, 교회, 새마을 금고가 각 1개씩 자리잡고 있다. 공공건물로는 복지회관 100평 1동, 공동창고 2동 65평 등이 있다.

의귀국민학교(1485-3번지)는 남원국민학교 부설 간이학교로 설립되어 1959년

의귀국민학교로 독립 개교되는 과정에서 4.3사건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수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때는 12학년 500명이 넘는 학생수를 보유했으나 80년대 중반이후 <표5>와 같이 학생수가 많이 줄었다. 그 원인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아제한,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들 수 있겠다.

의귀국민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1982. 1. 26일 설립되어, 마을 어린이들의 유치원교육을 담당해오고 있다.

<표5> 의귀국민학교 연도별 재학생수

연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남/녀						
1968							128/142
1971	34/36	35/33	35/24	27/19	24/26	15/24	170/162
1976	52/50	41/52	48/34	57/42	42/37	34/36	274/251
1981	39/43	38/41	31/39	47/49	39/47	47/51	241/270
1986	27/20	23/30	23/12	28/31	22/24	37/38	153/162
1991	20/20	17/14	18/15	18/14	10/30	17/26	100/119

제주도교육청통계연보

일주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만 해도 면의 중심 마을로 舊官道에 위치해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의귀리는 한동안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 중의 하나였으나, 근래 들어 매우 교통편이 좋아졌다. 특히 1991년 6월 1일부터 남조로가 개통되어 제주 시까지는 버스로 불과 4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남조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매시간당 3회씩 통과하기 때문에 제주시에 가려면 서귀포까지 가서 갈아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었다. 남원까지는 일주도로를 잇는 간선도로가 1976년 2월 포장되었고, 그 후 서귀포-상효-신예-위미대성동-한남리-의귀리-수망리-신흥2리-토산-가시리-표선 등을 잇는 중산간도로도 80년대중반 완전포장되어 매시간당 한 대 꼴로 버스가 다닌다. 서귀포까지는 버스로 25분 정도 걸린다.

전기는 1974년에, 전화는 1977년에 각각 가설되어, 집집마다 전자제품과 전화 등이 마련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의귀리에는 슈퍼마켓을 비롯한 잡화점이 5개소, 쌀가게 2개소, 식육점 및 식당 2개소, 주산학원 1개소, 피아노교습소 1개소, 공업사 1개소, 당구장 1개소가 있다.

IV. 産業構造

의귀리는 중산간 마을로서 감귤을 비롯한 고소득 경제작물을 재배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특히 감귤산업은 이 마을 소득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보리, 조 등을 주로 재배했으나 부지런한 사람이 겨우 충당할 정도에 불과했으며, 70년대까지만 해도 무말랭이, 고구마, 유채 등의 환금작물을 많이 재배했었다.

〈표6〉 주요작물재배

단위 : ha

감 귤		파 인 애플		바 나 나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303	490	25	7	11	3

1991년 현재 · 의귀리사무소집계

80년대에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했으나, 90년대에 들어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여파로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이제 모두 다른 작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였다. 다만 바나나 파인애플의 작목전환으로 시설감귤 재배농가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였다.

전 농토가 감귤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 마을에는 거의 전 주민이 감귤에 의존하고 있는데, 곧 여기에 감귤연구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이다.

의귀리에는 해성농장, 남영농장 등 대단위 감귤농장도 조성돼 있다. 그런데 이 농장들의 소유주는 거의 외지인이다.

고소득 작물의 재배로 가구별 소득이 비료적 높은 의귀리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가 많아 리사무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수가 162대로 거의 두가구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7> 참조)

<표7> 차량 및 농기계

차 량			농 기 계			
승용차	농업차량	오토바이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기타
80	82	65	187	31	190	15

1991년 현재 · 의귀리사무소 집계

수백필씩 조정에 현마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활발했던 이 마을의 축산업은 이제 매우 침체돼 있다. 전에는 목초지로 이용됐던 곳이 상당 부분 개간되어 감귤원으로 조성됐음은 이 마을 산업 변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년도의 197마리의 소가 1991년에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마리로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양돈장과 양계장이 1개소씩 있으나 양돈장은 이 마을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

<표8> 양축

축별	소	돼지(양돈제외)	염소	양봉(호수)	기타
두수	70	45	100	42	

1991년 현재 · 의귀리사무소 집계

참 고 문 헌

- 강용삼편, 『濟州의 人脈』, 태화문화사, 1980.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김중업, 『耽羅文化史』, 조약들, 1986.
남제주군, 『남제주군지』, 1986.
의귀국민학교, 『鄉土誌』, 1988.
제주도, 『濟州先賢誌』, 1986.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1976.

方 言

指導教授 : 김홍식

指導補助 : 송상조, 현계철

班 員 : 이차경(3), 문미영(2)

양인자(2), 김은정(2)

이유경(2), 김미영(1)

장은아(1), 허성미(1)

강선열(1)

目 次

- I. 머리말
- II. 조사 어휘의 분류
 - 1. 가옥구조 및 명칭
 - 2. 농기구 및 가재도구명
 - 3. 동·식물명
 - 4. 지명
 - 5. 조사 및 어미
 - 6. 기타
- ※ 제보자

I. 머 리 말

1. 조사경위 및 일정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학술조사는 1991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행해졌다. 본 보고서는 의귀리 학술조사에서 조사된 ‘방언’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가옥구조 및 명칭, 농기구 및 가재도구명, 동·식물명, 지명에 관한 어휘, 그리고 조사 및 어미의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에 임하기 전의 예비모임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방언조사질문지〉 및 지금까지 조사·보고된 자료-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의 〈국문학보〉,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의 〈백록어문〉, 〈학술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위해 조사의 기본이 될 어휘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에는 나름대로 선정한 조사항목의 어휘를 묻는 질문을 만들고, 조사항목에 대한 반응형을 적는 난 이외에 조사 중 우발적으로 얻어지는 자료를 적어 넣을 참고란을 따로 마련했다. 현지조사의 능률을 위해서 제주도의 〈제주식물도감〉, 제주대학교 박물관편 〈박물관도록〉, 〈한국방언조사질문지-그림책〉 등을 준비했다.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날 (8월 1일)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조사항목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조사시 유의사항을 들었다. 조사준비를 하고 나서, 의귀리 사무소에 들러 이장님으로부터 제보자를 소개받았다. 그 중 한 분인 오봉남 할아버지택을 방문하여 ‘가옥구조 및 명칭’에 대해서 질문지 순서대로 조사를 했다. 저녁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던 첫째날 조사에 관한 평가를 하고 다음날의 일정을 계획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조사자들의 미흡한 태도와 제보자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자들은 미리 질문 내용을 연습할 것과 예를 갖출 것에 대해 반성을 했다.

제보자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오봉남 할아버지는 옛날 향교에서 훈장을 지냈던 경력 탓인지 자연스런 발음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명에 관한 어휘라든가 신체에 관한 어휘를 스스로 얘기하도록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들었다.

둘째날 (8월 2일)

지명조사반과 농기구조사반으로 나누어 조사를 했다. 이 날은 비가 와서 집에 많이들 계실거라는 생각으로 제보자를 찾아 나섰는데, 의외로 빈 집이 많아 제보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기구조사반인 경우 오전에는 김홍 할아버지택을 방문하여 ‘농기구 명칭’을 조사하였다. 마침 밭에 나갔다가 돌아온 직후였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농기구들을 꺼내 보여 주면서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었다. 저녁에는 강미생 할머니를 방문하여 ‘가재도구명’을 조사하였다. 조사자들보다 더 열성적이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잘 해 주셨다. 지명조사반은 오봉남 할아버지택을 방문하여 ‘의귀리 지명’을 조사했다. 그리고 여기서 ‘뒷술’이라는 지명에 얽힌 전설까지 들을 수 있었다.

셋째날 (8월 3일)

식물조사반과 동물조사반으로 나누어 조사를 했다. 정해진 제보자보다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제보자를 구하기로 하고 조사에 나섰다. 동물조사반은 강계생 할머니를 찾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갔다. 질문지 순서대로 진행하되 그림책도 같이 사용하였다. 그림책이 흑백이어서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사자들이 덧붙인 설명으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식물조사반은 <제주식물도감>을 준비하고 질문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강복선 할머니를 제보자로 선정해 식물명을 조사했는데, 식물도감의 사

진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별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직접 거리에 난 풀이나
담에 있는 풀, 밭에 있는 식물 등을 뜯어다가 그 이름을 묻는 방식으로 하여 조
사를 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식물이름에 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고,
단지 관상용으로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명칭은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넷째날 (8월 4일)

특별히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그간 조사된 자료의 점검, 미진한 부분의
확인, 조사일정 및 조사자들에 관한 평가를 했다. 그리고 제보자들을 방문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섯째날 (8월 31일 재조사)

보고서 작성 중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가옥구조 및 명칭'과 '식물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다. 가옥구조는 비교적 옛 형태가 잘 간직된 김례 할머니 댁을
찾아 사진도 찍으면서 조사를 했다. 식물명에 대해서는 김홍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 가기로 했다. 4·3사건 때 산 속에 살면서 풀뿌리, 약초 등을 많이 접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식물도감만을 보고서도 많이 알았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마
당이나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이나 나무 이름에 대해서도 약간 더 조사할 수 있
었다.

2. 조사 및 기술방법

5일 간의 조사 일정에 있어, 질문지의 항목을 조사하는데 제보자들의 제보는
필기와 녹음을 병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알아 들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은 그때
그때 필기하고, 대부분은 준비해 간 녹음기에 녹음을 하였다. 질문할 때는 분위
기가 딱딱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며, 면접을 통한 명명식 질문법을 주로 이
용하였다.

본 보고서는 조사된 어휘의 음운전사를 했는데, 조사자들의 미흡함으로 인해

정확한 음성형을 정밀하게 기술하지는 못했다. 표준어와 의귀지역 방언을 비교하여 제시하되, 의귀방언형은 어휘의 원형으로 보이는 것을 기록했다. 실제 발음되는 음성형은 IPA로 표기하였다. 의귀방언형에 대응하는 표준어가 없거나 애매모호한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를 기술하면서 방언 자료의 정밀한 기술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무척 아쉽게 느껴졌다. 제주도 방언이 타 지역의 방언과는 다르게 특이한 발화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표기법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비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편〈濟州說話集成〉에 ‘제주어 표기법 시안’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정밀한 것이 아니어서, 방언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제주도 방언 표기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음운전사에 사용된 음운 목록은 아래와 같다. (IPA표기 기준)

자음 :	p	t	s	c	k	h
	p ^h	t ^h		c ^h	k ^h	
	p'	t'	s'	c'	k'	
	m	n			ŋ	
		l				
모음 :	i	ɨ	u			
	e	ə	o			
	ɛ	a	ɔ			
반모음 :	j	w				

II. 조사 어휘의 분류

1. 가옥구조 및 명칭

표준어	의귀지역 (관련) 방언		비 고
초가집	초가집	c ^h ogazip ^ː	들에 임시로 나무를 베어놓고 덮는 것 울담 안에 한 채의 집만 있는 것 기둥이 하나 있으며 막살이보다 작은 것
	초 집	c ^h oʒip	
옴 막	엄 막	əmmak ^ː	
오막살이	오막살이	omak ^ː s'ari	
	이 칸	ik ^h an	
	삼 칸	samk ^h an	
	사 칸	sak ^h an	
* 외부공간			
어귀	울 래	ollɛ	집으로 들어오는 어귀에서부터 마당에 이르는 좁은 통로
	울랫고비	ollɛt k'obi	
	어 구	əgu	울래의 양쪽에 돌담을 쌓는데, 이 담이 시작되는 길의 모퉁이
	어긋돌	əgʉt'tol	어구에 쌓는 돌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
디딤돌	팡 돌	p ^h ant'ol	길거리에도 팡돌이 있었음
노뎃돌	물팡돌	mɔlp ^h ant'ol	말을 탈때 이용하기 위해 놓는 디딤돌
대문	이문/면문	imun/ mənmun	뜰앞에 있는 대문으로 좌우에 주거시설이나 축사가 있다.
	정 낭	cəɲnaŋ	대문의 대응으로 설치한 기둥나무 출입통제의 기능을 함

외양간	정설남	cəŋsəlŋaŋ	가로로 걸쳐 놓는 것
	주목돌	cumuk ⁷ t'ol	양쪽에 세운 나무(들)에 구멍을 뚫은 것
	쇠마구	sʰmagu	쇠 기르는 곳
	쇠막	sʰmak ⁷	밭거리에 쇠 매는 곳
	우마집	umac ^h ip ⁷	비올 때 말을 에워 두는 집
	마장	mazaŋ	말 매어 두는 곳
안채	퇴빃막	t ^h webinmak ⁷	불경이나 쇠거름을 놓는 곳
	주 채	cuc ^h e	
바깥채	밭거리	pak ⁷ k'əri	
결채	모커리	mok ^h əri	
안뒤결	안 튀	ant ^h wi	안채 뒤의 빈터로 나무도 심을 수 있다.
고방	고 팡	kop ^h aŋ	방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었다.
	우 연	ujən	옛날에는 밭가운데 집이 있었다. 울타리 안에 집이 앉고 난 여분의 터에 채소등을 심어 활용하는데 거름을 잘 해야 한다.
울타리	울 담	ult'am	우연에 담을 두른 것
노적가리	늘	nul	* 늘는다~늘을 만드는 행위
날가리	늘 굽	nulgup ⁷	
화장실	통 시	t ^h oŋci	* 동시에 간혀졌다~사람이 나다니지 않는 것을 말함
	돛통시	tot ⁷ t ^h oŋci	
	드들팡	t'idiip ^h aŋ	
* 내부공간			
마루	상 방	saŋbaŋ	판자를 간 방으로 마리라라고도 함
마루문	상방문	saŋbaŋmun	상방의 앞쪽 출입구

찬방	죽은상방	cɔŋsɔŋbaŋ	상방의 기능에서 식사 전용으로 공간분 화된 근대적 공간
방	구 들	kudil	수면, 휴식 등 개인적인 공간, 온돌 설비 가 됨
	구들소이문	kudilsoimun	구들에서 상방으로 난 두쪽의 문, 여닫는 식
온돌방	도순방	tosinbaŋ	
	불 목	pulmuk ⁷	불때는 장소. 화재예방을 위해 요강을 울 려 놓음. 바깥에 따로 설치
작은방	죽은구들	cɔŋgudil	
	고랑채	korɔŋc ^h e	작은 구들을 박하게 말한 것
	손 청	sonc ^h ɔŋ	손님이나 자식들이 혼인 후 잘 수 있게 된 방
	복덕방	puk ⁷ t'ɔk ⁷ p'aŋ	* 옛날엔 마리가 없거든 산디적고라 물 려 그네 복삭허게 집안에 꼬랴지. 마당드 래도 끌곡.
창문	부 섭	pusɔp ⁷	상방의 중앙에 화리 대신 만든 것
	호령창	horjɔŋc ^h aŋ	구들에서 마당쪽으로 한지를 바른 채광 조망용인 살문
	개 창	kec ^h aŋ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대문 옆의 작은 창
창고	제 창	cec ^h aŋ	마루에서 제사지낼 때 이용
	노재기	nozɛgi	곡식 같은 것을 저장하는 곳, 안팎이라고 도 하는데 안방의 뜻이다.
창구멍	창곰	c ^h aŋk'um	뒤편을 내지 않으면 구멍을 뚫는다.

부엌	정지/정제	cəŋzi cəŋze	
뿔마루	난간	nangan	마당과 상방의 중앙에 위치
섬돌	이잇돌	iit t'ol	난간앞에 돌을 놓은 것
* 건 축			
띠	세	se	지붕을 만드는 것
	호랭이	horəŋi	새끼줄을 꼬는 기구
	말호랭이	malhorəŋi	
주춧돌	디땃돌	tit ^h it t'ol	기둥을 받치는 돌
귀틀	귀클	kwik ^h il	마루를 맞추는 뼈대가 되는 나무
	구들돌	kud ^h il t'ol	방에 까는 돌로 몬질락하다.
	쥐도리	cwidori	상모루를 받치는 것
	상모루	saŋmoru	옆으로 길게 놓는 것. 가운데에 위치 * 상모루 꺾어져 빗겨~아방이나 아들이 실수했을 때를 일컫는 말
	증모루	cujmoru	상모루 다음에 오른쪽으로 놓는 것
	도 리	tori	
	외도리	wedori	맨끝에 담과 닿을 정도
	내도리	nədori	외도리 안쪽
	웃도리	ut t'ori	서슬놓은 다음에 놓음
발비	서 슬	səsil	입쟁이 사이에다 서슬을 하는데 서슬 놓는 것은 지붕과는 다르며, 아래에 널을 박고 서슬을 놓는다. 벽에 대나무 혹은 모시를 사용하여 흙이 잘 붙게 한다.
외	퇴 기	t ^h wegi	

보	포	p ^h o	길게 세우는 것
	종 포	coŋp ^h o	포 다음에 세우며 포보다는 짧게 세운다.
	가위	kawi	
	문입쟁이	muni ^h p ^h c'ɛŋi	
인방	입쟁이	ip ^h c'ɛŋi	포 양쪽 기둥인 포깃 사이에 들어가는 기둥이며 세우는 것은 다 입쟁이라 한다.
	지 봉	cibuŋ	서리낭을 돌아가면서 걸침. 서리 위에 대나무 등을 쪼개서 새끼로 엮어 흙을 바르는데 이 흙을 앙토라 한다. * 초가삼간 : 포 2개, 서리 60개, 입쟁이 60개, 가풀목(널) 60개.
	대 방	tcbaŋ	벽선 사이에 끼워지는 가로채로 문이 세워지는 상하에 설치되는 것
문지방	지 팡	cip ^h aŋ	
	문시지방	munci ^h zibaŋ	
미달이	밀장문	milc'aŋmun	범살문으로 구들의 창문 안에 이중으로 설치되는 미달이 창문 가르다지, 외다지
	뒷문	twinmun	뒤쪽으로 난 창문
방문	지겟문	cigemmun	판자문
	도절귀	to ^h ca ^h l ^h gwi	문짝을 여닫을 수 있게 연결시켜 놓은 쇠붙이
	수도절귀	sut ^h o ^h z ^h al ^h gwi	문에 거는 부분
돌쩌귀	암토절귀	amt ^h o ^h z ^h al ^h gwi	입쟁이에 붙어 있으며 걸림당하는 부분

결쇠	결썰	kaɫsʷe	문이 열리지 않게 잠그거나 여닫을 때 사용하는 문고리
----	----	--------	-------------------------------

2. 농기구 및 가재도구명

표준어	의귀지역 (관련) 방언	비	고
* 농기구명			
쟁기	잠 데	camde	소나 말의 힘으로 밭을 일구는 농기구로 장기라고도 함
	성 애	səŋe	장기의 긴나무
보습	보 섭	posəp̚	쟁기의 술바닥에 맞추는 삼모양의 쇳조각
벧	벧	pet̚	보습 위에 비스듬히 대어 흩이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 쇳조각
	몽 클	məŋkʷi	성에 밑에 있는 보습을 지르는 굽은 나무
	오리목	orimok̚	쟁기를 끌 때 썸
따비	따 비	tʰaβi	테를 갈 때 쓰임
	벤줄레	penzulle	따비의 한 가지
낫	진호미	cinhomi	긴나무에 낫을 부착시킨 것으로 서서 휘둘러 풀을 베는 것. 벌초할 때 썸
	낫	nat̚	
	낫주룩	nat̚cʰruk̚	
	낫 집	nat̚cʰip̚	낫의 쇳날을 보호하는 낫덮개
호미	골쟁이	koɫgəŋi	김 밭 때 쓰는 농기구의 한가지로 쇳

괘이	괘 이	kwaji	<p>날이 삼각형이며, 가는 목을 휘어 꾸부리고 자루를 끼운 것.</p> <p>땅을 팔 때나 흙덩이를 잘게 부술 때 쓰는 자루가 긴 농기구</p> <p>* 작은 것을 흙을리는 괘이라고 함</p>
쇠스랑	쇠스렁	s ^o siɾɔŋ	<p>두엄을 끌어내는데 쓰거나 흙을 고를 때 쓰는 농기구</p>
삽	갈래죽	kalleɟuk ⁷	<p>흙을 떠 낼 때 쓰는 농기구</p>
곡괘이	목괘이	mok ⁷ k'waji	
벼훑이	보리클	porik ⁷	<p>보리의 알덩이를 잘라내거나 훑는 것.</p> <p>* 꺾데기 뺏겨 내는 거 아니고, 보리 해영 오며는 마당에 세와 가지고 훑는다.</p>
	훑 테	holt ^h e	<p>나무로 보리클 닳게 만든 것</p>
도리깨	도 깨	tok ⁷ e	<p>보리 알맹이 잘라 내는 것, 두드리면 돌아간다</p>
	조쿠구리	cok ^h uguri	<p>조 말리는 거</p>
흙방망이	곰 베	kombe	<p>* 발갈민 병에 일어나주게. 이걸로 두들긴다말이여.</p>
	병 애	pone	
흙덩이	남 퇴	nam ^h we	<p>통나무로 만들며 발을 밟을 때 사용.</p> <p>* 소나 물이 어스면 남퇴가 이성 끈나말이여,끼시민 테가 여러개 이성, 씨뿌린 다음 보리가 웃자라지 않게 발을 불린다.</p>
갈퀴	갈쟁이	kilgeŋi	<p>땀감으로 사용되는 나뭇잎을 끌어 모으는 기구</p>

	날래근데	nallek'inde	곡물을 건조 시킬 때 그어서 골고루 말려 주는 것
	굴묵근데	kulmukk'inde	은돌방의 땀감을 집어 밀거나 재를 때는 기구
	바찌게	pac'ige	지게 위에 다시 대나무 같은 것으로 짜서 만든 것. 흙을 운반할 때 사용
	푸지게	p ^h uzige	* 나무 같은 것으로 짜서 메영 다니는 디 끈도 이서.
절구	방애	paŋɛ	들로 만든다.
절구공이	방앳귀	paŋɛt'k'wi	나무로 만든다.
맷돌	ㄱ래	kɔrɛ	
	ㄱ래자룩	kɔrɛt'c'aruk'	
연자매	물뱅이	mɔlbcŋi	웃착, 알착이 있고 소를 이용한다.
	쟁고래	cɛŋgɔrɛ	* 손잡이가 이성 돌린다. 고망으로 콩도 들여논다. 물뱅이 현다음 쟁ㄱ래로 곤다.
길마	쇠질메	s ^h zilme	소의 등에 짐을 실어 나를 때 사용
	도곰	togom	소의 등이 아프지 않게 길마 밑에 깔아 주는 것
* 죽기명			
밭	밭	pal	여름에 햇빛을 막는 것으로 출입구에 길게 드리우는 것. 대로 만든다.
바구니	구 덕	kudək'	대를 잘라서 꺾어 엮은 다음 막대로 두드려서 만든다.
	애기구덕	ɛgik'udək'	아기를 잠재우는 구덕
	송코리	sɔŋk'ori	채소를 넣어두는 그릇. 소쿠리, 솔바구니

채롱	물구덕	mulk'udək̃	물허벅을 넣어 지고 다닐 때 사용
	소키구덕	sok ^h 'ik'udək̃	빨래 놓는 그릇
	질구덕	cilk'udək̃	* 멍 다니지 못했 지엄 다닐 때
	부름구덕	p ^h ɾɪmk'udək̃	구덕의 안팎을 종이 등으로 바른 구덕
	낙시구덕	nak ^h 'ik'udək̃	고기 같은 거 넣는 구덕
	차반지	c ^h aβanzi	대로 만들며 뚜껑을 덮게 되어 있다. 차롱
체	테오리차반지	t ^h eoric ^h aβanzi	야외로 나갈 때 쓰는 짝그마한 헌거. 1인용
	체	c ^h e	
가는체	대 체	tɛc ^h e	
	구는체	k ^h ɔnɪnc ^h e	
어래미	얼맹이	əlmeni	* 큰것, 굷인 것을 치는데, 굷인 건 위에 뜨고 좋은 건 알레로 내려진다.
키	푸는체	p ^h unɪnc ^h e	얼맹이보다 좀 작은 것
삼태기	골 체	k ^h ɔlc ^h e	흙이나 거름을 옮길 때 사용하는 농기구
망태기	망텅이	manɥ ^h eni	고사리 꺾을 때 사용
작은망태기	멜망텅이	melmanɥ ^h eni	* 씨노앙 뿌러멩 다니는 거
* 가재도구명			
도마	덤 베	tombe	
	시 접	siʒəp̃	짜그만한 공기
나무주걱	밥 자	pap̃'c'a	밥 푸는 것. 쇠밥자도 있었다.
국자	남 자	namʒa	
죽젓광이	남 죽	namʒuk̃	죽썰 때 젓는 것으로 나무로 만든 납작한 것

	도꾸리	tok'uri	제일 큰 술
아궁이	숫단지	sot't'anzi	
	숫강알	sot'k'agal	술 밑에 불 때는 곳
부지갱이	굴 툽	kult'uk	연기 나가는 곳
	부지땡이	puzit'engi	불을 땡 때 아궁이 쭈시는 것
화덕	불끈데	pulk'tnde	불치를 꺾어내거나 뒤로 모을 때 사용
	부 섭	pusəp	아궁이 위에 솥을 거는 평평한 곳
부삽	불치막	pulc'himmak	재를 저장하는 장소
	불 삽	pulsap	불덩이를 부지땡이나 고무래로 끌어내어 담는 작은 삽 같이 생긴 것
괘	숫망구래기	summanguregi	글갱이와 비슷하며 불치를 꺾을 때 사용
	개심이	kecimi	* 불 솥아 난 다음 나무 솔박으로 담을 수 있게 된 것.
	괘	kwe	뚜껍을 만들어서 옷 같은 것을 담는다. * 재료~먹쿠실낭, 구령낭
시령	괘설랍	kwes'əllap	
	시 령	sirəŋ	선반과는 좀 다른 것으로 구들 위에 괴를 놓을 수 있게 한 것
살강	시령알문	sirəŋalmun	시령의 밑에 단 문
	장 괘	cangwe	삼방에 있는 것으로 집 지을 때부터 만 들며 문도 있다.
	장꺸문	cangwimmun	
	장 방	canbaŋ	상방 구석에 그릇을 놓게 만든 것
	살 래	salle	부엌에서 음식이나 그릇을 넣어두는 곳 * 대나무로 짜그네 그릇씻엉 얹엉 놔두

			는 거. 밀장아나라 외단이로도 하고, 입 쟁이만 노민 문 어서도 된다.
거울	색 경	sek ^h k'jəŋ	얼굴보는 거울
	경대	kjəŋdɛ	큰 거울
뒤주	두지	tuʒi	나무로 그냥 짜서 만드는데 곡식을 담는 다.
바디	초석짜는부디	pødi	초석틀의 일부분
항아리	물 항	mulhan	단지보다 큰 항아리로 부엌에다 두고 물 을 떠다 놔두고 사용
장독	장항	caŋhan	장 담그는 항 * 날씨 황당할 땐 열었당 담은다.
	장항굽	caŋhangup ^h	항아리 아래에 둥그렇게 된 부분
장독대	장항덕	caŋhandək ^h	항들을 놔두는 곳
	알동이	alt'ŋŋi	작은항, 자리젓 같을 것을 담근다
	웃동이	ut't'ŋŋi	제일 큰 항
	조막단지	comak ^h t'anʒi	짜그만헌거. 큰 것에 있는 물을 덜어다 먹음
	망대기	mandɛgi	자리젓을 두말~서말 정도 뜨는 것
되	대막세기	tɛak ^h s'egi	나무로 만들었으며 쌀을 거리는 데 사용 10~11개가 한 말
나무바가지	박새기	pak ^h s'egi	솔박
물동이	물허벅	mulhəbək ^h	병모양의 물동이
	물 팡	mulp ^h an	물허벅을 지고 내리기 편하게 놓는 것
	물팡돌	mulp ^h ant'ol	물허벅을 부리는 곳에 놔둠 * 그 허벅 물팡드레 부려 불러

	두루뎡	turup ^h ɛŋ	아주 어릴 때 사용하는 물허벅
	대바지	tɕbaʒi	10살 정도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허벅
	양철대바지	jaŋtɕʰaldɕbaʒi	자주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물허벅
개숫물그릇	긋은 물통	kuʒɪnmult ^h oŋ	

3. 동·식물명

표준어	의귀지역 (관련) 방언	비고	
* 동물명			
서캐	쉬	sy	니(이)의 알
벼룩	베 룩	peruk ^ˊ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것으로 뛰기를 잘함
	개벼룩	kcberuk ^ˊ	개의 피를 빨아 먹는 것
모기	모 기	mogi	
파리	푸 리	p ^h ʌri	
두더기	버랭이	pərenji	파리의 알에서 생겨난 벌레
가시	버랭이	pərenji	된장 같은 음식물에 생기는 하얀 벌레
지렁이	게오리	keori	
회충	거수이벵	kasuiben	회벵, 사람 배속에 사는 지렁이 같은 것
개미	개엿지	kejəmʒi	
곰뱅이	곰뱅이	kumbəŋi	
바구미	좀	com	콩·보리·밀 따위의 낱알을 파 먹는 벌레 * 콩 버랭이
지네	지넵이	cinəŋi	

진드기	진 독	cindok ^ˊ	소의 배나 개의 발가락 사이에 달라 붙어 피를 빨아 먹음
반딧불	불란디	pullandi	
벌	벌	pəl	
땅벌	사상벌	sasənbəl	밭구렁 같은 곳에서 땅에다가 굴을 파서 집을 짓고 사는 벌
거미	거 미	kəmi	
매미	재	ce	
	왕 재	wanʒe	
	꽃 재	p ^h ot ^ˊ c'ε	
	고삭재	kosjak ^ˊ c'ε	
	수리재	suriʒe	
버마재비	말 축	malc ^h uk ^ˊ	사마귀, 손등에 무언가가 콩알같이 났을 때에 그것을 잘 뜯어 먹는다는 벌레
메뚜기	말 축	malc ^h uk ^ˊ	
귀뚜라미	공쟁이	konʒɛni	
	공중이	konʒuni	
개구리	가게비	kageβi	
물방개	강베룩	kanberuk ^ˊ	
풍뎅이	두메기	tumegi	
	줄뱅이	colbeni	
소	쇠	s ^ϕ	
황소	부룽이	purunji	크면 발갈쇠라 한다.
암소	암 쇠	ams ^ϕ	
송아지	송아기	sonagi	암컷은 암송아지

명애	쇠명애	sʰmɔŋe	* 고삐는 쇠줄이라 한다 쟁기질 할 때 소 목덜미에 있는 굵은 나무
소입막이	쇠망울	sʰmanɔl	* 쇠늑대 소의 입을 막아서 소가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하는 망
두엄	쇠거름	sʰgɔllim	
염소	염 쇠	jamsʰ	
말	말	mɔl	
망아지	몽생이	mɔŋsɛŋi	말의 어린 새끼
개	개	ke	
강아지	강생이	kanɛŋi	
고양이	고냉이	konɛŋi	새끼는 고냉이 새끼라고 한다.
닭	독	tɔk	장독과 암독이 있으며, 한번에 알을 하나씩 낳는 토종독이 있다.
병아리	비아기	piegi	닭의 어린 새끼 * 장비애기, 암피애기
닭털	독터럭	tɔkʰtʰɔrɛk	닭에 붙어 있는 털
달걀	독새기	tɔkʰsɛgi	
벧	독고달	tɔkʰkʰodal	닭이마에 달린 빨간 살
닭모이	독꼭석	tɔkʰkʰokʰsʰɔk	
뺨	배 엄	peɔm	
돼지	도새기	tosegi	
노루	노 리	nori	
여우	여 히	jɔhi	

토끼 살쾨이	퇴 끼 식	t ^h wek'i cik ^ˀ	토끼를 잡으려고 놓는 덫을 '코'라 한다.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가지도 하는 성질이 사나운 산 짐승
쥐 박쥐	쥬 이 도람쥐	cwiŋi tɔramʒy	
제비 까마귀	제비새 가마귀	cebisc kamagwi	* 공글락공글락 울면 길조, 까악까악 울면 흉조
참새	참 새 밥주리 지꾸리 생 이	c ^h ɔmsɛ pap ^ˀ c'uri cik'uri sɛŋi	
비둘기 빼꾸기	비둘귀 떠꼭새	pidflgwi t'ək'uk ^ˀ s'ɛ	* 떠꼭떠꼭 울면 풍년, 버꼭버꼭 울면 흉년
솔개 매	똥소리개 매천이	t'ɔnsorigɛ mɛc ^h əni	
* 식물명			
2 ¹⁾	뱀 톱	부 숨 새	pusums'ɛ
7	바 위 손	풀 채 손	p ^h ulc ^h tson
20	고 사 리	고 사 리	k'osari
22	큰 봉의 꼬리	허금고사리	həgimgosari
28	공작고사리	허금고사리	həgimgosari
30	개면마	배엄고사리	peəmgosari

1) 이 번호는 <제주식물도감>의 분류번호임

58	네가래		물속에 열매가 열림
63	소 나무	솔 나무	sollamu
64	곰 솔	솔 나무	sollamu
75	굴피나무	밤 나무	pammamu
84	구실잣밤나무	제 밤 낭	cebamnan
93	느티나무	드른나무	t̃h̃nnamu
94	팽 나무	팽 낭	p'oŋnan
		폭 낭	p'hoŋnan
101	모 람	모 람 쿨	moramk ^h ul
		가메기빈독	kamegibindok [̃]
107	모시물통이	새 삼	sesam
110	왕 모시풀	진 썩	cins'əp
111	모 시 풀	모 시 쿨	mosik ^h ul
114	긴잎모시풀		모시의 한 종류다.
125	수 영	개 술	kcsul
131	며느리배꼽	개 ㅁ 물	kcm̃m̃il
145	땀 싸 리	비 싸 리	pis'ari
149	비 름	츄 비 늄	c ^h ombinim
156	쇠 비 름	쨌 비 늄	s'webinim
201	가는잎할미꽃	할미꽃	halmik'ot [̃]
204	으 름	유 름	jurim
207	땡땡이덩굴	쨌 멀 리	s'weməlli
223	참식나무	새 당 낭	sedaŋnan
		신 낭	sinnan
225	까마귀쪽나무	구릅비낭	kurəmbinan

227	자주괴불주머니	물 은	mullon
231	유 채	유 채	juc ^h ε
236	미나리냉이	미 나 리	minari
262	산 수 국	도채비꽃	toc ^h ebik ^o t ^ˆ
270	뱀 딸 기	배 엄 탈	pεamt ^h al
		개엄지탈	kεəmʒit ^h al
271	흰땃딸기	뒤 응 탈	twiuŋt ^h al
283	복분자딸기	가막탈낭	kamak ^ˆ t ^h allaŋ
		탈	t ^h al
285	장 딸 기	한 탈	hant ^h al
298	산벚나무	사 옥 낭	saonŋaŋ
306	마 가 목	재 피 낭	cεp ^h inaŋ
308	자귀나무	자 귀 낭	cagwinan
332	취	꼭	k ^h k ^ˆ
362	병 굴	소 유 자	sojuʒa
363	유자나무	산 울	sanul
366	멀구슬나무	먹구실낭	mək ^h ucillaŋ
370	예덕나무	복 당 낭	pok ^ˆ t ^ˆ aŋnaŋ
404	단풍나무	단풍나무	tanp ^h uŋ namu
408	합다리나무	머 귀 낭	məgwinan
411	상동나무	삼 동	samdoŋ
414	왕 머 루	멀 리	mə lli
417	담쟁이덩굴	담 쟁 이	tamʒɛŋi
430	동백나무	돛박나무	tombanŋan
443	재 비 꽃	몰쌩고장	mɔ ls ^ˆ angoʒan

470	눈여뀌바늘		산이나 담 위에 나는 풀
476	황칠나무	송 악	soŋak̃
478	음 나무	엄 낭	əmnaŋ
491	미 나 리	미 내 기	minɛgi
505	산탈나무	틀 낭	tʰillaŋ
513	진 달 래	진 달 래	cindalle
515	참꽃나무	사옥낭꽃	saonŋaŋk'ot̃
576	순비기나무	굼비기낭	kumbiginan
587	익 모 초	인 모 초	immocʰo
599	들 깨	유	ju
600	박 하	박 하	pakʰa
643	질 경 이	배 채 기	pecʰɛgi
670	인 동	운동고장	undongozan
679	하늘타리	드레기 꿀	tiregik'ul
687	더 덕	던 덕	təndək̃
717	갯개미취	푸 슴 새	pʰusimsɛ
747	털진득찰	게 풀	kepʰul
755	영 경 귀	소왕이	sowaŋi
758	바늘영경귀	가시소왕이	kačisowaŋi
772	민 들 레	담 뽀 뽀	tamp'op'o
809	갈 대	물 대	mult'ɛ
818	금강아지풀	개 조	kezo
823	띠	세	se
	빨 기	뽕 이	p'iji
829	염 주	수 슴	sustm

848	참방동사니	쇠 꺼 렷	sʰk'əɾək̃
851	반 하	산 마	samma
853	천 남 성	쳐 남 상	cʰənamsaŋ
856	석 창 포	신 사 라	cinsara
863	평의 밥	들 마 농	tilmanəŋ
903	마	떡 정 당	t'ək̃c'əŋdan̄
		떡 정 낭	t'ək̃c'əŋnan̄
가 타	토 마 토	도 마 도	tomado
	참 깨	꽤	k'wɛ
	울 무	수 승	susiŋ
	삼 나무	쑥 대 낭	s'uk̃t'ɛnan̄
	쑥	속	sok̃
		진속	cinsok̃
	매 밀	모 물	mɔamil
	미빠쟁이	미우쟁이	miuɟɟi
	독 풀	독 쿨	tɔk̃kʰul
	부 추	세 우 리	seuri
	김	검 질	kəmɟil
	바 랑 이	츄제환지	cʰəmɟehwanɟi
		대롱제환지	tɛrəŋɟehwanɟi
	제 비 꿀	제 비 풀	cebipʰul
	자 목련	자 목 년	camuŋɟjən
	서 나무	서 이 낭	səinan̄
		늦	nit̃
		지 귀 낭	cigwinan̄

	고 니 쿨	konik ^h ul
--	-------	-----------------------

4. 지 명

의귀리 지명		유 래 또는 (설 명)
옥귀모을	ok'winmɔ̃ɦ	衣 貴 里
넋이오름(넋시오 름)	nək's'iorim	남원리와 의귀국민학교 앞을 흐르는 내가 있 었는데, 이 내가 서북쪽 동산에서 흐른다. 여 기를 지나던 송아지가 물에 휘말렸는데, 어미 소가 송아지가 있는 서북쪽으로 (와우형으로) 돌아 누웠다 한다. 이때의 어미소가 넋이 나 갔다 하여 넋난 소라 하고, 여기를 '넋소오름' 이라고 하기도 한다.
산하동	sanhadon	넋이오름 밑동네
월산동	wəls'andon	동쪽으로 내려오는 내를 기준으로 하여 붙여 진 동네
중앙동	cunʌndon	내의 위쪽 동네
새솔왓	səsəlwat̃	새로 된 소나무 밭
솔대왓	solt'cwat̃	옛날 무관들이 활을 쏘던 장소
몰진밭	mɔ̃lʒinbat̃	헌마시 헌마할 많은 말을 모아 놓고 검사하던 곳
관전밭	kwanʒənbat̃	관에서 관리하는 밭으로 돈을 꿰어서 만든 돈 꾸러미로 산 밭이라하여 관전(串錢)밭이라 함.
반디기밭	pandigibat̃	민오름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큰 여섯혈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원칫밭	wənc ^h it ^ˈ p ^ˈ at ^ˈ	
서위남동산	səwinamdonsan	선데기소 있는 위쪽 동산으로 서위나무가 있어서 서위남동산이라 함.
제석동산	cesək ^ˈ t ^ˈ oŋsan	7월 14일에 백중제를 지내는데, 이 동산은 제사를 지내던 동산이라서 제석동산이라고 불리워 짐.
뒷동산	twit ^ˈ oŋsan	뒷술 근처 뒤에 있는 동산
너터르모르	nət ^h ərɪmori	작은 송아지가 낫이 나갔던 동산이라 하여 송아지 오름이라고도 함.
가증물	kazunmul	의귀국민학교 앞에 있는 내창
진물	cinmul	내창에서 좀 위로 간 곳에 위치
개튼물	ket ^h ɪnmul	개가 죽어서 뜬 물. 개지가 뜬 모양이라고 한다.
선데기소	səndegiso	수망리쪽 위 아래로 큰 물이 있었음
박데기소	pak ^ˈ t ^ˈ egiso	
이데기소	idegiso	
창시모소	c ^h aŋsimoso	물이 맑고 깊어 밑창을 볼 수 없다. 장어라는 민물고기가 서식한다.
고시모소	koçimoso	남원리와 의귀리가 경계된 냇이오름앞에 위치함. * 창시모소와 고시모소는 창고라 하여 양쪽에 위치했다.
목장	mok ^ˈ c ^ˈ aŋ	의귀리 내에는 공동목축지만 있었다. 현마하는 말을 키우는 곳은 국가에서 지정하였는데 1소장에서 10소장까지 있었다.

민오름	minorŋm	* 지경은 거의 수망리쪽에 있다.
오도물정토	odomulʒəŋtʰo	민오름 올라가는 입구, 서쪽경계
자귀낭도	cakwinaŋdo	동쪽 경계
굴치	kulcʰi	민오름의 서쪽, 한라목장과 경계
영꿏못	jəŋgwenmot	영괴는 원래 공동묘였으며, 못은 千馬가 먹 는 물이다. 거기에 있는 피야는 사람들이 비 를 피하거나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 유숙 하는 곳이다.
업개들	əpʰkʰədol	업은 형태라 하여 지어진 이름
물나는이맹이	mullanŋniməŋi	이마처럼 튀어나왔다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물은 조금씩 났고, 목감(목축을 관장하는 사 람)이 살았었다.
선내거림	sənnəgərim	한남리로 갈려와서 서쪽 내를 갈리운 내
물러진 연대	mulləʒinjəndə	의귀리와 남원리 사이에 있는 것으로 유래가 불분명하다.
절물명살	cəlmŋmijəŋsal	앞에 있는 큰 내 가운데 있다하여 명살이라 하고, 절물은 옛날에 절이 위치해 있어서 불 여진 이름이다.
널당	nəltʰaŋ	고시모소 옆에 위치
장터	caŋtʰə	계튼물 근처에 장터가 있었는데, 오일에 한 번 장이 섰다.
못거리	mokʰkʰəri	예배당 근처에 못이 있었는데, 민물고기가 서식했다.
장밭집터	caŋpʰatʰcʰiptʰə	애월에서 넘어온 장밭으로 택호가 그대로 내려온다. 옛날의 기왓장과 주춧돌, 기둥이

<p>한질 뒷술</p>	<p>hanzil twit's'ul</p>	<p>남아있다.</p> <p>관가가 통하던 길 집뒤에 수얼이 있었는데, 그것을 뒷술이라 했다. 뒷술엔 굵은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며, 그 나무는 절구방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통나무였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 다.</p> <p>* 뒷술에 얽힌 전설 : 이 곳에 집을 지으려 할 때 장에서 신안(무당)이 포수를 잘 사귀 라 일렀다. 시간이 많이 지난후, 포수가 날이 어두워지자 이 집에 머물렀다. 포수가 방에 누워 잠이 들락말락 했을 때, 갑자기 자기 누이 동생이 그 집 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모관(지금의 제주시)에 있는 누이 동생이 늦은 저녁에 찾아올 리 없다고 이상히 여겨 요물이라 생각하고 총을 쏘자 쓰러졌는데, 과연 여히(여우)였다. 죽은 여우의 피가 뒷 술에 남게 되었는데, 이를 여히혈이라 하며, 이곳은 혈씨(따히 기운을 머금은 곳으로 중 요한 곳)가 되었고, 그곳에 지은 집이 내내 평안했다 한다.</p> <p>향사는 왜정시 주재소로, 뒷술이 사라진 후 생겼다고 한다.</p>
------------------	-----------------------------	---

5. 조사 및 어미

조사 및 어미		예 문
- (아/어)가난	- (a/ə)kanan	미강 열아가난 (밀감이 열어가니까)
- 건	- kən	나무 이제사 심건(나무를 이제야 심어서)
- (으)게	- (t)ke	돌 깎앙 지프게(돌을 깎아서 깊게)
- 고라	- kora	밭 맴심고라(밭을 매고 있는지)
- 곡	- kok̃	물허벅 지곡말곡(물허벅을 지고 말고)
- (으)곡	- (t)kok̃	개인별로 했던 것도 같으곡(개인별로 했던 것도 같고)
- (아/어)그네	- (a/ə)kine	대나무로 짜그네(대나무로 짜서)
- 깁지	- k'ɸji	언제꼬지(언제까지)
- (아/어)ㄴ게	- (a/ə)nge	옷 입언 오라서(옷을 입고 와서)
- (이)ㄴ	- (i)n	쇠이신 사름은(소가 있는 사름은)
- (이)ㄴ게	- (i)nge	어멍 오라비신계(어머니께서 와버렸구나)
- (아/어)ㄴ단	- (a/ə)ndan	돌아간단 말이여(돌아간다는 말이다)
- ㄴ데	- nde	봐신데(보았는데)
- ㄴ덴	- nden	뻑허게 운덴(뻑하며 운다고)
- ㄴ디	- ndi	했는디(했는데)
- (아/어)ㄴ디야?	- (a/ə)ntija?	밥 먹언디야?(밥을 먹었느냐?)
- 나	- na	남퇴가 이성 끈나(남퇴가 있어서 끈다)
- 난	- nan	개난(그러니까)
- 니?	- ni?	이실거니?(있을 것이냐?) 어디시니?(어디 있느냐?)
- 단	- tan	지금 보단(지금 보다는)

- (아/어)돈	- (a/ə)ton	옷을 저기 벗어돈(옷을 저기 벗어놓고)
- 드래	- t̥re	지겟문 저편드래(지겟문 저쪽으로)
- (으)르거라	- (t̥)l̥gəra	느넨 모를거라(너희는 모를 것이다)
- (으)라	- (t̥)ra	저기 가만 이스라(거기에 가만 있어라)
- 라네	- rane	오라네(와서)
- 라서	- rəsə	물을 질어 오라서(물을 길어 와서)
- 랑	- ran̥	오늘랑 강(오늘은 가서)
- (으)레	- (t̥)re	주스레 가(주우러 간다)
- 렌	- ren	돌치기렌 허주(돌치기라고 하지)
- 로	- ro	좋은 건 알레로 내려진다(좋은 것은 아래로 내려진다)
- (아/어)ㅁ져	- (a/ə)mc'jə	아니ㅁ쩌(안 온다)
- (아/어)ㅁ직	- (a/ə)mc'ik̆	비오ㅁ직허민(비가 올 것 같으면)
- (으)멍	- (ɾ)məŋ	비 맞으멍(비를 맞으면서)
- 른	- m̥m̥n	이기른(이기면)
- 민	- m̥m̥n	들어가민(들어가면), 밧갈민(밭을 갈면)
- (아/어)뱅	- (a/ə)pəŋ	잊어뱅 갖쩌(잊어버리고 갔다)
- (아/어)ㅁ젠	- (a/ə)sc'en	집 짓철헌허민(집을 지으려고 하면)
- (아/어)ㅁ주	- (a/ə)sc'u	쇠도 이섯주(소도 있었지)
- (아/어)ㅁ저	- (a/ə)sc'jə	두바떡 잇쩌(두 군데 있다)
- 사	- sa	옛날에사(옛날에는)
- (아/어)사주	- (a/ə)saʒu	낮인 일헤사주(낮에는 일을 해야지)
- (아/어)사키여	- (a/ə)sak'ijə	모기네 피와사키여(모기향을 피워야겠다)
- 서	- sə	문도 이서(문도 있다)
- (아/어)서	- (a/ə)sə	나무로 몬들어서(나무로 만들어서)

- (아/어)시나?	- (a/ə)cinja ?	이거 들으레 와시나? (이것을 들으려고 왔나?)
- (아/어)ㅇ	- (a/ə)ŋ	돌각양(돌을 깎아서), 나무베영(나무를 베어서)
- 영	- eŋ	흑질 행(흑질을 해서)
- (이)여	- (i)jə	말이여(말이다)
- (이)영	- (i)jəŋ	보리 헤영 오며는(보리를 해서 오면)
- (이)옌	- (i)jen	곰베옌 허주게(곰베라고 한다)
- 옌도	- jendo	장기옌도 허곡(장기라고 하기도 한다)
- 의	- i	집의 들어와도(집에 들어와도)
- 인	- in	낮인(낮에는)
- 주	- cu	대로 만들주(대로 만들지)
- 주게	- cuge	보름이 많주게(바람이 많거든)
- 죽	- cuk̃	잠데잠데 허죽(잠데잠데라고 하지)
- 크라?	- k̃tra ?	알아지크라? (알 수 있겠느냐?)
- 트레	- t̃re ?	아트레(아래로), 방안트레(방안으로)

6. 기 타

표준어	의귀지역 (관련) 방언		비 고
가루	구루	kɔru	
고기	궤기	kwegi	
감자	감저	kamjə	
곡식	곡석	kok̃s'ək̃	
가랑비	구랑비	kɔranbi	

거름	걸름	kəllim	
가위바위보	강경보	kaŋgəmbɔ	
그냥	기냥	kinjaŋ	
귀신	구신	kusin	
기름	지름	cirim	
길게	질게	c'ilge	
길쌈	질쌈	cils'am	
길마	질매	cilme	
김	검질	kəmzil	
고방	고팡	kop ^h aŋ	
멧	멧	met	
면도칼	멘도칼	mendok ^h al	
모기향	모기네	mogine	
세가닥	세가달	segadal	
실	셀	s'il	
이름	일름	ilɫim	
사람	사름	sarɫim	
둘이	둘리	tu lli	두 사람이
소나무	소낭	sonaŋ	
솔방울	솔똥	solt'oŋ	
면화	멘네	menne	
무명	미녕	minjəŋ	
양푼이	낭푼이	naŋp ^h uni	
병풍	팽풍	p ^h əŋp ^h uŋ	
제기차기	쪼꺼차기	c'ok'ic ^h agi	

서다	사다	sada	걸어가다가 설 때
갈바람	늦바람	nit̃p̃ɔ̃r̃im	서풍
마과람	마바람	mab̃ɔ̃r̃im	남풍
셋바람	셋바람	set̃p̃ɔ̃r̃im	동풍
하늬바람	하늬바람	hanib̃ɔ̃r̃im	북풍
낮	늦바닥	not̃p̃'adak̃	얼굴
이마	임대이	imdeñi	
	이맹이	imẽñi	
머리	대맹이	t̃em̃ẽñi	
	대가리	tegar̃i	
콧잔등	콧존등이	k̃h̃ot̃c̃'ond̃ŋ̃i	
손톱	송짚	soñc̃'op̃	
발톱	발짚	palk̃'op̃	
팔	팔꿈지	p̃h̃alk̃'op̃c̃'i	

* 제보자

강미생(여, 66세) 강복순(여, 62세)

김 홍(남, 75세) 성계선(여, 79세)

오봉남(남, 78세)

民 謠

指導教授 : 허 남 춘

指導補助 : 양 영 자

班 員 : 강남훈(4), 정용문(4)

이명진(4), 오은경(3)

이영심(3), 장연심(2)

김원훈(1), 성기남(1)

目 次

- | | |
|------------|---------------------|
| I. 조사경위 | 마. 제주도 양산도 |
| II. 제보자 | 바. 창부타령 |
| III. 노동요 | 사. 청춘가 |
| 가. 검질매는 소리 | VI. 동요 |
| 나. 그레그는 소리 | 1. 전승동요 |
| 다. 따비질 소리 | 가. 평노래 |
| 라. 마당질 소리 | 나. 다리 포개어 놀때 부르는 노래 |
| 마. 무쉬모는 소리 | 다. 말잇기 노래 |
| 바. 밧볼리는 소리 | 라. 머리깎은 아이 놀리는 노래 |
| 사. 방애 소리 | 마. 자장가 |
| 아. 시집살이 소리 | 2. 놀이요 |
| 자. 톱질하는 소리 | 가.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
| IV. 의식요 | 나. 말잇기 노래 |
| 가. 달구질 소리 | 다. 머리깎은 아이 놀리는 노래 |
| 나. 상여소리 | 라.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
| V. 타령류 | 마. 잠자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
| 가. 너영나영 | 바.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 |
| 나. 양산도 | 3. 개사곡 |
| 다. 서우젯소리 | VII. 정리 및 평가 |
| 라. 오돌또기 | VIII. 却 註 |

여기에 수록된 민요와 동요들은 1991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에서 4일 동안 현지 조사한 자료들이다.

현장론적 방법에 따라 -조사경위, 제보자, 구연상황, 사실, 주해 등 다각적인 조사방법을 택하여-조사에 임했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본 사실 표기는 제보자들의 발음에 충실했으며 《제주도 표기법시안》에 준하였다.

I. 조 사 경 위

제 1 일 (8월 1일)

오전 11시에 학교버스로 출발하여 12시 30분 경에 조사지인 남원읍 의귀리에 도착했다. 숙소인 의귀 국민학교는 아담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 조사자들은 각 반별로 짐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간단한 입소식이 있었는데 의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연혁과 실촌유래를, 이장님으로부터는 마을 현황과 제보자 몇 분을 소개받았다.

점심식사 후 1차 조사에 들어갔다. 첫 날이어서 실제적인 채록보다는 제보자들을 찾아 보기로 하였다. 먼저 김례(여·65) 할머니 댁을 찾아 갔으나 발일을 가셨는지 계시지 않았고, 돌아오는 도중에 선숙인(여·77) 할머니를 만나 저녁에 김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까지도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다음으로 김계수(남·72) 할아버지 댁을 찾았으나 제주시에 출타중이어서 다음으로 미루었다. 그길에 정신숙(여·72)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마침 할머니 두어 분이 함께 계시서 저녁에 김례 할머니 댁에서 뵙기로 하고 돌아왔다. 다시 두개조로 나누어서 남자제보자인 김병인 할아버지, 오두영 할아버지를 찾아 뵙기로 하고 댁을 방문했다. 김병인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아 성과가 없었고 오두영 할아버지는 마침 과수원에서 전정을 하시다 반가이 맞아 주셨다. 그러나 소리는 잘 못한다며 고성봉씨(남·63)를 추천해 주셨다.

식식 후에 김례 할머니 덕을 찾았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 중이셨는데 조사원들을 반가이 맞아주셨다. 후에 모이기로 하였던 할머니들이 오셨고 또 남자 제보자인 김병인(남·62) 할아버지도 참석해 주셔서 실제 채록에 들어갔다.

조사 도중 다른 팀도 합석하였고 할머니들도 여러 분 오셨다. 하지만 조사자와 첫 만남이어서인지 분위기는 산만하였고 제보자들도 어려워 하였다. 시간이 좀 흘러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김례 할머니를 비롯하여 강울열(여·64), 오기식(여·64) 할머니와 김병인 할아버지에게서 “아웨기 소리” “따비질 소리” 등을 채록할 수 있었다. 채록 중에는 과일과 음료를 함께하며 정겨운 자리를 마련하였고 끝날 때에는 모두 함께 “오돌또기”를 합창하여 자릴 마무리 하였다.

제 2 일 (8월 2일)

둘째 날은 비가 왔다. 그 날은 모두들 리사무소에서 모여 소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조사자들은 촉촉한 비를 맞으며 리사무소로 갔다. (과수원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모였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장님도 계시지 않고 소리를 하실 분들도 오질 않자, 조사자들은 다시 김례 할머니 덕을 찾았다. 한창 청소를 하시던 할머니는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셨고 어제 조사팀이 가버린후 다른 분들과 소리를 맞춰 보기도 했다며 다른 분들에게 분주히 연락하였다. 10시가 지나면서 정신숙, 오기식 할머니께서 오셨고 다른 할머니들도 놀러 왔으며 자리를 함께 해 주셨다.

어제는 어색해서 하지 못했다며 “애기 흥그는 소리”를 시작으로 해서, 정신숙 할머니는 “평노래”를 정좌하신 채 근엄한 표정으로 해 주셨다. 이어 김례 할머니는 “지렁이와 큰재(왕매미)”에 얽힌 옛이야기와 소리를 해 주셨다. 이럴 즈음에 다른 세 분이 오셔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고 어릴 적에 했던 놀이 가운데 “다리 포개어 하는 소리”를 김례할머니가 해 주셨다. 그리고 “서우젓 소리”, “씨뿌리는 소리”, “밭볼리는 소리”, “그래그는 소리”, “마당질 소리” 등을 채록할 수 있었다. 또 타령류로는 “너영나영”, “청춘가”, “오돌또기”, “제주아리랑”, “양산도” 등을 추가

로 채록했다.

오후에는 고성봉(남·63)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소리는 해 보지 않아서 못하신다는 말씀만 계속하셨고 의귀리는 4·3사건 때 마을 전체가 불타는 등 큰 피해가 있어서 같은 연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소리를 알고 있는 분이 드물거라는 얘기로 자리를 정리하였다.

저녁에는 김홍(남·75)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이분은 김병인 할아버지 댁을 찾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나이가 너무 많고 틀이를 해서 소리가 새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조사자들이 거듭 부탁을 드리자 “뱃불리는 소리”, “출 배는 소리”, “무쉬모는 소리”, “뱃가는 소리”, “파비질 소리”, “마당질 소리” 등 다양한 소리들을 채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김병인 할아버지와 함께 벌 것을 약속받고 하루를 정리했다.

제 3 일 (8월 3일)

제주시에서 돌아 온 김계수 할아버지를 찾아 갔다. 할아버지는 마을 현황과 자신의 가문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양산도 타령”을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 주셨다. 그리고 소리는 저녁에 김병인, 김홍 할아버지와 함께 학교에서 해주시기로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오후에는 동요를 채록하기 위하여 마을 어린이들을 불러 모았다. 어린이들은 최창(남·10)의 6명이 모여 여러 놀이에서 불리워지는 노래, 어희요, 개사곡 등 많은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리고 여자어린이들은 김효진(여·12)의 3명이 모였는데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등을 불러 주었다.

저녁이 되자 뱃기로 한 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교실에 자리를 마련하는데 김병인, 김홍, 김계수, 장승진(남·45)씨 등이 참석해 주셨다. 조사자들이 준비한 음료와 과일을 먹으며 소리를 들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또 여러 명이 같이 자리를 해서 그런지 한 분이 소리를 시작하자 뒤이어 소리를 계속 받아 주셨다. “뱃불리는 소리”, “무쉬모는 소리”, “홍애기 소리”, “호상소리”, “툽질소리”, “달구

소리", 타령으로는 "창부타령", "오들또기", "허우땃 소리(서우젓소리)", "양산도" 등을 채록하였다. 이 중 "창부타령"을 할 때에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조사자 중 한 명이 쓰레기통을 장구 삼아 박자를 맞추는 등, 흥에겨워 춤을 추는 분도 보였다. 또한 "오들또기"를 할 때에는 다른 조사팀도 박수를 치며 지켜 보았고 마지막으로 조사자 한 명이 제보자에 대한 고마움으로 "매화가"를 불러 한층 더 흥을 돋구었고 그것으로 자리를 정리했다.

제 4 일 (8월 4일)

조사지에서 마지막 날인지라 모두들 뒷정리 하기에 분주했다. 학교 청소를 마치고 마무리 조사 겸 답례품을 드리기 위해 김혜 할머니 댁을 찾았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기념사진 촬영 후에 학교로 돌아왔다. 학교에 돌아온 후 반별 평가와 전체 평가를 하고 의귀리를 떠났다.

제 5 일 (8월 24일)

미진했던 점과 불확실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갔다. 그러나 제보자들이 바쁜관계로 재조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사실과 그 뜻을 확인하는데 그쳤고, 제보자들에게 사진 등을 전해 주고 돌아왔다.

II. 제 보 자

[제보자 1]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김 레(女·65)



의귀리 이장님 소개로 알게 된 김례 할머니는 조사팀이 처음 찾아갔을 때는 뵈지 못 하였다. 그날 저녁에야 할머니 댁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만날 수 있었다. 조사하는 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다른 제보자들까지 불러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다.

남원읍 신흥2리에서 출생하여 이곳으로 시집을 와 지금은 과수원을 하며 혼자서 살고 계셨다. 그전에는 서귀포와 제주시에서 살다가 이제는 고향인 의귀리에서 살고 있으며 나이에 비해 젊으시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소리는 부모님들과 생활했을 때 들은 것이 고작이고 타지생활을 했음에도 많은 소리를 알고 계셨고 창작력도 뛰어났다.

제보자료 : III-가-1, III-나-1, III-다-1
 III-라-1, III-라-2, III-바-1
 V-가, V-나-1, V-라-1
 V-라-2, V-마, V-사
 VI-4, VI-라, VI-마-1

[제보자 2]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송복순(女 · 63)



3차 조사시에 김례 할머니가 불러 주셔서 알게 된 송복순 할머니는 시원시원하시고 노래도 많이 알고 계셨다. 김례 할머니의 선창에 훗소리를 잘 맞춰 주셨고 다른 노래들도 흔쾌히 불러 주셨다.

남원을 한남리에서 출생하여 이곳 의귀리에 시집을 와 살고 있으며 부군과 과수원을 하고 계셨다. 목소리가 크고 낭랑하였고 우스개 소리도 곧잘 하곤 했다. 또한 자신의 부군이 “홍애기 소리”를 잘한다며 저녁에 집으로 오라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나 부군이 자신은 부르지 못한다며 거절하자 조사팀에게 미안해 하시는 표정을 보이시기도 했다.

제보자료 : III-나-2, III-라-2, III-마-2
 III-아, V-나-1, V-라-2
 V-마



(제보자 3)

남제주군 남원을 의귀리

오안직(女 · 79)

2차 조사때 여러 할머니들과 방안에서 듣기만 하시다가 3차 조사때 조사자의 권유로 소리를 해 주셨다. 젊었을 때에는 소리를 곧잘 했는데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 많이 할 수 없음을 아쉬워 했다.

남원을 남원리에서 출생하여 이곳 의귀리에 시집을 왔고 지금은 노쇠하고 몸이 아픈 관계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거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재요청에 응하여 “땃볼리는 소리”를 해 주셨다. 소리를 할 때에는 씨앗을 뿌리는 시늉까지 해주셨는데 목소리가 구수하고 많이 알고 있는 듯 하나 몸이 아파서 길게 하지는 못하였다.

제보자료 : III-사-2

[제보자 4]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오기식(女 · 64)



2,3차 모임에 할머니들과 어울려 오신 오기식 할머니는 굵은 목소리와 우스개 소리로 분위기를 돋구셨다.

남제주군 성산읍 신흥리에서 태어나 의귀리에 시집을 온 후 계속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다.

소리를 해 주시려고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 소리를 잊어버린 것을 아쉬워 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웃소리를 잘 맞춰 주시고 “방애 소리”, “그래그는 소리” 할 때에는 시늉까지 해 가며 적극성을 보이셨다.

제보자료 : III-가-1, III-나-1, III-라-2

III-사-2, V-라-1

[제보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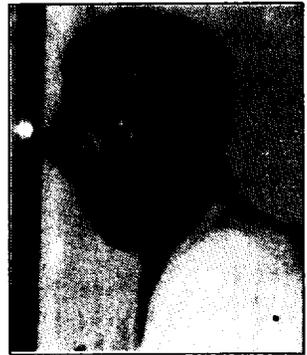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정신숙(女 · 71)



조사자팀은 제보자 댁을 찾다가 우연히 정신숙 할머니댁을 방문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모일 수 있도록 선처 해 주셨다. 1,2차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권유만 할뿐, 소리는 하지 않으셨으나, 3차 모임에서는 “자장가”, “뽕 노래”를 해 주셨다. “뽕 노래”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하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이소리 저소리에 대한 몇 마디씩 설명을 하시거나 토를 붙여 흥을 내시기도 했다. 또한 타령을 부를 때에는 조사자들을 일으키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

제보자료 : V-마, VI-가-1, VI-가-2
VI-마-2



[제보자 6]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김 흥(男·75)

이장님의 제보로 처음 찾아 뵈었을 때는 틀이를 해서 소리가 되지 않는 다며 거절을 하셨지만 우연히 제보자 집을 찾아 가다 다시 부탁을 드렸더니 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해 보자고 하시면서 소리를 해 주셨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기타 여러 이야기도 해 주셨다.

이곳 의귀리에서 출생하였으며 4·3 당시에는 잠시 한남리에서 살아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틀이를 해서인지 소리는 작았지만 많은 노래를 알고 계셨고 조사팀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3차 조사 때에는 훗소리를 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다.

제보자료 : III-다-2, III-라-3, III-마-1
III-자-1, III-바-3, III-바-5
III-자-1, III-자-2, IV-나



[제보자 7]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김계수(男 · 72)

사전 답사시 이장님 소개로 알게 되었지만 조사지에 도착 했을 때는 출타중이어서 8월 3일에야 만날 수 있었다. 많은 것을 들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랴 부랴 찾아갔지만 소리라는 것은 노동을 하면서 불러야지 이렇게 앉아서 소리가 나오겠냐는 말씀을 하시다가 옛날 얘기며 민속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 조사자들은 저녁에 다른 분들과 함께 하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권유와 약속을 받고 그날 저녁에야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노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때문에 흥겨운 분위기를 좋아 하셨고 분위기가 마련되자 소리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셨다. 또한 흥이 날때에는 어계들 들썩이며 춤을 추기도 하시고 조사자들에게도 노래와 춤을 권유하는 등 호탕한 분이셨다.

제보자료 : III-가-2, III-바-4, III-바-5
IV-가, V-나-2

[제보자 8]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김병인(男 · 62)



이장님으로부터 노래를 제일 잘하신다는 제보를 받고 찾았지만 해 본지가 오래되고 요새는 부를 기회도 없고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훗소리만 해 주시다가 마지막 날 남자 제보자들이 모였을 때는 소리를 많이 해 주셨다.

소리를 할 때에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시고 손뼉을 치시며 박자를 맞추시곤 하셨다. 발일을 하면서 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 하며 아쉬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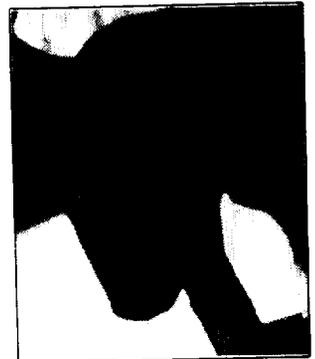
소리를 많이 알고 있으나 잊어버려서 길게 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했다.

제보자료 : III-가-1, III-다-1, III-라-1
III-마-2, III-바-1, III-바-5
III-자-2, IV-나, V-라-1

[제보자 9]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장승진(男 · 45)



제보자들을 찾다가 장승진씨가 노래를 잘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제보해 주어서 조사자들은 마지막 날 남자 분들과 홯소리라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하여 참석해 주셨다. 의귀리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과수원을 하시며 다복하게 살고계신 분이셨다. 옛날 어른들의 노래는 많이 들었지만 불러보지도 못했고 또 기회가 없어서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짝에는 장구와 북도 마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에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다. 조사내내 분위기를 이끌어주셨고, 중간중간에 애기와 흥을 돋구어 주시는 등 조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다.

제보자료 : V-다, V바

II. 노 동 요

가- 1. 검질매는 소리

- | | |
|-----------------------|---------------------------|
| A. 검질깃곡 | 끌너른밭디 ¹⁾ |
| B. 아하아양 | 에헤 -- 에헤야 에헤-요 |
| A. 구븐세로 ²⁾ | 여의명가자 |
| B. 아하아양 | 에헤 -- 에헤야 에헤-요 |
| A. 이어차소리에 | 배올라온다 |
| B. 아하아양 | 에헤 -- 에헤야 에헤-요 [다시 혼번 협씨] |
| A. 디어차소리에 | 배넘어간다 |
| B. 아하아양 | 에헤 -- 에헤야 에헤-요 |
| A. 산천초목에 | 새송넛난다 |
| B. 아하아양 | 에헤 -- 에헤야 에헤-요 |
| A. 인간청춘은 | 다늬어진다. |

B. 아하아양

A. 앞명애야

B. 아하아양

A. 뒷명애랑

B. 아하아양

A. 인생

B. 아하아양

A. 아니놀아서

B. 아하아양

A. 짙은청춘

B. 아하아양

A. 백발보아

B. 아하아양

A. 청춘이늙어

B. 아하아양

A. 얼씨구나 좋구나

B. 아하아양

A. 한라산증허리에

B. 아하아양

A. 우리들의연애도

B. 아하아양

A. 백년연애랑

B. 아하아양

A. 이삼년현연에만

B. 아하아양

A. 우연현저달아래

에헤 -- 에헤야 에헤-요

들어나오라(아- 좋- 다)

에헤 -- 에헤야 에헤-요

나가나가라

에헤 -- 에헤야 에헤-요

일장춘몽인데

에헤 -- 에헤야 에헤-요

무엇을허료

에헤 -- 에헤야 에헤-요

소년들아

에헤 -- 에헤야 에헤-요

웃지롤마라

에헤 -- 에헤야 에헤-요

백발이란다

에헤 -- 에헤야 에헤-요

지화자좋다

에헤 -- 에헤야 에헤-요

비올동말동

에헤 -- 에헤야 에헤-요

떨동말동

에헤 -- 에헤야 에헤-요

못할망정

에헤 -- 에헤야 에헤-요

해여롤보자

에헤 -- 에헤야 에헤-요

창밖에비초니

구연상황

옛날 소리들은 대부분 노동요인데, 노동을 할 때 그 피로를 덜고자 흥겹게 불렀던 노래들이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부를 때 그 생동감이 있다 할 것이다. 김계수 할아버지도 이 소리를 하려면 실제로 일을 하면서 불러야 잘 부를 수 있다고 거절을 하시다가 “검질매는 소리”를 해 주셨고 길게 하지못함을 미안해 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노래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길게 부를 수 있다고 하시고 다음을 약속 받았다.

나- 1. 구래근는 소리

A. 이여-이여-이여동 허라

B. 이여-이여동 허라

(꿇 김)

A. 이여말도 말아랑 해영

B. 이여-이여-이여동-허라

A. 이여-말도-말아라-허영

B. 설룬어-명-어-날 무사

(마주 앉앙 훨 땀은 소리로 해사주 하고 다른 사람이 토를 달자 잠깐 머뭇거림)

A. 말앙 가만-눔이나 웃나

B. 이여-이여-이여동 허라

A. 대로 한질에 놀애로 가라

B. 이여-이여-이여동 허라(난 잘 모르쿠다)

A. 놀애 노는 애개네 보라

B.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A. 일곱에 놀았던 놀애

B. 이여동 허라 니녀동 허라

A. 이여이여 이여 이여 - 이여 - 이여동 허라

B. 이여동 허라 이여동 허라 (잊어부린 난 못 허쿠다)

(제보자 : A. 김례, B. 오기식 1991.8.1)

구연상황

김례 할머니의 주위에 앉았던 할머니들이 땃돌 돌리는 시늉을 하자 김례 할머니가 선소리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훗소리를 했다. 그러다가 오기식 할머니께 소리를 권유하자 하지 못 한다며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며 후소리를 하셨다.

나- 2. 노래는 소리

A. 이여 - 이여 - 이여동 허라

B. 이여 - 말도 - 말아라 해 - 여

A. 나소 - 리랑 - 산넘엉 가 - 라

B. 말앙 - 가민 - 이나 옷 - 나

A. 산도 - 물도 - 다 넘엉 가 - 라

B. 대로 - 한질에 - 놀래로 가 - 라

A. 간간 - 놀젠 - 논의 첩 들 - 언

B. 어텔 - 간간 놀아 내 - 영

A. 이여 - 이여 이여동 허라

B. 논의 - 첩광 이여동 허 - 라

A. 이여 - 말도 말아랑 가 - 라

B. 소린 - 나곡 살을 매었나

(제보자 : A. 송복순, B. 김례 1991.8.2)

다- 1. 따비질 소리

- A. 어 - 돌이여 덜러마 허고
B. 어 - 호 산이로구나
A. 아 자던애기 일어나 나뉯
B. 드린 놈이 감태만씩³⁾
A. 아 - 자던 애기 일어나뉯
B. 구운 감자 아사떡덧(모두 웃음)
A. 아 - 우글우글 일어나라
B. 익은 보말 열덜이덧
A. 아 - 돌이여 덜러마 허고
B. 아 여기여차 소리에 배 올라 온다
A. 아 - 허 돌이여 덜러미 허고
B. 아 여기여차 소리에 배 올라온다.
A. 아 오닐 오닐 오닐이여
B. 아 덜러마 돌아 덜라마라
A. 아 널 장선 오닐이여
B. 아 어기여차 들럽허고

(제보자 : A. 김례, B. 김병인 1991.8.1)

구연상황

김병인 할아버지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소리를 해 주셨고 특히 소리를 높여서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큰소리로 웃기도 하셨고 “잘 한다 잘 한다”하며 격려도 해 주셨다. 소리를 마친 후에는 김례 할머니께서 따비질하는 모습을 재현해 주셨고 여러 할머니들께서도 요즘은 사라진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몇몇 분들은 옛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다- 2. 따비질 소리

어기여차 떠림하고

어기여차 떠림하고

어--떨림

어--떨림

어--떨림

요놈의 것도 부서져 보라(으싸)

어--덜-림

요것도 돌이나 허

(계보자 : 김홍 1991.8.2)

구연상황

노래를 알고 있었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구연 중에 자꾸 끊기고 소리도 길게는 하시지 못하였다. 그리고 조사자의 질문에 “겐노질⁴ 허나 곰베질 허나 이거 밖에 더 허는냐”하시며 흑병에 두드리는 모습을 하여 모두 웃기도 했다. 또 겐노질과 곰베질⁵이 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겐노질은 들깨는 소리를 곰베질은 새왓(새 혹은 띠 발)을 간 후 흙을 잘게 부수는 일이라고 설명 해 주셨다.

라- 1. 마당질 소리

A. 아야-흥

B. 어야도 하야

어이-흥

아-어야도 해야

아이-흥

어야도 흥아

이여-흥

에야도 하야

아이여 흥-

에야도 해야

어-호-	어야도 흥아
어-흥-	아해야 하야
어-흥아	아해야 하야
에야 흥	아해야 하야
어-흥아	어기야 하야
어-흥	어기야 흥
어야 허야	아 어야도 흥
아 허 흥아	에야 해야
아 흥어	아어야 하야
아 에이흥	아 하야흥
어야 흥아	어야 흥
어이 흥	어기야도 흥
어어야 하야	어야도 하야
어야도 하야	요게 지붕(어야도 하라)
요 흥	아닐러나
에이 흥아	때리고 때리자
어야도 허야	모다 들라
요 가달 들 짝	어야 허야
요 가달 들 짝	어야 허야
에이 흥아	해야 허야(흥아-)
에이 흥-	어야도 흥
어이 흥아	어야도 흥아
어이 흥	어야도 해야
아이며 허야	어야 허야
아어야 허야	어야 허야
아 어이 흥아	어이 흥

어이 흥	어야 흥아
어이흥-	여야 흥아
아 요것도 동산	요것도 동산
아 요 동산을	모다 들라
모다들자	어야 허야
아어야도 허야	어야 허야
아어야 허야	어야 허야
아 어이 흥	아 어이 흥
어이 흥	어야 흥
아어야 흥아	어야 흥
아어야 흥아	어야 흥
아 어이 흥	아어야
아 요것도 동산	아야도 하야(여기도 때리자)
아어야 허야	어야 하야
아어야 허야	아야 하야
아어야 흥아	어야 흥

(제보자 : A. 김병인, B. 김례, 강을열 1991.8.1)

구연상황

김병인, 강을열씨가 도리깨치는 동작을 같이하며 소리를 하였고 김례 할머니도 흥을 돋구며 훗소리를 하셨다.

라- 2. 마당질 소리

A. 어야- 흥

B. 어야- 흥

어야도 하야	어야도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동 하야	어야동 하야
요게 생곡	요게 생곡
아닐러나	아닐러나
모다들손	모다들손
어야도 하야	어야도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아	어야 흥아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요게 동산	요게 동산
아닐러나	아닐러나
모다 들손	모다 들손
때려 보자	때려 보자
맞알 보라	맞알 보라
어야 흥	어야 흥
에야 흥	에야 흥
어아-흥	어아-흥
아야 하야	아야 하야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흥아	어야 흥아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
어야동 흥	어야동 흥
어야하야	어야하야
날도 좋다	날도 좋다
오늘이야	오늘이야
때려보자	때려보자
모다들손	모다들손
어야 하야	어야 하야
어야 흥	어야 흥
어야 흥아	어야 흥아
어야 흥	어야 흥

(제보자 : A. 김례, B. 송복순, 오기식 외 1991.8.2)

라- 3. 마당질 소리

어기야 어허 어아 덜
 요것도 후리라 저것도 후리라
 예야 흥 어기야 흥 이야 흥 어기야 흥

어야도 하여 어야 하여
요거 후리라 저것도 후리라
어야도 허야 어기야 허야

(제보자 : 김홍 1991.8.2)

구연상황

“나가햄시몬 저쪽에서도 허꼭 들이가 허는 거여” 하시며 소리를 계속 하셨지만
길게는 하지 못하셨다며 아쉬워했다.

마- 1. 무쉬모는 소리

어려렐려 덜덜 어허덜덜
요눔이것들 걸라 허야
어려렐려 덜덜 (푹김)
요쇠 저쇠 걸라보게
출왓을 보난 멀직허고 낭 걸라보게
어기야 덜덜 걸라보게
어려려려 들들 허야
요것덜 요덜걸라 (질 잃지말앙)
잘도 간다 허야(다시 푹김)
요올래 저올래 돌지말앙 걸라보게
어려려려 허야
요 올래로 걸라 저 올래로 가지말앙
요것도 우리 올래여 담허몰디 말앙 허어

(제보자 : 김홍 1991.8.2)

구연상황

구연중에 소리가 자주 끊겼으며 노래를 부를 당시에 대해서 조사자에게 부연 설명을 하고 소리를 다시 하셨다.

마- 2. 무쉬모는 소리

이러----어---어으 이러---어으---이러---어--어으---어아
이러 이러 이러----어으

(제보자 : 김병인 1991.8.3)

구연상황

“나 소린 조라왕 원 밤에 질레로 몰앙 나서민 누구허는 소리여 허명 다 알주” 하시며 소모는 소리는 특별하지 않고 “허어 허어” 그 소리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 하셨다.

바- 1. 밧뽀리는 소리

- A. 어러 - 어러 - 어림 - 어러 -
어려 덜덜 -- 덜덜 - 어러러러러 -
- B. 이러 - 이러 -- 어려 덜덜 --
일 덜덜 --, --- (아이고 넘어가지 안햐찌)
- A. 이러 - 이러 - 이러 -- 러 ---
어러 -- 덜덜 -- 덜덜 러러러러러 -
- B. 이러 - 이러 어러 -- 덜덜
헤 -- 헤 - 헤 -- 허어이 -- 허이 덜덜 (잘 햐신게)
- A. 어러 - 러 -- 러러 -

어러러--러 어러-어러 덜덜-라

B. 이러-이라---

오호-이허-덜덜

A. 어러러--어러러--러-

어러 덜 라-

B. 덜덜덜---어러-어러-

이러-이러-아 덜덜-

(제보자 : A. 김래, B. 김병인 1991.8.1)

구연상황

김병인 할아버지가 잘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자 주위에서 같이 해 보자고 권유를 했고 김래 할머니의 뒤를 이어 소리를 하셨다. 첫소리를 하시고,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그만 두려 했으나 김래 할머니가 계속 하시자 따라 계속 하였고 조사자들과 그외의 사람들은 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중한 모습들이었다.

바- 2. 밧불리는 소리

어러---어--어허--어---러----

요물들아 현저 현저 걸라 어둑엄져 요래 곡 저래 곡

어허--어--어허이--러러--아라 어허어허 어허허

한라산 중허리에 안개가 끼어가난 비가 올 듯허다

어허--어러러 어허---러러러러 어라

어허어허어 려려 어러 둘둘--허라

(제보자 : 송복순 1991.8.2)

구연상황

여러 소리를 해서 어느 정도 흥이 나서 조사자들이 밧불리는 소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자 그 소리는 별다른 것이 없다며 한 곡조 불러 주셨다. 부르고 나서 밧불리는 작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조사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다.

바- 3. 밧불리는 소리

어러 어러 덜덜덜 덜덜

요무쉬곤는 말도 들으라 요레저레 가질마라

허려 려려려 - 허려 - 려려려 -

요사름들아 무쉬 잘 몰라보게 울로 막으라 질로 막으라

오로로로로로로 ---- 어러 돌돌 돌돌 돌돌 호라

오로오호 려려려 어러 돌돌 돌돌 호 - 허라

(제보자 : 김홍 1991.8.2)

구연상황

조사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못하는 소리지만 몇마디 불러 주시겠다며 소리를 해 주셨다. 조사자들은 별로 듣지 못한 소리여서 열심히 경청을 했다.

바- 4. 밧불리는 소리

어허 덜덜덜 ___ 어허 돌돌

어헤이야 ___ 오료료료 어러 돌돌 ___ 아 돌 돌

요 생이들아 어서 걸라보게 해는 흘러 서산 다 저물어 가는 디 어평허난 보실보실
아니 걸엄시니

어 ____료료료 어허려 ____돌돌
 어 돌돌 ____료료료 ____ 돌돌돌 ____
 어 ____ ____료료 ____어 ____ 돌돌

(제보자 : 김계수 1991.8.3)

바- 5. 밧뵀리는 소리

A. 어러어려 오이 어러 뎡뎡 어허 ____ 허이 어덜러러 ____ 허이 이라
 이러이러 ____ 러러러 ____ 어러어려 러야 ____ (잘 돌아감째)

B. 어러어려 뎡뎡 뎡뎡 뎡 ____
 요무쉬야 걸라보게 곤는 말이나 들으라 어 ____ 어러 돌돌 ____ 허니

A. 이러 뎡뎡 ____ 어으어 ____ 어이 ____ 허아
 어러려 ____ 허이 ____ 어러려렷 ____ 어 호아 ____ 어이 ____ 어라
 이러 어으어으 ____ 허허허 ____ 허 ____ 어라

C. 돌돌돌 ____ 오료료료 ____ 어 ____ 어이 ____ 야
 이 에이 ____ 이 ____ 료료료 돌돌돌 ____ 오료료료 돌돌돌 ____
 이 ____ (늘랑 먹으라)

A. 료료료 ____ 오으 오호허 ____ 아
 어러어려 ____ 허이 ____ 허이 ____ 아
 어러 ____ 어러 ____ 허허허허 ____

C. 돌돌돌 ____ 료료료료 돌돌돌돌 ____ 이 ____ 료료료료 ____ 돌돌

B. 어러려 돌돌 ____ 어허이 ____ 허어
 어허 돌돌 돌돌 ____ 어러 어러 ____ 돌돌 돌
 이러 ____ 호료 돌돌 ____ 돌돌

(제보자 : A. 김병인, B. 김홍, C. 김계수 1991.8.3)

구연상황

목청을 가다듬으신 김병인 할아버지가 첫소리를 하자 다른 두 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소리를 하셨다. 손은 무릎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다음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는 표정이었다. 그의 사람들과 조사자들은 숨을 죽이며 경청하고 어떤 조사자는 손놀림만 자연스럽게 구연자와 일치하는 동작을 하기도 했다.

사- 1. 방애 소리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말도	말아랑 해영
가쉬오름	강당장침에
세쿨방애 ⁶⁾	새글럼서라
다섯쿨방애 ⁷⁾	새글럼서라
음 음	
가쉬오름	강당장침에
세쿨방애	새글럼서라

(제보자 : 김례 1991.8.1)

구연상황

마루바닥을 치면서 그 박자에 맞추어서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방애 짚는 시늉을 하였다.

사- 2. 방애 소리

A. 이여 이여	이여동 허라	B.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말도	말아라 해여	이여말도	말아라 해여

이여이여	이여동허라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가식오름에	강당장침에	가식오름	강당장 침에
세쿨방에	새글림 서라	세쿨방에	새글러서라
우리 성제	삼제가난	우리성제	삼제가난
다숫 쿨도	새글림서라	다숫쿨도	새글림서라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이여	이여동허라
이여말도	마라랑 가라	이여말도	말아랑 가라
이여이여	이여동허라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소리	말도말아랑	이여소리	말도말아랑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읊음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읊음

(제보자 : A. 이순생, B. 김혜, 오기식, 오안직 1991.8.2)

구연상황

이순생, 오안직, 송복순씨 세 분이 방에 쫓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분위기에 맞추어서 신명나게 소리들을 하셨다. 오기식씨는 마루를 쿵쿵 치시며 적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 1. 시집살이 소리

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이여말도	말도나마라
장푹곤은	시아방에
암푹곤은	시어멍에
물구력곤은	시아방에 (시아방이 아니라 서방이 주계)

(제보자 : 송복순 1991.8.2)

구연상황

소리를 하시던 도중에 사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할 때 다른 분이 토를
다는 바람에 노래가 끊겼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셨다.

사- 1. 틱질하는 소리

요름 저름 잘도먹자

으허 ___ 덜렁허로

어 ___ 허 덜덜 덜렁허고

흔소리에 흔치반씩

두소리에 세치반씩

(제보자 : 김홍 1991.8.2)

사- 2. 틱질하는 소리

A. 어기두리 드림허야

아 요산중에 놀던남근

아 틱질 쇠뿔으새

아 산방은 요네 뱅기⁸⁾

아 슬금슬금 잘도간다

아 남근나니 놀던배야

아 천추만년 놀던남근

아 오늘날은 몸울 갈라

아 요들이 산이로구나

아 어기두리 들림허야

B. 아허 들람하고

아 요것도 남이로구나 남이로구나

요 립 저 립 잘도 간다

한 소리에 제담흔사

아 두소리에 틱술 한술

아 잘도 간다 잘도간다

아 요산중에 놀던 나무

소리에 틱술한술

아 여기여차 들림허고

아 어기여차 산아로구나

(제보자 : A. 김병인, B. 김홍 1991.8.3)

구연상황

소리가 짧다고 이야기 하시며 역시 일을 하면서 힘들어야 절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다.

IV. 의 식 요

가- 1. 달구질 소리

A. 어허 달구	B. 어허 - 달구
인생한번 죽어지면	어허 - 달구
만수장비 업노로구나	어허 - 달구
산천초목 젊어가는데	어허 - 달구
인간청춘 늙어간다	어허 - 달구
허 -- 달구	허 -- 달구
인생 일장 - 춘몽인데	아니놀아 못하리라
어허 - 달구	어허 - 달구
요소리듣고 제키라도	어허 - 달구
어허 - 달구(엇차)	어허 - 달구
이다 디야 소리에 다가	이야 디야 드림하야
어허 - 달구	어허 - 달구

(제보자 : A. 김계수, B. 김병인 1991.8.3)

구연상황

지금은 모두 사라져 어릴 적에 본적은 있지만은 직접 해 보지않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기억을 되살렸다. 특히 김계수 할아버지는 몸동작을 크게 하시며 소리를 해주셨다.

나. 상여 소리

A.허으허 ___ 허으 ___ 허으 ___ 이 ___ 허이 ___ 이 ___ 이 ___
오 ___ 호이

B.어으 ___ 어 ___ 어어 ___ 호이

A.허으 어으 ___ 허이 ___ 허 ___ 이 ___ 어으 ___
허으 ___ 허이 ___ 이 ___ 허으 ___ 호이

B.어 ___ 어으 ___ 으 ___ 어 ___ 호이

A.허으 ___ 허 ___ 으 ___ 허이 ___ 이 ___ 허으 ___
허으이 ___ 허이 ___ 허 ___ 호이

(제보자 : A. 김병인, B. 김홍 1991.8.3)

구연상황

육지소리와 비교하면서 가락은 명랑하고 가사를 지닌 것이 육지 소리라면 제 주도의 상여소리는 조심스럽고 장엄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 소리를 할 때에는 엄숙한 모습이었다.

V. 타 령 류

가. 너영나영

년영 난영 두리둥실 나영 낮이낮이나 밤이 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샌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샌 님그리워 운다
년영 난영 둘이둥실 난영 낮이낮이나 밤에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늣닥재 스끼야끼만 좋구요 사람은 늣으면 공동묘지만 좋구나
년영 난영 두리둥실 나영 낮이낮이나 밤에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가면은 가고요 말면은 말지요 초신을 신고야 시집을 가나
 년영 안영 두리동실 나영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제보자 : 김혜 1991.8.2)

나- 1. 양산도

A. 에에 에하-----

B. 저 몸 죽어도
 목동이 모진나야
 아서라 말어라
 사람의 팔세를

화초가 되고
 살고 내고 저리로구나
 네년이 그리물 말아라
 그리물 말아라

A. 에에 에하-----

B. 바람에 불리는
 믿을 수 없는 건
 이리 놀려라
 아니도 못노리라
 그리나 말아라

갈대와 같이
 남자의 마음
 저리 놀려라
 사람의 팔세를

A. 에에 에하-----

B. 너정나정
 살살 쓸어서
 툭탁 던져 놓고
 없는 거 있는 거
 잘이 살아라
 네년이 그리 말아라

모지락 미치락으로
 한강수 바당에
 어시 살아보자
 말도 말아라

A. 에에 에하-----

A. 에에 에하-----

그리나 말아라

B. 네년이 잘나서

말도 말아라

사람의 팔세를

A. 애애 애하-----

B. 들그락 절그락

혼자면 잠을 다자서

잘이 살아라

네가 그리나 말아라

그리나 말아라

A. 애애 애하-----

B. 오르며 내리며

물쯤은 밥에다

잘이 살아라

네년이 그리로 말아라

그리나 말아라

간다네 간다네

간다네 간다네

오들돌 거리고

애화라 놓아라

중재를 내려도

간다네 간다네

일색이더나

네가 그리로 말아라

그리로 말아라

행주차는 소리

긴 밤도 다 지난 간다

말도 말아라

사람의 팔세를

단재금⁹⁾ 속에

목멱혀 가니

말도 말아라

사람이 팔세를

애들아 간 - 다

애들아 간 - 다

내가 돌아를 간다

아니 못노리라

못노리오

애들아 간 - 다

(제보자 : 김례, 송복순 1991.8.2)

나- 2. 양산도

애헤이요 노세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허사로구나

아 - 말아라 네 그리말아라 정한에 세월이 늙어간다

에헤이요 쓸쓸한 저 세상 홀로난 사람은 어느 님을 믿어서 한 백년 살까
내어라 놓아라 꺾김은 누리로 건너

(제보자 : 김계수 1991. 8. 3)

다. 서우젯 소리

- B. 아-양 어허양 어양 어양 어허요
A. 불쌍하고 가련하다 요네 심정을 견어갑써
B. 아-양 어허양 어양 어양 어허요
A. 마음이 누른 여자몸에 이런 신병을 왜 들었나
B. 아-양 어허양 어양 어양 어허요
A. 가고프다 가고프다 저산 멀리고 쫓겨내자
B. 아-양 어허양 어양 어양 어허요
A. 놀아 놀아 젊어 청춘에 늙어지면 못노니라
B. 아-양 어허양 어양 어양 어허요
A. 우리야 인생 한번 젊어 청춘에 놀앙 갑서
B. 아-양 어허양 어양 어양 어허요
A. 놀고 간 남아 놀고 간 남아 어서 놀고 저산 넘어라
B. 아-양 어허양 어양 어양 어허요

(제보자 : 장승진 1991. 8. 3)

라- 1. 오돌또기

- A. 등그데 당실 등그데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B. 등그데 당실 등그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B. 둥그데 당실 둥그데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A. 갈때 올때 정들여 놓고

춘향이 집으로 밤놀이 갈까나

B. 둥그데 당실 둥그데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A. 박연폭포 흘러 내리는 물이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B. 둥그데 당실 둥그데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A. 간다 간다 내가내가 돌아를 간다

(청취 불능) 버리고 돌아를 간다

B. 둥그데 당실 둥그데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A. 가며는 가고요 말면 말지

초신을 신고서 시집을 멀리(청취 불능)

B. 둥그데 당실 둥그데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A. 한라산 중허리에 구름이 두둥실 만실

서귀포 바닷가에 해녀가 든송 만송

B. 둥그데 당실 둥그데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제보자 : A. 김례, B. 김병인, 오기식, 강울열 1991.8.1)

라- 2. 오돌또기

- A. (칭취 불능) 시름이 드는 승 만승
서귀포 해녀들 바다에 든승 만승
- B. 둥그레 당실 둥그데 당실 너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 A. 간다 간다 내가 돌아를 간다
오돌또기 버리고 내가 돌아를 간다
- B. 둥그레 당실 둥그데 당실 너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 A. 가면은 가고 말면은 말지
네 따위 수작에 그리워 웬 수작이야
- B. 둥그레 당실 둥그데 당실 너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 A. 사지모로 갈까나 내 고장 남원으로 갈까나
내 님을 데리고 수풀 속으로 갈까나
- B. 둥그레 당실 둥그데 당실 너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재보자 : A. 김례, B. 송복순 1991.8.2)

구연상황

오기식 할머니는 일어 나서서 춤을 추셨고 김선녀 할머니는 물통으로 장구삼아 박자를 맞추는 등 흥겨운 분위기였고 후렴구는 재보자뿐만 아니라 조사자들도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같이 했다.

마. 제주도 아리랑

A.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 우리들의 고개는 단들의 고개

B.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A. 청청한 하늘엔 잔별도 많고요

요 내야 살림살이 말썽도 많다

B.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A. 날테려 가거라 날테려 가거라

돈 좋고 멋진놈 날 데려가거라

B.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A. 세월이 가기는 구름결 같고요

이내 몸 늙기는 어느때 간다

B.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A. 비행기 났으면 세계 유람을 할건디

(아이고 고치 못허키여)

(제보자 : A. 김례, 송복순 B. 오기식, 정신숙 외)

구연상황

나이가 지그시 든 분들이셨지만 연애애기가 나오자 모두들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한마디씩 하셨고 가사에서 돈많고 멋진 놈이란 말때문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바. 창부타령

이 아나는 못하리라 글디 쓰지는 못하리라

(청취불능)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옥황상가로 집을 지어
양친부모 모셔 놓고 천년 만년 살아보자

(제보자 : 장승진 1991.8.3)

사. 청 춘 가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내 가슴에 수심도 많구나
우연히 든 정에 골속에 박혀서 내 가슴 더 설란하누나
우연히 싫더냐 누구 말을 들었나 날만 보면은 고개를 치느냐
네년이 잘라서 일색이더냐 내 눈이 어두워 환장이던가

(제보자 : 김래 1991.8.2)

구연상황

흥에 겨워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더니 정신숙 할머니가 일어나서서 춤을 추시자 몇분의 할머니도 덩달아 춤을 추셨다.

VI. 동요

1. 전승 동요

가- 1. 꿩 노래

꿩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쏘
이리저리	돌다보니
어염어염	돌단보니
콩두방울이	있어서
이걸	먹을까 말까
조치이 ¹⁰⁾	꿩이
아이고	낭군님아
그걸 먹지	마십써 허여도
아니라	내가 먹나
퍽닥허게	먹어보니
가죽같이	쓴놈이
퍽닥 몽둥이	둘러메연 오란
허영헌 서른여덟	이빠디가
해들씩하게 웃으멍	둘레메 간다
주름에 가보니	우리낭군 복도 좋다
복복	들언 이젠
목욕을 시켜간다	또 잡아간다
백모살 ¹¹⁾ 로	끓여간다
높은 상에	올런 이제

절 삼배
우리남편

말아간다
복도 좋다

(제보자 : 정신숙 1991.8.1)

가- 2. 꿩 노래

삼년먹은	콩그루에
오년먹은	조크루에
어염어염	들암시니
콩두방울이	이서서
이걸먹을가	말까
조치아주머니가	거 먹지맙써
남군남아	남군남아
간밤 꿈자리가	어지럽더니 먹지 맙소서
아니라고	털썩 주워
두어방울	먹었더니
가족감태	쓴영감이
몽둥이	둘러쥐고
해영헌 이발이	서른여덟 이바디가
해들씩 웃으면서	아이고 지었구나
턱히고 둘러멘	가거니만은
묵은 옷을	벧겨나다
뜻뜻하게	담블로 채와 간다
높은 상에 올린	절 삼배도 말아간다
우리남군	복도좋다
절삼배도	말아간다

(제보자 : 정신숙 1991.8.2)

나. 다리 포개어 놀 때 부르는 노래

다리다리 인다리 개천 내천
원이 서설 구월 나월
행장 밧디 버디 나니
얇은 고이 주등에 척

(재보자 : 김래 199.8. 2)

구연상황

어릴 적에 놀았던 놀이 가운데, 노래를 하면서 부른 것을 부탁하자 주위에 계시던 몇몇 할머니께서 다리를 포개어 하던 놀이를 같이하시자고 하면서 직접 놀이를 하셨다. 다른 분들도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듯 무척 행복한 듯이 보였다. 그리고 결국에 술래로 남은 분은 김래할머니였다.

다. 말 이어 가는 놀이

이산에 꼬박꼬박	저산에 꼬박꼬박 허는 건 뭐꼬
미우쟁 ¹²⁾ 이여	미우쟁이 흰다
흰건 할애비여	할애빈 등굽나
등굽은건 쇠질매 ¹³⁾ 여	쇠질맨 네 고망난다
네고망난건 시튀여	시튀는 검나
검은건 가마귀여	가마귀 놓든다
놓드는 건 신방이여	신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는 건 철쟁이여	철쟁인 접진다
접진건 갱이여	갱인 붉나
붉은건 옛이여	옛은 불온다

붙으는 건 씨앗이여

씨앗은 틈다

튼는 건 뚝이여

뚝은 고기옥현다

(제보자 : 김례 1991.8.2)

구연상황

여러가지로 제주도 사람임에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할머니께 자주 여쭙어보게 되었고 가사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할머니와 조사자들이 한바탕 웃었다.

라. 머리 깎은 아이 놀리는 노래

중블래기

곧블래기

모진녀의

X대가리

(제보자 : 김례 1991.8.2)

마- 1. 자 장 가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애기

재와주라

느네애기

재와주마

어진이도

자랑아

순둥이도

자랑아

우리집에

귀염동아

우리집에

화목동아

잘자라

어서자라

동네방네

귀염동아

우리나라	충성동아
자라자라	어서자라
우리애기	자는소리
눔이애기	우는소리
어서자라	어서자라
우리애긴	잘도잔다

(제보자 : 김례 1991.8.1)

마- 2. 자 장 가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애기	재와주라
느네애기	재와주마
어진이도	자랑아
순동이도	자랑아
우리애기	자는것도좁이로구나
노는것도	좁이로구나
웁이자랑	웁이자랑
어서자랑	어서자랑
우리집에	은을 주면 너를 바꾸라
금을 주면	너를 바꾸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어서자랑	어서자랑
저레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재와주라

느네애기	재와주마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는것도	좁이로구나
노는것도	놀이로다
웁이자랑	웁이자랑
어서자랑	어서자랑
우리집의	화목동아 어서자랑
일가방상	화목동아 어서자랑
우리나라	충신동아
어서자랑	웁이자랑
간이떡젓동이	어서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어서자랑	어서자랑
훈져자불라	보리쌀골앙
날붙근올때	저녁허마
우리애기	눈곰앙 현져자불라

“아구 착한 애기 현져 눈곰아아 자불라 저녁 현져허마”

(제보자 : 정신숙 1991.8.2)

구연상황

애기제울 때 소리를 부탁하자 거기에 제시던 할머니들은 구덕을 흥글며 해야 소리가 나온다고 하셨다. 그러다가 벽에 걸린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애기 구덕인양 하고서는 차례차례로 하시느거였다. 정신숙 할머니가 길게 사설을 하고 나중에 애기에게 하는 소리를 하자 조사자와 제보자들은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2. 놀이요

가- 1.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장난감 기차가 징징 떠나간다
과자와 설탕을 싣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아기한테
갖다주러 갑니다

가- 2.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인절미 아가씨가 시집을 갈 때
호박같은 남자를 옆에 끼고서
간다 간다 어디로 가나
트라이앵글 속으로

나- 1. 말잇기 노래

: 할아버지 놀이기구
할아버지 놀이기구 담뱃대
대대대나무 무무무궁화 화화화덕불 불불불조심 심심심청이 이이이승만 만만만만
세 세세세나라 라라라디오 오오오랑캐 캐캐캐나다 다다다했다

나- 2. 말잇기 노래

: 어회요
원숭이영덩이는 빨개 빨간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건 하늘

나- 3. 말잇기 노래

； 숫자놀이

- | | |
|-------------|--------------|
| 1 일본놈에게 잡혀가 | 2 이뿐이를 데려가 |
| 3 삼팔선을 넘어 | 4 사람을 이겨 |
| 5 오리발을 내밀어 | 6 육이오를 일으켜 |
| 7 칠득이와 싸워 | 8 팔다리가 부러져 |
| 9 구급차에 실려가 | 10 십자가에 못박혔다 |

- | | |
|----------------|---------------|
| 2 이이 이세상에 태어나 | 3 삼삼 삼팔선을 넘어서 |
| 4 사사 사람들을 죽이고 | 5 오오 오락실을 부수고 |
| 6 육육 육개장을 먹다가 | 7 칠칠 칠득이와 놀다가 |
| 8 팔팔 팔다리가 부서져 | 9 구구 구급차에 실려가 |
| 10 십십 십초만에 꿰꼬닥 | |

나- 4. 말잇기 노래

； 요일 풀이

- 월요일엔 월급타고
화요일엔 화장하고
수요일엔 수박먹고
목요일엔 목욕하고
금요일엔 금반지 끼고
토요일엔 토끼사냥
일요일엔 일기쓰기

다. 머리 깎은 아이 놀리는 노래

길만아 놀 - 게 대머리 깎아라
이왕이면 팍팍 깎아라
부처님이 깎아주신대

라. 손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도 감자
감자감자 감자 하나 둘 감
감자 감자 감자 쟁겹 씨

쨈먹고 쨈먹고 쨈쨈 먹고먹고
나먹고 너먹고 요리뛰고 저리뛰고
오무라이 쨈쨈 오무라이 쨈쨈
시냇가에 가봤더니 개미 한마리

마. 잠자리 잡을 때 부르는 노래

잠자리 뽕뽕
뽕자리 뽕뽕
이리와라 뽕뽕
저리와라 뽕뽕
잠자리 뽕뽕
뽕자리 뽕뽕
이리오면 살고
저리가면 죽는다

바- 1.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가거라

바- 2.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문닫으세요
철컹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바- 3.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 바퀴
앞에는 운전사 뒤에는 손님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여기는 서울역 어서 내려요

바- 4.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

어머니	무사
학교	가게
선생님	무사
몇점	빵점
어머니	무사
몇점	빵점
공부허라	
선생님	무사
몇점	백점
어머니	무사
몇점	백점
나가 놀아라	

(제보자 : 김효진 외 3명 1991.8.3)

3. 개사곡

가. “님과 함께” 개사곡

저 푸른 수박밭에 주인 없나 살펴보고
 있으며는 삼십육계 없으며는 하나 슬쩍
 만약에 들키며는 이빨 두개 출장가고
 아글타이 왔다갔다 번개불이 번쩍번쩍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코에선 코피가 흘러내리네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나만 때려요
 눈탱이가 시퍼렇게 부었잖아요

나. “그대여” 개사곡

거지가 비비고 일어나 깡통과 숟가락을 들고서 마을로 내려 간다네
밥좀줘 밥좀줘 밥좀 주세요 깡통이 비었잖아요
밥좀줘 밥좀줘 밥좀 주세요 그리고 반찬하고요
반찬은 닭고기가 최고야 닭고기 없으면 불고기
불고기 없으면 안먹어 다음부터 안 올거야

다. “서울찬가” 개사곡

종이 울리네 12시 종이 도둑놈이 날뛰는 시간
담장 넘다가 다망에 걸려 땅 위로 추락 했다네
또 개한테 몰려 찢기고 주인한테 몽둥이 찜질

라. “시골영감” 개사곡

똥을 싸고 나와보니 기차는 빵빵	방구끼고 달려가니 시원하구나
앞에 앉은 여자가 방구를 끼니	뒤에 앉은 남자가 하시는 말씀
이게 20년대 핵폭탄이다	이게 바로 40년대 핵폭탄이다

마. “옛날옛적에” 개사곡

옛날 옛날 옛적에 고냉이 한마리 옛먹었죠
백두산에 흰고냉이 한마리 옛먹었죠
(도사님 이게 무슨 고냉이에요. 어, 이거 볶아먹고 튀겨먹는 고냉이야)
우리 모두 모여서 고냉이 튀김이나 해 먹을 때

아이들이 모여라 모두같이 먹자

고냉이 한마리 엮먹었죠

(제보자 : 최창 의 6명 199.8.3)

VII. 정 리 및 평 가

물질문명이 발달로 인한 우리의 고유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은 마을 의귀리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 마을은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서귀포시와 인접해 있어서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뿐더러,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도 도시화하는 변화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민요 조사반은 조사의 필요성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현장론적 조사 방법에 따라 다각적인 조사를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이 개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이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민요 조사반은 토론을 통한 평가의 기회를 마련하여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평가의 장에서 크게 문제시 된 것들을 요약정리 하고자 한다.

첫째, 제보자 선정에 있어서의 지역적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4·3 사건 당시 피해를 받은 지역중에 하나다. 그 당시 격전지였던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합장묘”가 있는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당시에 죽음을 당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민요를 전승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므로 남자 제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7,80세 가량의 사람들이 불과 몇분(남자) 밖에 없고 60여세의 남자 분들은 소리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의 잊혀졌다고 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일찍부터 과수원을 하기 시작했고 소리를 하면서 하던 농사일이 기계화가 되서 여럿이 모여서 소리를 할 기회보다는 대개 개인의 일로 바뀌면서 소리는 차츰 사라져가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서귀포시와 인접해 있어서 이 마을은 농촌이면서도 도시화 되어 있었다. 결국 이 마을의 노래를 전승할 수 있는 지역적 한계는 여러가지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전승되어 오던 소리가 구연될 때는 표준어로 구연된다는 것이다. 조사반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노래들이, 조사과정에서 제주도 방언 그대로 사용된 사실로 구연되기 보다는 현대적 감각에 맞게 노랫말이 바뀌었고 그 가락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민요가 시간에 따라서 사회상황을 반영하며 변모되는 것은 당연하나 그 변모되는 과정을 체질하는 것은 민요 연구가 거쳐야 할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외귀리의 민요 조사도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표준어로 구연되는 이유들은 대중매체의 보급 TV의 보급 등에 영향만이 아니라 도시화되는 과정의 한 단면으로 보아지기도 하지만, 구연자(제보자)가 조사자들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평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조사자들이 좀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셋째, 조사자들의 문제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조사전에 철저한 학습의 필요성과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여 성의있는 태도를 가지고 조사를 임해야 했다는 점이다. 즉 조사자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요청된다. 이러한 것들은 노래를 채록하면서, 우리들의 조상 또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민요 조사반은 민요조사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그리고 각자의 충실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하여 인간적인 삶의 방법들을 "소리"로써 모아보자는 결론을 내면서 평가 및 정리를 했고 끝으로 조사를 하는 데에서 평가를 하는 시간까지 돌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지도보조 그의 제보자 여러분께 감사할 드린다.

VIII. 각 주

1. 골노른 밧뒤 : 넓은 밧에
2. 구븐쇄로 : 굽은 쇠(호미)로
3. 감태만씨 : 미역의 한종류
4. 겐노질 : 돌 깨는 일
5. 곰베질 : 새왓(새 혹은 띠밭)을 간후 흙을 잘게 부수는 일
6. 세콜방애 : 세사람이 하는 방아
7. 다섯콜 방애 : 다섯사람이 하는 방아
8. 뱅기 : 툽(기구)이름
9. 단재금 : 작은 항아리의 한가지
10. 조치이 : 압평
11. 백모살 : 소금
12. 미우쟁이 : 역새
13. 쇠질매 : 소 등에 얻는 짐신는 기구

說 話

指導教授 : 김 병 택

指導補助 : 현 승 환

班 員 : 고 병 철 (4)

박 재 성 (4)

고 선 덕 (3)

최 미 순 (2)

허 선 영 (2)

강 회 숙 (1)

目 次

1. 논하니 이야기
2. 열녀 이야기
3. 설망도할망 이야기
4. 여우한테 홀린 이야기
5. 무화관 도깨비 이야기
6. 과거보는 선비 이야기
7. 고전적(高典籍) 이야기
8. 호된 하르방 이야기

*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방문했을 때 제보자는 한여름의 낮을 조용히 보내고 계셨다. 집주위의 무성한 녹음과 한가로이 노니는 잠자리때와 더불어 어우러진 아늑함이 인상적이었고, 제보자 또한 조사자들의 이야기 요청에 호의적으로 응해주셨다.

[제보자 1]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양성수(男·78)

1. 논하니 이야기

논하니엔 현 사름은 경주덕에서 강 돌아온¹⁾ 사름이주.²⁾ 장반영감이 서울에 과거를 보러³⁾ 가신디 어느 부자집의 머물러 보니 수무원들이 아주 만해.

〈조사자: 수무원이 무슨 말이우파?〉

아 수무원은 옛날 부자집의 데령 사는 일꾼들이주.

장반영감이 “수무원이 옛 멩이우파?” 하니까, 주인이 “훈 삼십 멩 됩니다.”

“저기 저 키 크고 훌쭉훈 분이 이신디 저 분은 누구짱?”

“건 우리집의 토살⁴⁾이우다.”

“참, 든든훈⁵⁾ 장남을 데령 살압수다.⁶⁾”

“아, 먹이지 못하영 죽어지쿠다.”⁷⁾

“아, 수무원이 훈 이삼십 멩 데령 사는디 장남하나 못먹여계⁸⁾?”

“해에, 당초 맥일 수가 어성, 당신 들양강 살구젠⁹⁾ 들양갑서.”

저기서도 맥임이 어려우니까 쪼까불젠 훈거라. 해서 장반영감이 데령 오랐는디, 맥이젠 흐린 조 범벽을 헨 두그리¹⁰⁾에 퍼놔주.¹¹⁾

술가락을 가져왕 겨려 먹으렌 하니까 그 논하니가

“아이 거 술가락으로 어느제민¹²⁾ 다 먹을거니, 밥자 아사 내라.¹³⁾”

흐멍¹⁴⁾ 밥자 아상 밥자로 그자 터박터박 이삼 분 내로 후려 먹어치우는 거라.

“요놈 설사 나그네 배탈 낭 죽주.” 헤신디 그건 당초 까딱도 안하엿덴.

아, 뒷 해엔 늬을 빌영 출을 비게 되어신디, 태흥리 강 늬 훈 오십 멩 빌렌 하니까 오십 멩 다 빌었수덴.

1) 데리고 온 2) 사람이지 3) 보러 4) 일꾼 5) 든든한 6) 사십니다

7) 먹이지 못해서 죽겠습니다 8) 못먹여요? 9) 살고 싶으면 10) 도구리. 큰 그릇

11) 퍼놔지 12) 언제면 13) 꺼내라 14) 하면서

오십 멍 점심을 행 강 바레니, 뭐 출 빈 기색이 어신거라.

“아, 거 이상하다.”

강 보니 낮만 아장 구랍서.¹⁵⁾

장반영감이 “너, 이놈아, 인부 오십 멍을 빌렌 하니까 늙은 안 빌고 너 혼자만 낮만 골멍 점심 가져 오도록 비도 안 행 뭐 험시냐?”¹⁶⁾고 호통 하니까

“아무 때라도 다 비른 될 게 아니우파.”

“이 오십멍 점심은 어땜 흘거냐?”

“먹고 비어 붙은 되주.”

아, 오십 멍 점심을 다 먹진 못헤실 겁주.¹⁷⁾(웃으면서) 점심을 다 먹고 출을 기자 뱅뱅 돌아가멍 비는디 아, 가당 보난 거 밧¹⁸⁾ 가운데 소룩이만 뱅뱅 도는 거라.

“저 늙은 오십 멍 밥 먹영 뒤어졌구나.”¹⁹⁾

간²⁰⁾ 보니, 한 단 묶어그네 하늘 우트레 들러 데끼든 그거 털어지기 전에 또 한 단 무경 들어 데끼니 그 소룩이가 뜬 거 모냥²¹⁾으로 보인거라.

<조사자들 : 이구동성으로, 아아>

그 뒷 해에는 그 어른 딸²²⁾이 의귀리가 시간디,²³⁾ 와서.

장반영감이 “어땜²⁴⁾ 완디?”

“논하니 하루²⁵⁾ 빌립서.”

“무신 거 험티?”²⁶⁾

“출 빌영 비젠”

“에, 느 맥이지 못헌다. 돌아가지 말라”

하도²⁷⁾ 빌립센²⁸⁾ 허영 돌아 갖는다, 딸은 부자로 잘 살아지고 하니까 잘 대접 하므로 물침떡을 먹으렌 하니, 그 시루떡을 그자 폭폭 잡으멍²⁹⁾ 짐³⁰⁾ 팡팡 나는 걸 손으로 잡앙 몽땅 먹거든.

“출 빌영 비젠³¹⁾ 오랜³²⁾ 험디가? 밧이나 강 구르쳐 줘서.”

강 보니,

15) 같고 있어 16) 뭐하고 있냐 17) 못했겠조 18) 밧 19) 죽었구나 20) 가서
21) 모양 22) 딸 23) 시가인데 24) 어떻게 25) 하루 26) 뭐 하려고 27) 무척이나
28) 빌리라고 29) 짐으면서 30) 짐 31) 베려고 32) 오라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신 거 멧 시간 안 똥 다 빌걸.”

다 주물아³³⁾ 가니 그 출을 다 비영 무경 짚어져아정 내려오명 우녜 담³⁴⁾이른
우녜 담, 밧 담이른 밧 담, 근짜³⁵⁾ 쓸어트러 버렸주. 문 해싸³⁶⁾ 불었주.

아, 경흐니³⁷⁾ 난리가 난, 친정아방이 왕 어떻 헨³⁸⁾ 쪼까불었주.³⁹⁾ 바가지 흐나
쪼 쪼까불었덴흔 말이 이서.

2. 열녀 이야기

웃 무을에 박씨가 살았는디, 박씨가 군인으로 갔어. 옛날에도 군법이 잇어 군인
으로 갖는디 전사당헛단 말이어. 건디⁴⁰⁾ 그 부인이 이서신디 아주 고운 여자라
났주.

헌디, 그 부하에 잇던 사름이 그 상관이 죽어버리니 상관이 되었던 모냥이라.
요시⁴¹⁾ 그드민 순회돌레 그 상관이 오랐는디, 문저 상관이 살았던 무실이니깐 그
집이나 좀 보자고 해서 온거라.

그 상관이

“이거 아무거네 집입니까?” 흐니

그 전 상관부인이

“예, 맞수다. 겐디 어떻게 왔수과?”⁴²⁾

“당신 남펜하고 그치⁴³⁾ 근무도 하고 상관으로 계셨다.”

고 했는디, 그 부인이 이빠 부리니 그만 그 상관이 동거하자고 해서 그 부인
손목을 푹 잡았어. 푹 잡으니까 그 부인이

“동거하자, 동거홀테니 이 손 놓으라”

흐니, 손 놓으니, 그 부인이 방에 들어강 도끼 가져왕

“너 이놈의 자식, 우리 남펜의 부하로 잇다가 전사당흐니 나헌테 동거하자
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손목을 그차서⁴⁴⁾ 죽었어. 손목을 그찬 죽으니까 훗날 관가에서
알양 열녀비를 세왓다는 말이 잇주.

33) 저물어 34) 윗담 35) 전부 36) 해집어 37) 그렇게 하니 38) 어떻게 해서
39) 쫓아버렸지 40) 그런데 41) 요새 42)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43) 같이 44) 끊어서

[제보자 2]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오 봉 남(男·78)

- * 조사자들이 방문해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얘기해 달라고 하자 지금 보기엔 그런 이야기들이 확실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어떻게 옮겨 적을 만한 이야기는 해 줄 것이 없다고 하다가 조사자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제보자 또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3. 설망도 할망 이야기

이디선 보통 설망도, 뭐 또 설명도 할망이엔 허는디 워낙 키가 크고, 이디 제주 절도(絶島)니까 속곳을 명주로 하나 맨들아 주민 육지 허고 제주 수이에 도리를 놓아 준덴 허니 제주 사름덜이 문막 애써서 도리를 놓아 보젠, 이신 명주를 다 모양 속곳을 맨들다가 처지 고슴이 모자랑 다 맨들지 못허영 도리를 못놓았다는 말이 이서

아무리 그 때 제주가 멧 사름 안살앗지마는 그디서 난 명주를 문막 가지고도 속곳하나 못 맨들앗으니 얼마나 큰 할망이엇는지를 알 수 있주.

그리고 한라산의 흙 하나 그 할망이 삼으로 거려 놓은¹⁾ 것이 그 어간에 조금 조금 오름이엔 허주

<조사자들 : 웃는다>

4. 여우한테 흘린 이야기

옛날 어쁜 사름이 글 읽으레 다니는디 자꾸 시간이 늦어. 서당에 가는 생이라. 그래서 선생이 불러가지고는 그러자 얼굴이 아주 파라지고 없어지고 하니 선생이 물어엇어.

1) 떠 놓은

“웬일이냐?”

처음에는 늦어도 이리 거짓말 하고 저리 거짓말 했는디 하도 요라번²⁾ 하고 얼굴이 그렇게 없어져 가고 허니까 물었는디, 실태를 안 털 수 없어 얘기를 헛거라.

“도중에서 고운 여자를 만나서 자꾸 그 여자하고 회롱허며 놀다보민 시간이 없어진다.”

“어떻 하느냐?” 허니까

구실,³⁾ 그 여회주라고 해서 구실로 회롱을 하는디, 구실을 여자가 물었다 남자 주고 이렇게 하면서 회롱을 헛다는 거라.

그러나고

“그러거든 다시 꼭 그대로 털 적에 얼른 그렇게 허다가 구실을 주거든 구실을 바까주지⁴⁾ 말고 삼킴⁵⁾과 동시에 하늘 보고 따⁶⁾ 보고 사름을 보라.”

이랫단 말이야. 그랬는디 그걸 삼키고 하늘 보고 따 보는 건 잊히고 사름만 봤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저 명의(名醫)가 되어서.

하늘 보고 따 보고 사름 보라는 것은 천문지리(天文地理)를 통하고 사름에게도 다 통해서 도통허도록 이렇게 해서 선생이 말헌건디, 여회주니까게. 그 사름은 그 쯤백이 안돼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늘, 따 볼 조르⁷⁾가 없이 사름만 보려서⁸⁾ 의술에 도통해 가지고서 변작이 모양으로, 조금 의술 능허민 변작이라 허는건디, 어든 사름이 병들어서 의논허렌 가민 본인이 안가도 벌써 ‘아, 무신 병때문에 왔구나’ 허는 것을 알아서 ‘무신 약 해 맥이라’ 허민 그대로 허민 병이 좋아. 그러니 여회가 이서난 건 맞인 말이고, 또 소금장수가 여회를 잡아난 일도 잇고 경허주.

5. 무화관 도깨비 이야기

그 중문 저 소태전 무화관이렌 현 관은 잇엇던 모양이라. 그디서 밤이 되민 도깨비가 나서 그 사름의 장래 어떻 될건지를 알아서 무신거렌 허는 도깨비였는디, 지금은 그 집도 잇고 어심을 모르코.

어든 사람이 과거 옛 번 보다가 낙방허니깐 그자 나사서⁹⁾ 거렁뱅이질을 허는 거라. 텡기다가 어느 기생집의 당했는디 그 집의서 신바람¹⁰⁾이나 허며 이서¹¹⁾

2) 여러 번 3) 구실 4) 뺏어 주지 5) 삼킴 6) 따 7) 겨를 8) 봐서 9) 나사서

10) 심부름 11) 있어

달라 하여 잇는디, 밤에는 어쁜 선비들이 놀래갔다가 그 기생하고 회회낙낙허며 노는디 기생이 허는 말이

“오늘밤에 저 무화관 대들포¹²⁾에 가서 등불을 들고 오민 내 남펜으로 삼갸다.”

고 허니, 그 누게 대답 안허거든. 그 대들포에 가젠 허민 집 안에 들어가얏 것 아니라 게.

<조사자 : 예. 맞수다.>

아, 그 말을 듣고 방 바깥의 잇던 그 사름이

“아무라도 강 들민 될게 아니냐?” 하니 좋다 해서 그 사름이 갓는다. 간 지 날이 새어 가도 안 오는거라. 선비들이 조차강 보니깐 그 무화관 마다¹³⁾에 무신 게 꿈쩍꿈쩍 꾸물거리고 잇더라 이거여.

“아, 뜰어서 저 놈이구나.”

그래서 가명 그 놈 이름을 불른 거지. 아무아무게, 이렇게 부르난 아 그 사름이 도리어 호령을 허더라 말이여. 아, 그래서 그 사름을 잡앙 따귀를 때령 정신 초리게 혼 거지. 어떻 된 일이냐를 물으니깐 그 소연¹⁴⁾을 얘기 허는 거라.

등을 그 무화관 대들포에 강 들고 마다에 나오니까 어쁜 아주 춤 절대가인(絶對佳人)이 붙잡더라 이거지.

<조사자 : 계민 그 여자가 도깨비라났구나 예?>

헛 것이엇주.

그 사름이 생각을 허고 보난 모든 면으로 봐서 그 기생보단 위고 직¹⁵⁾이 기생이난 품위도 미(美)고 물골도 미고 모든 게 미니까 뭐 그 미인을 따라 간다고 해서 강 보니 아주 부자집이더라.

그래 거기서 독선생(獨先生) 밑에서 십 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지. 공부를 해서 과거를 봤는디 등과해서 평양감사를 벌어서 부임하는 도중이라. 그 꺼지¹⁶⁾를 애기한 것이지.

그렇게 호니까 그 기생 생각에 ‘아, 과연 이 사름이 좀 이제 습득(習得)허민 성공할 거로구나’ 하고, 고치 사는디 훗날 과연 그 사름이 평양감사가 되었다는 말이 이서.

12) 대들보 13) 마당 14) 사연 15) 職 16) 그까지

6. 과거보는 선비 이야기

어떤 사름이 아홉 번 과거에 낙방을 하고 ‘에이, 이제 살앙 무신 거 하겠냐’고 막 낙심하고서는 목메영 죽젠 나무에 베를 메달앙 죽을라고 홀 쯤에 어떤 백발을 혼 노인이 나타남 하는 말이

“아, 사름이 병들영 죽기도 설러워 허거든 사름이 어떻 목메영 죽젠 허느냐?”
고 말이지

그 사름이

“아, 어떤 노인네가 지나는 질¹⁷⁾이나 갈 것이지, 나는 그만한 소연¹⁸⁾이 있어 죽을라고 한다.”

고 하니

“무슨 이유냐?”고 하니

“난 이러 이러 허여 세상을 살아도 흥미 없으니까 죽을라고 한다”

고 하니

“그러지 말고 내일 특과(特科)가 있으니까 내일 가민 뜰림어시 등과할 것이다.”
말이여.

“소실 이렇게 이렇게 허영 큰 종이에 자그만 글자를 썩 빙허게 돌리면서 무슨 자냐 물을 거니까, ‘매연(鵞)자라 허민 뜰림어시 등과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이 간 데 어서. 그 노인이 그대로 이서시른¹⁹⁾ 그 말을 안 들을 건디, 인멸불견 간 되가 어시니 촘말 이제 신선이구나 하고 북향사배하고 직시²⁰⁾ 달려갔지. 달려강 보낸 과연 특과가 잇더라.

그래 거 뭐 지꺼진²¹⁾ 거지. 백발백중 이건 믿어는 것 아니라게.(웃으며)

영²²⁾(손짓) 돌리멍 무슨 자냐 물은 거지. 그 노인이 말헐 때 빙허게 돌릴테니까 ‘매연’자라고 허라 하니까는 빙허게 돌릴테니까 돌릴 생각이 몬져 떠올라 분거지. 그러니까 그만 ‘빙빙 연’자라고 얘기를 혼거라. 당최 ‘빙빙 연’자연 현 말은 해 보도 안 해신디 빙허게 돌린다 현 것에 그만 아주 기빠부니까 그렇게 현거라.

‘빙빙 연’자라고 허니까 그렇게 해독을 허니까 누게가²³⁾ 잘 땃다 못 땃다 하기

17) 길 18) 사연(事緣) 19) 있었으면 20) 즉시 21) 기쁜 22) 이렇게 23) 누구가

전에 저도 풀린 건 알거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애긴 후고 보니 잘못 얘기 한거라.

‘아, 이젠 안됐구나’ 허영 가젠 땃 자국 안 가니까 어똥 선비가 둘러가고 잇드라 이거야. ‘풀림어시 이 선비도 과거보래 오는 선비구나 나는 이왕 안됐지마는 이 사름이라도 도와주자 말이야. 도와주자.’ 해서 이 선비보고 이제 이리이리 얘기하면 풀림어시 될 것이다하니

“어째서 그렇게 알면서 그냥 나오느냐?”

하니까, 소실 얘기를 “나는 ‘매 연’자라고 훔 것을 갑자기 ‘빙빙 연’자라 했기에 안 땀거고, 풀림어시 ‘매 연’자라고 하면 동파한다”

그러니까 그 선비도 그러면 조금 기둘리라 후고 가서 “먼 되서 오는 것이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하니까, 그러냐고 “무슨 자냐?” 후거든
거 침착하게시리²⁴

“예, 서울말로 아뢰리까 시골말로 아뢰리까?”

그러니까 거 무슨 소리냐고

“서울말로는 ‘매 연’자올시고, 시골말로는 ‘빙빙 연’자올시다”

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아까 그 시골선비 부르라”고

그래서 둘이 동시에 과거를 했다는 거주.

[제보자 3]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김 병 인(男·62)

* 조사 삼 일째 되는 날 저녁, 조사반원들은 각 반별 제보자들을 숙소인 의귀국 민학교에 모셨다. 여러 제보자들이 민요를 구연하면서 흥에 겨워 있을 때, 그 중 한 제보자인 이 분을 따로 모셔서 이야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흔쾌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24) 침착하게

7. 고전적(高典籍) 이야기

자기 그리쳐난 선생님을 아주 그리칠 때는 그 어떻게 좀 요거 지레¹⁾도 죽고 허나네 막 천대를 보게시리 해본 말해주게. 천대를 해가지고 일단 돌아간 다음에 랑²⁾에 그 지관은 지관인디 아 어떻게 그 물함에 가가지고 에 이제 이 어른 산 때도 포신 못하고 이제 죽영강이라도 포신히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디강 모시니까, 에 제주에 서울서 과거를 봐가지고 제주, <요즘고트면 도지사쥬 이> 도지사 격으로 제주를 오라서 내 스승이라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해본 결과에 마침내 이젠 스승은 돌아가베탄 말이며, 그러면 무덤이라도 좀 찾아봅시다헨 간 보니 그제 제라허게³⁾ 춤 아닌게 아니라 춤 물함에 간 문었는데, 영장을 했는데

“게메는⁴⁾ 느네들 산천이엔 현 거 어떻게 될런지 그제 춤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땅 지형 돌아가는 대로 잘봐서 물결봐서 이제 산천을 봐 문게 된건디”

아주 좀 고랑창이에 간 묻다시피 멘들어베탄 이거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제자되시는 분은 일단 그 산소를 오란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시리 이제 문었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게민 이 따⁵⁾은 누가 이디를 정해줬느냐?”

흐니까, 동네 사름이

“고아무가이가 이렇게 와 가지고 따을 정해주니 할 수 어시 이딜 문었소.”

흐니, 그를 당장 불러들이라이거라 [지금 도지사 명령 꽤 무서운 명령이쥬?] 불러들여가지고

“왜 이런, 당장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런 물함에 이런 영장을 허도록히 멘들었소?” 경해서 질문을 해가니,

“거 옛날 글 배우래 덩길 적에 하도 나를 천대시리 보기 땀세, 죽영가도 흐쥬⁶⁾ 조금 서운허기 땀세 이렇게 따을 봐드렸습디다.”

1) 키(신장) 2) 죽은 다음에는 3) 놀랍게, 대단하게 4) 그러면 5) 땅 6) 조금

거 번쩍⁷⁾ 알면서도 그리 헛단 말이여. 그러니 이거 당장 이제 이 따을 똥겨야지⁸⁾ 이런디 오래 살 수, 물을 수가 없으니 당장 똥기라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로후제⁹⁾ 고씨는 전적벼슬을 얻었는데, 이젠 전적고씨 보고

“이 제주 일원에 지관이엿 헌 분이랑 전부 모이도록히 허라. 모여서 어디강 좋은 땅을 이제 보도록 헐테니까니 전부 모이라.”

고, 그 따에 가가지고 이제 맹부선생을 모실 자리를 강 보게 갖다 말이여. 가니까 소목사는 이렇게 정(定)자리에 딱허게 산자리에 앉아놓고, 다른 사름들은 이제 요기도 괜찮해뵤다, 저기도 괜찮해뵤다, 이렇게 돌아뎡기면서 보는 사름이 있고, 그 고씨는 이 소목사가 이렇게 정좌를 해노니, 똑, 바로 이 학생 앉는 식으로 <한 학생을 가리킨다> 거 고딱¹⁰⁾도, 안호영 거 고마니,¹¹⁾ 딴 사름들은 소못 열심히 돌아뎡기는데 고마니 아자.

“넌 어째서 고마니 앉느냐?”

“저, 목사님이 기좌해베야 바로 그디가 정자랍니다.”

계난 그것은 서로, 그 고씨도 췌장히 아는 사름이거든, 그 도량의 따을, 또 소목사도

“과히연 이거 춤 아는 사름이다”

말이여. 그러니 이거 결과적으론 마 소목사가 시험받아 본 격이나 마찬가지로 말이거든.

그러니

“너 이 놈 과연 아는 놈이로구나.”

이제 거기서 훈변 구령창 하고, 저 글귀나 멧 자 썩어가지고 이제 올려보내면은 그 글귀를 이제 봐가지고, 아메도¹²⁾ 지렌 죽고 뤼해도 아마 이 머리도 좋고 상당히 영리한 분, 어른이주게, 그래서 그 때에 전적으로 벼슬을 내려가지고 고전적이다, 이런 옛말이 잇주.

8. 호된 하르방 이야기

그 당시에 그 아무래도 육지에서 뤼싸, 그 요즘 고트민¹³⁾ 강도같은, 강도 중에

7) 뻥히 8) 옮겨야지 9) 그 후에 10) 꼼짝도 11) 가만히 12) 아무래도 13) 같으면

서도 뭐 아주 큰 강도주. 이런 사름이 제주¹⁴⁾ 넘어온다, 옥지에서 잡다 버치니까¹⁵⁾ 넘어온다 하니까, 제주에서는 그 때는 모간, 정의 잇단 말이여. 한라산 등허리는 모간, 한라산 아피는 정의, 정의 아무 고을 어떤 분이 이런 도적을 잡을 수 잇는 능력이 그 분뻘인 없다, 허는 요즘 고트민 차출헌거지. 선택을 해서 이제 수사 잘 험직한 사름으로. 그래서 이젠 맹령¹⁶⁾이 내리니까 할 수 어시 춤, 우리 그 하르버지가 할 수 어시 맹을 받아 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힘이 장소¹⁷⁾고 눈이 흥된 덴 흥 건, 그 상대방이 잇겠지. 흥데, 자기 생각도 뭐 용기있게 나갈라고도 흥고 허지마는 춤, 독¹⁸⁾이 그 당시에는 그이 하르방고라 범하르방이라 했는데 독을 놀당도 ‘후우-’, 솔췌¹⁹⁾이 ‘후우-’ 영허민 허거니와 조끔 목청 크게시리 ‘후우-’ <큰 소리로>, 이렇게 허민 눈이 확허게 터져버리민, 이 독들이 그자 놀래가지고 ‘파닥 파닥 파닥’ 죽을 정도로 눈이 그렇게 호되니까 그런 이유로 도적을 잡도록히 흥 거주. 그러니 흥 수 어시 이제는 어느 맹령이라, 이제는 그 도적이 어덜로 이제 저 대정으로 이레²⁰⁾ 들어온다 하니까, 집에서 걱정인 말이 아니지. 가족들이나, 경허당 지금 그 때 역시도 칼이라는 게 잇었던 모양이라. 흥데 이제는 그 춤 이순신 장군 그 무신거 철, <조사자들을 바라보면서, 묻는 식으로 얘기한다>

<제보자 : 그거 뭐라?>

<조사자들 : 갑옷!>

갑옷, 갑옷모양으로, 갑옷은 없지마는 맹지, 맹주를 몸에 갑았어요. 마, 요라벌²¹⁾ 평평 갑아가지고 웬마니 무슨 무기라도 얼른 안닥치도록 말이지. 맹지를 갑고 해서 춤 이제 몰타가지고 대정쪽으로 향해서. 향헌 그 지경이 구재기곳²²⁾이라고 했는데,

<조사자 : 구재기곳 마씨?>

<제보자 : 그 때는 저 곳이라면 덩벌, 지금 산에 가서 찾아보민 낭이 잇거나 막우거진 것을 보고 곳, 곳이라고도 허고, 숲이라 해야 맞지.>

숲속으로 나타나가니까 아주 이디서도 아메도 그 쪽도 몰²³⁾이야 탕는가 어떻게

14) 제주를, 제주에 15) 힘에 겨우니까 16) 명령 17) 장소 18) 닭 19) 살췌
20) 이리로 21) 여러 벌 22) 구재기 : 산, 곳 : 덩벌, 숲 23) 말

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사슴이 절로 뛰어나니까, 사슴 뛰어서 잡을 정도로 날쌌 저기니까 뭐, 거야 뭐, 그러니까 ‘탁’ 비추니까²⁴⁾ 여기서도 증지호라고 하니까,

“가만이 있어. 돈²⁵⁾ 사슴이나 잡고 간이나 먹고 봅시다.”

이저라. <웃는다>

사슴이 아피²⁶⁾ 뛰니까 그럼 우선 그거 고기니까 잡고 봐야 돼지. 잡고선 <제보자 : 산에 가면 켜야가 있어요. 이 저 들너개. 느네들 어깨엔 허민 모르지마는>

<조사자 : 굴 닭은 거지 예.>

김녕굴 닭은 기본²⁷⁾ 굴은 아니지마는 조끔현, 그 이런 덜 가가지고 사슴을 잡았어. 우선 쳇차²⁸⁾는 이디 사름덜도 지금 소도 잡으며는 간을 날 간 한 좀씩 먹고 돼지도 간 혼 점²⁹⁾ 먹고 경허주마는, 사슴, 그 당시에 사슴간이야 뭐 아주 이젠 지금 실탕보다 더 맛이 좋다 말이야. 헌데 칼 꽃쟁이³⁰⁾다가 북쪽의 도적놈이 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시늬한다> 찢러가지고

“저 좌수 입이나 벌리시오. 이 간이나 혼 점 잡수쇼.”

허 춤 그 말엔 어딘가는 더 긴장감이 든단 말이야. 아 거 ‘그대로 집어 먹으시오’ 험도 이게 그럴텐데, 칼꽃애다가 톱 해그네

“이거 빠먹으면 나 잠을 용기잇는 사름이야.”

이랬단 말이야. ‘뭐 이 때 죽으나 저 때 죽으나 죽기야 마찬가지로 아니냐’ 하는 식으로 사름은 용감무쌍호계시리³¹⁾ 대든거라. 입 아 허니까 싹허게시리 빠먹었던³²⁾ 말이야. 게니³³⁾ ‘이 칼 꽃애 간이나 빠먹으며는 나 잠을 만허오’ 험 때 말은 과연 무서울 지경이란 말이야. 그러허니 입 아 해가지고 험 때에 사름이, 기상이 바로 뭐 무서우니까 도적도 사름이 온순헌 사름도 기상이 확해볼민 ‘남자 닭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여게. 그리 하는 식으로 그런 남자니까, 과연 잠힐로구나, 이렇게 헌거주. 그래서 간 한 점 얻어먹고 이제 요즘 고트민 체포헌거지. 체포해 가지고 간 도지사애 간 바쳐두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옛 어른 말씀에 한 일 년, 아마 요즘 고트민 겁나가지고 말이지, 병이 나가지고 오래 못 살안 돌아갓젠 허주.

24) 보이니까 25) 단 26) 앞에 27) 깊은 28) 첫체는 29) 한 점 30) 끝에
31) 용감무쌍하게 32) 빠먹었던 33) 그러니

信 仰

指導教授：허 춘

指導補助：문무병, 이완중

김영희

班 員：강충민(4), 허행자(3)

신혜선(3), 박선일(3)

강수일(3), 오충훈(2)

강지영(2), 김연숙(2)

김문기(1)

目 次

- I. 概 觀
- II. 公認宗教
- III. 部落信仰
- IV. 巫俗信仰
- V. 個人信仰

I. 概 觀

이 보고는 1991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에서 이 마을의 신앙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의귀리는 南元里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

어진 곳에 위치한 중산간 부락으로 서쪽으로는 漢南里, 북쪽의 水望里, 동쪽의 新興里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 조사팀은 공인종교, 부락신앙, 무속신앙, 개인신앙으로 나누어 조사에 임하였는데 각기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조사자들에게 미숙한 면이 많았지만, 우리가 조사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 부락신앙이라 할 수 있는 포제는 이미 제를 지내지 않은지 오래였고,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선뜻 조사에 응하지 않아 미비한 자료밖에 실을 수 없게 되었다.

II. 公認宗教

의귀리의 公認宗教로는 基督教이 있다. 佛敎를 믿는 가정도 많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의귀리 내에는 절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웃 新興里나 멀리 서귀포의 절에 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는 토속적인 神을 섬기는 가정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基督教이 이 마을에 傳派된 지는 40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주도의 다른 마을에 비하면 信徒數가 많은 편이다.

基督教

- 1) 名稱 :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귀교회
- 2) 宗派 : 예수교 장로회로서 통합측에 속한다.
- 3) 位置 :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1482-14
- 4) 沿革 : 水望里로 출가했던 한 할머니가 이곳으로 찾아와 1951년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구락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교육의 혜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때라서 120 여명의 어린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성경공부와 글자공부를 병행하여 교육시켰다. 이후 1953년 개인 주택에서 의귀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68년에 현재 건물을 지어 옮겨왔다.
- 5) 信徒 : 신도수는 성인이 80명 정도이고, 유치부가 30 여명, 아동부 30 여명,

중·고등부가 40 여명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인 신도수가 학생신도수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그리고 외지인 신도수가 5명 이하이고, 대부분이 이곳 신도라는 점 또한 이곳의 특징이다.

현재 김영민 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장로 3명과 권사 5명이 있다.

6) 事業 : 4월 부활주일에 이웃돕기 사업을 한다.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그리고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는데, 불이이웃돕기는 구역마다 정해 놓고 실시한다. 그리고 1992년에는 선교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III. 部落信仰

醮祭

醮祭는 愛鄉之心으로 행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에 祭의 지속성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 등의 국가시책에 흐름을 같이하여 지금은 행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醮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줄 제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몇몇 어른들의 기억에 의지하여 그나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제보자 : 김병천(男·81), 오봉남(男·76), 김동수(男·57))

- 1) 名稱 : 醮祭(또는 마을제, 部落祭)
- 2) 祭神 : 醮靈之神
- 3) 祭日 : 음력 정월 초순의 丁日과 亥日 중 하루를 택하여 子時에 祭를 지낸다.
- 4) 祭場

① 명칭 : 포켓동산

② 위치 : 의귀리사무소에서 북쪽으로 약 700m 지점에 위치

포켓동산은 마을 주민들이 祈願하던 聖域이었으나 지금은 醮祭를 지내지 않음으로 해서 주위가 전부 밀감밭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포켓동산에서 醮祭를 지냈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5) 祭儀管理

① 회소집 : 음력 전달 그믐에 鄉會를 열어 결정한다. 회소집은 주로 마을의 영덕으로 한다.

② 경비모금 :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은다.

6) 祭官 : 祭官은 모두 16 祭官이라고 했다. 다른 마을의 경우 보통 12 祭官으로 하고 있으나 의귀리에서는 祭官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① 자격 : 그 마을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60대를 전후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선출 : 鄉會에서 姓氏別 비율에 따라 골고루 선출한다. 의귀리는 五姓(경주 김씨, 광산김씨, 오씨, 양씨, 고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유지가 모여 제관을 선출하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뽑는다. 그러나 제관을 선출하는 향회는 3일간 열리기도 했는데, 향회가 이처럼 길어진 이유는 제관 선출에 따른 각 성씨별 이해관계 및 제반 결정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③ 제관의 종류

初獻官 : 첫째 헌관

卍獻官 : 둘째 헌관

終獻官 : 세째 헌관

執禮 : 禮를 주장하는 사람(사회자, 笏記를 읽음)

大祝 : 祝文을 읽고 祭를 집서함

謁者 : 行祭할 때 獻官을 인도하는 사람

贊者(東贊, 西贊) :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

東贊이 「鞠躬拜」하면 절하고, 西贊이 「興」하면 일어난다.

典祀官 : 祭物の 준비, 陳設 등 祭物을 관리하는 사람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樽 등이 있다.

7) 入祭 : 祭日 3日前에 祭官이 모이는 숙소에서 합숙한다. 이때 부락민들 거의 전부가 찾아가 본다. 여자인 경우는 식사 제공과 술 빚는 일 외에는 出入이 금지된다.

제관은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고기를 먹는다는가 피를 보는것)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동네에 초상이 났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祭를 연기한다.

8) 祭物 : 祭物은 모두 生으로 한다.

① 메는 稻(쌀), 梁(기장), 黍(조), 稷(피) 4 그릇 올린다.

② 果類 : 五果를 쓴다. 과일을 올리는 데도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대추는 씨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임금이라 하여 제일 위에 올리고, 밤은 3정승 6판서라 하여 그 다음에 올린다.

③ 犧牲 : 돼지 1마리

④ 祭酒 : 生甘(甘酒)을 사용한다.

9) 行祭 : 의귀리의 醮祭는 유교식으로, 향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비슷하며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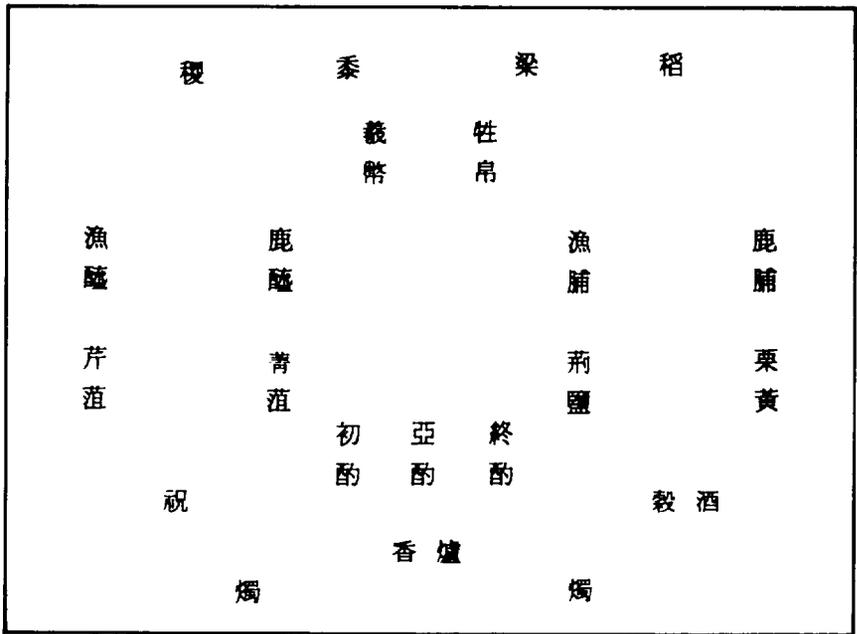
笏記는 다음과 같다.

○○年 ○月 ○○日 醮祭笏記

謁者引 獻官以下具就門外位 謁者引 祝及諸執事入就壇南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詣盥洗位北向立 盥洗各就位 謁者引 獻官入就位 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 謹俱請行事
四拜 獻官皆四拜 行前幣詣 謁者引 初獻官詣 盥洗位 北向立 振笏 盥洗 執笏引詣
神位前北向跪 振笏 三上香 獻幣 執笏俯伏與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禮 謁者引 初獻
官詣 樽所 西向立 酌酒引詣 神位前北向跪 振笏獻爵 執笏俯伏與小退跪 祝 進神位
之右東向跪 讀祝 俯伏與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 亞獻官詣 盥洗位 北向立
振笏 盥洗 執笏引詣 樽所 西向立 酌酒引詣 神位前北向跪 振笏獻爵 執笏俯伏與平身
引降復位 行終獻官禮 謁者引 終獻官詣 盥洗位北向立 振笏 盥洗 執笏引詣 樽所
西向立 酌酒引詣 神位前北向跪 振笏獻爵 執笏俯伏與平身 引降復位 飲福受胙 執事
者詣 樽所以爵酌 福酒持俎進減 神位前 胙肉 謁者引 初獻官詣 飲福位 西向跪 振笏
執事者 北向以爵授獻官 獻官受爵飲卒爵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爵 執事者 北向以胙
授獻官 獻官受胙以授執事者 執事者受胙降自東階出門 執笏俯伏與平身 引降復位 四
拜 獻官皆四拜徹邊菹 祝進 徹邊菹 四拜 獻官以皆四拜 四拜望燎祝入以取 祝版及

幣非 降自西階置於坎 謁者引 初獻官詣 望燎位北向立 可燎 謁者進獻之左白禮畢 遂引獻官出 祝及諸執四俱伏 壇南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以此出. (終)

10) 陳設 : 祭廳에서 9시경에 출발하여 10시 쯤에 祭場에 도착하여 祭物을 陳設한다. 陳設은 다음과 같다.



祭物 陣設圖

11) 祝文 : 부락에 일이 생길 때 마다, 祝 짓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壬申 正月 朔日 幼學 姓名 敢昭告于
 爾靈之神 伏以 赫矣明靈 鎮我壹城 上應天道
 下賜思澤 吾民生涯 莫匪神德 茲值元丁 敢 情曲
 消厥舊災 降下神福 父老蹈舞 童稚和樂 四民安業

二豎巡跡 五穀豐登 六畜蕃息 豫防凶火 勿犯亂賊
 入營子弟 常無侵瀆 如斯而已 豈忘弘澤 謹以牲幣
 醴齊姿盛 脯醢祗薦 于
 神尚
 饗

12) 飲福 : 祭를 지낸 후 음식은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祭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IV. 巫俗信仰

堂儀禮

이 마을에는 本郷堂과 禿山에서 갈라져 나온 일렛당·요드렛당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본향당을 ‘널당’, 혹은 너시오름(넋이오름, 魄梨岳)에 있다하여 ‘넋시오름 널당’이라고 부른다. 일렛당과 여드렛당은 堂이 있는 곳의 이름을 따라 ‘창세미소 일렛·여드렛당’, ‘물진밭 일렛·여드렛당’이라 부른다.

1. 널당

- 1) 堂名 : 너시오름 널당
- 2) 神名 :
- 3) 神位 : 할망·하르방
- 4) 祭日 : 음력 2월 12일
- 5) 神體 : 神木(팽나무)
- 6) 祭物 : 돼지고기를 올리지 않는다. 堂에 제물로 돼지고기를 올리는 경우는 드물다. 사냥신, 해신, 도깨비를 모신 당에는 돼지고기를 올리지만 맑고 맑은 조상을 모신 곳에서는 올리지 않는다.
- 7) 性別 : 남녀(부부신)
- 8) 機能 : 마을 사람들의 송사, 물고, 호적, 장적, 생산 등 생활 전반을 관장하며

수호해 준다.

9) 堂 건조 형태 : 신목형(神木型), 울담형, 산하 전답간 존재형(山下田畚間存在型), 개방형, 제단형(祭壇型)

10) 매인 심방 계보 : 고씨할망→신금연→신대인

11) 堂의 特徵 : 왼쪽 신목에는 지진, 우측에는 물색이 걸려 있다.

12) 단골(信仰民) : 마을 주민 일부(약 20가구)



널 당

2. 창세미소당

창세미소는 第3衣貴橋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의귀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 수망리 사람들의 생활용수로 쓰였다고 한다. 창세미소당은 창세미소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창세미소

- 1) 堂名 : 창세미소 일뤼 · 여드렛당
- 2) 神名 : 토산 일뤼할망 · 여드레할망
- 3) 神位 : 일뤼할망 · 여드레할망(女 · 2)
- 4) 祭日

① 일뤼당 : 음력 6월과 11월, 7일 · 17일 · 27일

② 여드렛당 : 음력 6월과 11월, 8일 · 18일 · 28일

당을 찾아갈 때 초일뤼 · 초여드렛날 가면 앉아서 상을 받고 열일뤼 · 열여드렛날 가면 누워 기다리다가 상을 받고, 스무일뤼 · 스무여드렛날은 안 와도 좋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는 보통 초일뤼 · 초여드렛날 당에 간다.

5) 神體 : 神木

6) 祭物

① 일뤼날 : 허물이나 부스럼 낫게 해달라고 물후락할망에게 빈다. 메는 보시매

1개, 사발메 1개 물세계(물뢰세) 서너치 길이, 실 한가림, 지전3-4장

② 여드렛날 : 보시메 1, 사발메 1, 액막이로 닭이나 돈을 갖고 간다. 액막이는 대체로 집안의 액을 막는 것인데 사람 수에 따라 메 수가 달라진다. 시마치(천) 1마도 가져간다.

보시메는 아기메를 말하는 것으로 일뤼날은 아기 영혼을 위하여, 여드렛날은 아גיע계를 위하여 준비한다.

7) 性別 : 女(할망)

8) 機能 : 아기 낫들임, 피부병, 액막이

9) 堂 건조 형태 : 신목형(神木型), 천변형(川邊型), 폐쇄형, 제단형

10) 매인 심방계보 : 신백근→장씨할망→김병현(女·77세)

11) 堂의 特徵 : 다른 당에 비해 인위적으로 돌담을 쌓아 테두리를 두르지 않고 주위에 뾰뾰히 들어선 나무들로 넓이를 짐작할 수 있다. 제단 역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당의 내부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서 손을 씻으면 사마귀가 낫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12) 단골(信仰民) : 마을 주민 일부 (약 10가구)



참세미소당

3. 돌진밭당

돌진밭은 말들이 진을 쳤던 밭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귀리 동쪽 하천(衣貴川)을 지난 곳에 위치해 있다. 전에는 이 지역이 목장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이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돌진밭당은 第3衣貴橋에서 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 1) 堂名 : 돌진밭 일뤼 · 여드렛당
- 2) 神名 : 토산일뤼할망 · 여드레할망
- 3) 神位 : 일뤼할망 + 여드레할망(女 · 2)
- 4) 祭日

① 일뤼당 : 음력 6월과 11월, 7일 · 17일 · 27일

② 여드렛당 : 음력 6월과 11월, 8일 · 18일 · 28일

5) 神體 : 神木 + 神穴

6) 祭物 : 떡, 과일, 계란, 감주, 쌀, 지전, 소지종이, 물색형궤

메는 두 그릇인데 일뤼할망에게 보시메 하나와 여드레 신당한집에 사발메 하나 올린다. 돼지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돌진밭당

7) 機能

① 일뤼할망 : 피부, 괴담, 안질을 치료해 준다.

② 여드레할망 : 아기를 낳들여 주고 액을 막아 준다.

8) 堂 건조형태 : 신혈형(神穴型), 신목형(神木型), 울담형, 개방형, 제단형

9) 맏인 심방 계보 : 홍성운(男)→신씨(男)→김씨(女)→김금선(혹은 김용철이라고도 함(女))→무명(女)

10) 堂의 特徵 : 과수원 속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은 과수원당이라고도 한다.

1989년 태풍에 의해 神木이 잘려 나갔다.

11) 단골(信仰民) : 교회에 다니거나 불교를 믿는 사람을 제외하면 약 30가구 정도 다닌다.

4. 堂의 내력담

당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간이 짧았고, 미숙한 점이 많아 당본풀이를 채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미 조사되어진 자료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창세미소당과 물진밭당은 토산의 일뤼당(토산 옷당)과 여드렛당(토산 알당)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그 내력담이 같다. 따라서 여기에는 토산의 일뤼당과 여드렛당의 유래를 『제주도 神話』(玄容駿, 瑞文堂)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1) 兎山 일뤼당(兎山 옷당)

웃손당(上松堂里) 신(神) 금백주와 알손당(下松堂里) 신 소천국 사이의 세째아들은 표선이(表善面 表善里) 당신 바라못도이고, 표선이 바라못도의 큰아들은 하천이 바라못도(下川里 堂神), 둘째아들은 세화리 바라못도(表善面 細化里 堂神)이고, 작은아들은 토산 첫앞빌레에 좌정한 바라못도이다.

이 토산리 바라못도의 큰 부인은 서당팻 일뤼중저이고, 적은 부인은 용왕황제국의 작은딸이다.

토산리 바라못도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죄목으로 무쇠석갑에 담겨 동해바다에 띄워지게 되었다.

무쇠석갑은 용왕국의 산호수 가지에 걸리었다. 용왕국의 청삼사리가 들이쿵쿵 내쿵쿵 짓어대었다. 용왕황제가 이상히 생각하여 큰딸을 불렀다.

“애, 큰딸 아가 저기 나가 봐라, 왜 청삼사리가 짓느냐?”

“하늘엔 별이 송송, 달이 송송,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딸 아기 나가 봐라. 왜 청삼사리가 짓느냐?”

“담고망은 바롱바롱, 나뭇잎은 반들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딸 아기 나가 봐라. 왜 청삼사리가 짓느냐?”

“산호나무 상가지에 난 데 없는 무쇠석갑이 걸렸습니니다.”

“큰딸 아기 내리워라.”

못 내리고,

“둘째딸 아기 내리워라.”

못 내린다.

“작은딸 아기 내리워라.”

작은딸이 나무를 잡아 몇 번을 흔드니 무쇠철갑이 저절로 설설 내려왔다.

“큰딸 아기 열라.”

까딱하지 못하고,

“둘째딸 아기 열라.”

까딱하지 못한다.

“작은딸 아기 열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둘러치니 절로 설강 문이 열렸다. 속에 고운 도련님이 앉아 있었다.

“큰딸 방으로 들라.”

눈도 아니 거들뜨고,

“둘째딸 방으로 들라.”

눈도 아니 거들뜨고,

“작은딸 방으로 들라.”

서른 여덟 잇바디를 허우덩삭 열며 허울허울 들어갔다.

밥상이 들여왔다. 도령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용왕황제가 나와 ‘무슨 음식을 먹느냐?’고 물었다.

“백메(白飯)·백들래·소주·계란 안주 먹습니다.”

‘그런들 사위손 하나야 대접 못하랴’

용왕황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창고를 열어놓고 마음껏 먹이라 하였다.

석달 열흘을 먹여 가니 동창고·서창고가 다 비어 갔다. 용왕황제는 이런 사위를 두었다간 용왕국이 망하겠다고 생각하고, 사위부부를 무쇠석갑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렸다.

무쇠석갑은 썰물에는 동해바다에 떠 다니고, 밀물에는 서해바다에 떠다니곤 하다가 제주성 벨방(別防：舊左邑 下道里)에 떠올랐다.

부부는 언덕에 올라 부모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높은 동산에 콩을 불리고 있었다. 용왕국 따님아기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술로써 콩까지를 눈이 들게 하였다.

“아야 눈이여, 아야 눈이여, 큰딸아가 내눈에 가시 내어 달라.”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똥째딸아가, 내눈에 가시 내어 달라.”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작은 아들 부부가 들어왔다.

“높은 동산에 앉으십시오. 불효자식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용왕국 따님아기는 시어머니를 앉혀서, 부채를 내어 놓아 허울허울 부쳐가니, 콩까지가 치맛자락으로 도록기 떨어지는 것이다.

“설운 아기야, 어디서 이런 부술을 배웠느냐?”

“불효 자식이 어디서 부술을 배웁니까?”

“설운 아기, 무엇으로 콩을 갠아 좋으냐?”

“은도 싫습니다. 금도 싫습니다.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 베어 주면 구명도식

(救命圖食)이나 하겠습니까.”

이때 큰부인은 시부모가 용왕국 따님에게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 배어 준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너르게 배어 주는가 하여 땅을 돌아보러 나섰다.

유월 별에 땅을 돌아보자 하니 목이 몹시 말랐다. 이리저리 물을 찾다보니 돼지 발자국에 물이 조금 껴어 있는 게 보였다. 그 물이라도 먹으려고 입을 대고 빨았다. 이상하게도 돼지털 하나가 코를 콕 찌르는 것이었다. 큰부인은 돼지고기를 먹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야단을 치는 것이다.

“어찌하여 큰 부인 오는 길엔 동경내가 과히 나느냐? 부정하다.”

“그런 게 아니라,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돌아보다가 돼지발자국의 물을 빨아먹는데, 돼지털이 코로 들어가니 먹은 듯 합니다.”

“괘씸하다. 마래섬(馬羅島)로 귀양 보내라.”

큰 부인을 대정(大靜) 마래섬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적은 부인이 들어와서 큰 부인을 찾는 것이었다.

“큰 부인은 어디 갔습니까?”

“이리저러 부정이 많아서 대정 마래섬으로 귀양 보내었노라.”

“그까짓 일에 정배(定配)가 무슨 일입니까? 나는 하루 몇 번씩 실수를 해 집니다. 그런다면 저도 소국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아니 가겠느냐?”

“귀양을 풀어 주십시오.”

적은 부인이 귀양을 풀러 대정 마래섬으로 갔다. 그 세에 큰 부인은 일곱 아이를 낳아 있었다.

“설운 성님, 귀양 풀러 왔습니다.”

“나 같은 걸 귀양 풀어 뭘 할 것이냐?”

“성님이 아니 가겠다면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일곱 아기를 데리고 대로로 먼저 가라. 나는 해변으로 돌아가며 보말이나 주워 먹으며 가겠다.”

적은 부인은 일곱 아이를 업고 안고 걸리고 해서 길을 나섰다. 위미리(南元厓 爲未里) 앞에 오니 목이 몹시 말라 주위를 찾아보니 고망물이 있었다. 물을 찍어 먹으니 산도록해서 고망물로 이름을 지어 두고 다시 길을 떠났다. 토산리에 오니 또 목이 말랐다. 물을 찾다 보니 냇가에 물이 있었다. 찍어 먹어 보니 이 물도 산도록하여 고망물이라 이름을 지었다.

적은 부인은 옷토산(上兎山) 서당팻에 와서 아이를 세어보니 여섯밖에 없었다. 하나를 어디서 떨어뜨린 것이다.

겹결에 느진덕정하님을 데리고 멜빵이며 기저귀며를 가지고, 아이를 찾으러 가다보니 송정골에 아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아이는 자갈을 주워 먹으며 울고 흙을 주워 먹으며 울곤 하여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아이를 달래어 느진덕정하님에게 업히고 서당팻으로 돌아와 당신(堂神)이 되어 좌정했다. 이 신은 초일뤼·열일뤼·스무일뤼 제를 받아 오는데, 허물을 거두어 주고, 이질, 설사, 복통을 거두어 주고, 아이가 앓는 때에도 이 신에게 빌면 낫게 해 주는 신이다.

2) 兎山 여드렛당(兎山 알당)

이 당의 신은 나주(羅州) 영산(榮山) 금성산(金城山)에서 솟았다.

옛날, 나주 고을에 목사(牧使)가 부임해 오면, 오는 족족 백일을 채우지 못하여 봉고파직(封庫罷職)이 되어 나갔다. 그래서 목사로 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때 양목사가 나서서 말하였다.

“나를 목사 시켜 주면 석 달 열흘 백일에 윤삭(閏朔)을 채우리라.”

그는 이렇게 장담하고 나갔다.

목사 할 사람이 없는 터라 곧 임명이 되었다. 양목사는 많은 관속과 육방 하인을 거느리고 나주로 향하였다.

금성산 앞을 지날 때였다. 통인(通引)이 앞을 막아서며 말하기를,

“성주(城主)님아, 성주님아, 하마(下馬)를 하십시오. 이 산엔 영기가 있고 토지관(土地官)이 있습니다.”

“야, 이 마을에 토지관이 하나지 둘이 될 수 있겠느냐?”

목사는 뿌리치고 말을 탄 채로 나아갔다. 얼마 아니가서 과연 말 발이 걸어서 더 갈 수가 없었다.

“이것이 영급(영검)이나?”

“예, 영급이 됩니다.”

목사는 단기(單騎)에 단구종(單驅從)을 거느리고 올라가 보니, 청기와 판간집에 월궁(月宮)의 선녀(仙女) 같은 아기씨가 반달 같은 용얼레빗으로 신 대 자(尺) 머리를 슬슬 빗고 있었다.

“어느 것이 귀신이나?”

“저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사람 될 리가 있겠느냐? 네 몸으로 환생(還生)하여 보아라.”

그 순간 아기씨는 윗 아가리는 하늘에 붙고 아랫 아가리는 땅에 붙은 큰 뱀이 되어 나타났다.

“더럽고 누추하다. 이 마을에 불질 잘 하는 포수가 있겠느냐?”

“예, 있습니다.”

포수를 불러다가 불 세 방을 놓아 가니, 뱀은 앓을 데도 설 데도 없어져 금바둑돌·옥바둑돌로 변하여 서울 종로 네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때 제주의 강씨형방·오씨형방·한씨형방이 미역·전복 등을 진상하러 서울에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 종로 네거리로 다니다가 우연히 이 바둑돌을 줍게 되었다. 강씨형방·오씨형방·한씨형방은 전에 없이 진상이 수월하게 잘 넘어갔다. 이것이 바둑돌의 도움임을 알 리가 없었다.

강씨형방·오씨형방·한씨형방은 진상을 끝내고 제주도로 돌아오게 되었다. 처음엔 바둑돌이 신기한 것 같아 소중히 간직했으나, 알고 보니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던져 두고 배를 띄우려 했다.

이상하게도 바람이 막혀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배를 띄우려는 시간마다 바람이 막히므로 세 형방은 점을 치러 갔다.

“강씨형방 보자기를 풀어보십시오. 난데 없는 보물이 있을 듯 하옵니다. 선왕

(船王)에 올라 굿을 하면 명주 바다에 실바람이 시르르르 불어올 듯하오니다.”
아닌게 아니라, 보자기를 풀어 보니 던져 버린 바둑돌이 그 속에 와 있었다.
선왕에 올라 굿을 했더니 명주 바다에 실바람이 시르르르 불어 오는 것이었다.

강씨형방·오씨형방·한씨형방은 배를 띄워 제주 열운이(城山邑 溫平里)로 들어왔다.

포구에 배를 붙이자, 바둑들은 꽃 같은 아기씨로 변신하여 그 말을 당신 맹호 부인에게 명함을 드렸다.

“이 마을에 토지관이 하나지 들이 될 수 없다. 땅도 내 땅이요 물도 내 물이다. 자손도 내 자손이 되어지니 어서 나가거라.”

맹호부인은 도저히 그 마을에 머무를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딜 가면 임자 없는 마을이 있겠습니까?”

“해 뜬 방위 토산(兎山)으로 가고 봐라.”

아기씨는 열운이를 떠나서 곰배물로, 삼달리(三達里)로, 하천리(下川里)로 나아갔다.

이때 하천이 개로육서또(河川 堂神)가 탈산봉에 앉아 바둑을 두다가, 월궁의 선녀 같은 아기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의 기습으로 그냥 둘 수 있으랴. 어서 나아가자.’

개로육서또는 산지꼴로 내달아 왕꼴로 하여, 서토산을 달려들어 은결 같은 아기씨 팔목을 덩석 잡았다.

“얼굴은 양반이라도 행실은 패썹하다. 더러운 놈 잡았던 팔목을 그냥 둘 수 없다.”

아기씨는 장도칼을 꺼내어서 팔목을 싹싹 깎아두고 남수화주(籃水禾紬) 전대(戰帶)로 휘휘친친 감아놓고 토산 메뚜기마루에 가보았다. 그만하면 앓을 만도 하고 설 만도 하였다. 거기 좌정하기로 자리를 정해놓고 용왕궁에 인사차 들어갔다.

용왕께서 말을 하되

“어찌하여 네 몸에선 날피 내가 나느냐?”

“예, 하천이(河川里) 개로육서또가 언약 없이 팔목을 잡길래 은장도로 깎아 두고 왔습니다.”

“괘심하다. 개로육서또 말을 들었으면, 앉아도 먹을 만큼 서도 먹을 만큼 한 자식을 얻을 것을, 말을 아니 들었구나.”

용왕황제는 도리어 욕을 하는 것이었다.

아기씨는 서운하여 토산으로 올라서며 개로육서또를 불렀다. 한 번 불러 편편, 두 번 불러 편편, 세 번 불러도 편편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토산 알당으론 연불(煙火)이 나면, 하천이(河川里) 고칫당(개로육서또의 堂)으론 신불(神火)이 나곤 하여, 서로 연불·신불로 언약을 하고 지냈다.

아기씨는 토산 메뚜기마루에 좌정하여 얼마간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입던 의복들을 거두어 지고 느진덕정하남하고 울리 소(沼)에 빨래를 하러 갔다. 잠시 빨래를 하느라니 느진덕정하남이 바다 쪽을 보고,

“상전님아, 저기 보십시오. 검은여코지로 도둑이 들어옵니다.”

황급히 말을 하였지만 아기씨는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때마침 왜배가 앞바다로 지나다가 돌풍을 만나 산산조각이 나고, 배에 탔던 놈들이 물으로 올라오는 판이었다. 조금 있더니 이놈들은 바로 울리 소 근처에 당도했다.

“상전님아, 저기 보십시오. 도둑이 바로 여기 당도했습니다.”

그제야 물이 질질 흐르는 빨래를 거두어 담아 짚어지고, 아기씨와 느진덕정하남은 달아났다.

“상전님아, 치마 고름이 풀어집니다.”

“치마 고름이 풀어지고 허리 고름이 풀어지고 내 몸이나 감추어 보자. 불기가 나온들 밀이 나오며, 밀이 나온들 불기가 나오랴. 어서 단자.”

다시 내달아 묵은각단밭에 이르렀다.

“상전님아, 머리로 꿩이 납니다.”

“꿩이 날건 치(稚)가 날건 어서 단자.”

놈들은 뒤를 바짝 쫓아왔다. 거의 붙잡힐 지경에 이르렀다.

아기씨는 다급한 김에 꿩이 숨었던 자리에 머리라도 숨겨보자고 굽혔다. 놈들은 어느새 뒤로 달려들어 은결 같은 팔목을 부여잡고 연적 같은 젓통이를 부여잡는 것이었다.

아기씨와 느진덕정하님은 구름산에 얼음같이 이 세상을 버렸다. 예물동산에 쌍묘를 만들어 고이 매장되었다.

얼마 없어 아가씨 혼령은 가시리(表善面 伽時里) 강씨(康氏) 집안 외딸 아기에 게 의탁하였다. 강씨 아기는 보리방아를 쪼다가 갑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정신을 잃어 일가친족을 몰라보는 것이었다.

집안에서는 집을 내고 집을 치러 갔다. ‘신이 의탁한 것이니 큰굿을 하라’는 것이다. 급히 택일을 하여 큰굿을 시작하였다.

초감계가 넘어들어 가니 그렇게 정신을 잃었던 딸아가기가 와들랑이 일어나서, “아버님아, 어머님아, 누구를 위한 굿입니까?”

멀쩡하게 묻는 것이었다.

“너를 살리려는 굿이다.”

“신이성방(무당)아, 누구 살리려는 굿이나?”

“아기씨 상전 살리려는 굿입니다.”

“나를 살리려는 굿이면, 연갑(靛匣)을 열어 보면 아버님 첫 서울 갔다 올 때 가져온 명주가 있으니, 마흔 대 자(尺) 끊어 놓아 내 간장을 풀어 주십시오. 설흔 대 자 끊어 내어 내 간장을 풀어 주십시오.”

아가씨 말대로 연갑을 열어 명주를 풀어 보았다. 명주 틈에 작은 뱀이 뿔뿔이 말라 죽어 있었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으리오. 백지 한 장 주십시오.”

심방은 백지에다 뱀 대가리와 그 모습을 그려놓고 굿을 하여 만판놀이를 해대었다.

“이만해도 신병 좋지 않겠습니다. 뒤에 군졸들이 있으니 대접을 해야겠습니다.”

심방의 말대로 소를 끌어내고 닭을 잡아 왔다. 소를 잡고 닭을 잡아 바쳐 굿을

하다가 심방은 배를 지어 뒤맛이를 해야 병이 시원히 낫겠다고 했다.

깊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하나 지어놓고, 버섯·유자·고사리·전복·천 초등 제주 명산물을 가득히 실어 배를 띄워가니, 명주 바다에 실바람이 시르르 일고 신병이 씻은 듯이 좋아졌다. 이 신(神)에 걸린 병은 이렇게 해야 낫는 법이다.

이 신은 청명(淸明) 3월이 되면 구멍구멍마다 솟아나고, 구시월 상강일(霜降日)이 되면 구멍구멍마다 들어간다. 동서순력(東西巡歷)하고 있을 때 무지한 인간이 타살(打殺)하면, 그것을 본 혼이 여린 사람이 도리어 걸린다. 그래서 큰곳엔 열두 석(席), 작은 곳엔 여섯 석, 앉은 제(祭)엔 세 석을 풀게 하여 이 신이 받는 것이다.

강씨(康氏) 아기는 상단골로, 오씨 아기는 중단골로, 한씨 아기는 하단골로 맺어오던 이 신은 11월 7일·8일, 17일·18일, 27일·28일이나 6월 7·8일, 17·18일, 27·28일에 제를 받아 오던 영검 좋은 조상이다.

V. 個人信仰

1. 조왕제

조왕제는 단독으로 지내기보다는 문전제, 토신제와 더불어 지낸다. 제보자는 객토제(집을 지을 때 地神에게 정성드리는 것), 토신제와 비교해 가며 자신이 지내는 조왕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제보자 : 김복순 (女·67세))

- 1) 時期 : 음력 정월에 자신의 사주는 물론 가족들의 사주를 고려하여 스님이나 심방이 택일한다.
- 2) 정성 : 보통 3일 정성을 한다. 객토제의 경우는 7일 정성으로 한다.
- 3) 금기 : 3일 정성 기간 동안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제를 지내는 주체도 목욕제계하여 외출을 삼가한다. 음식으로는 굶은 것(모든 육류, 어류)을 먹지 않으며 마을에 장사가 있거나 출산 등이 있으면 새로 택일을 하여 제를 지낸다. 동네에 출산이 있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되지만, 자신의 가정에 출

산이 있을 경우는 한달 이상의 정성을 드려야 한다. 부부의 잠자리 역시 금기시 되는데,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이 제를 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한다.

4) 祭物 : 당일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금하므로 제물은 제를 지내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둔다.

① 보통 약간의 떡을 준비한다.

② 메 : 메는 네 가지 종류(稻, 梁, 黍, 稷)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은 그 네가지를 전부 준비하기가 번거로우므로 쌀로 대신한다.

③ 채소 : 채소는 고사리, 미나리, 무우, 콩나물 등을 준비하여 세 그릇 올린다.

④ 과류 : 과일은 전에는 五果(대추, 밤, 꽃감, 땃유지, 은행)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七果(대추, 밤, 명태, 은행, 사과, 배, 귤)를 준비하여 제를 지낸다.

5) 형식(과정) : 문전에서 모든 제물을 차려놓고 문전제를 지내며 천지신주팔암 경을 읽는다. 그 다음으로는 조왕(부엌)에 가서 술 한가운데 밥주걱을 꽂고 나머지 모든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마루에서 메 3 그릇, 술 3 잔 등의 형식을 갖추어 가족별로 신에게 축원하는 제를 지내고 난 후에는 모든 음식물을 조금씩 덜어서 코시의 형태로 집안의 정결한 곳에 갖다 버린다. 전에는 아궁이에 버렸다고 한다.

2. 산신제

1) 시기 : 음력 정월에 가족들의 사주를 고려하여 심방이 택일한다.

2) 정성 : 일주일 내지 3일 정성을 한다. 이 기간 동안에 금줄을 치게 되는데 금줄에는 밀감나무 이파리를 끼워 넣는다. 정성은 목욕제게하고 부정한 음식(모든 고기 종류)을 먹지 않는다.

3) 금기 : 동네에 상이 났거나 출산이 있을 경우, 피를 보았을 때, 동물의 시체를 보았을 때, 가족 중에 누구라도 피를 흘렸을 때 새로 날을 본다.

4) 장소 : 산(깨끗한 장소로 심방이 지정하는 곳)

5) 시간 : 아침 일찍 날이 안볼 때 제를 지낸다.

6) 주관 : 심방

7) 음복 : 제가 끝나면 하는데 남은 음식은 버리고 온다. 제를 지냈던 그릇도 발에 3일 정도 터진 방향에 놓아두었다가 가져온다.

8) 예조 : 말울음 소리가 들리면 길하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9) 제를 지내러 갈 때나 제를 지내고 돌아올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며, 혹 길에서 사람과 마주쳤을 경우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다.

學 會 發 表 要 旨

학회에서는 11월 21일(목) 오후 3시부터 8116 강의실 및 인문대학 휴게실에서 91학년도 학회발표회를 갖었다. 이날 발표는 각 연구회에서 1년동안의 성과물을 발표한 것으로 발표 주제를 보면, 참소리 연구회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반미의식의 전개양상', 민요연구회 '민요 쇠퇴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향', 글풀이 연구회 '여성문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글평연구회 '식민지 시대의 농민문학론' 등이다. 그리고 시창작연구회에서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인문대학 휴게실에서 시화전을 열었다. 다음은 각 연구회에서 발표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반미의식의 전개양상

참소리 연구회

1. 머리말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해 들어오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한반도 내에 직접적으로 관철시키는 50년대부터 60년대, 그리고 반미의식의 고양과 함께 미국을 거부하는 운동이 낮설지 않게 다가오는 80년대에 반미의식이 표출된 작품들을 다루면서 그것들이 어떠한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문학에 나타난 반미의식

송병수의 <쏘리 킵>과 윤정모의 <고삐>는 미군들이 우리의 여인네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유린하고 있는가를 윤락녀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 <소리 킴>은 기지촌 주변에서 몸파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군의 잔학상 내지는 비도덕성을 고발하고 있다. <소리 킴>에서 쏘리의 미군에 대한 분노가 단순한 개인감정의 선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고삐>는 정인과 해인으로 대표되는 윤락녀의 모습을 그들의 비극성에만 맞추지 않고 굴절되고 왜곡된 현대사, 특히 미군(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포착하고 있다.

남정현의 <분지>에서는 미군정 시대 이후 계속된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 처분과 소비재 원조로 인하여 예측적인 경제구조로 변모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제 물건을 빼내어 팔으로써 생계를 이어나가는 '나'의 모습을 투영시켜 놓아 상황을 훨씬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 상황에서 의식이 어떻게 사대적 매판적으로 변모하는가를 <분지>는 보여주고 있다.

정도상의 <새벽기차>와 김인숙의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 기업에서의 노동운동을 다룸으로써 한·미 관계를 경제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윤정모의 <빛>은 한·미의 관계를 단순히 민족문제로서만 바라보지 않고 계급 문제로까지 연관시켜 보여주는 진일보한 작품이다. 더구나 이 작품은 농민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팀스프리트와 같은 침예한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직접 연결시켜 다룸으로써 한·미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대된 인식의 지평을 보여준다. <빛>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 우리의 농촌경제가 미제국주의에 침탈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더욱 확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팀스프리트 훈련을 통해 우리의 정치·군사적 관계가 미국에 의해 지배되고 예측되어 있다는 것이다.

3. 맺음말

민족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침묵이 결코 금이 아니라면 문학에서는 가슴에 맺힌 한과 웅여리를 몸부림치며 한바탕 쏟아 놓아야 한다. 앞에 서술한 작품들은

그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반미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며 개척해야 할 공간과 대상도 넓다. 따라서 반미문학은 기존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계승 극복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짓쳐야 한다.

민요 쇠퇴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향

민요연구회

1. 머리말

노래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 체험을 조직하고 행위를 동원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의 하나이다. 노래에는 혼한 대중가요에서 가곡·동요·팝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대중가요의 성격과 그것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중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민요는 왜 계속 쇠퇴되고 왜곡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2. 민요와 대중가요

먼저 민요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민요는 무대 위에서 불리워지는 현재의 음악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통해 불려온 노래로 일을 하면서, 의식을 치르면서, 그리고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것이다. 일과 의식, 그리고 놀이는 모두 민중들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내용이다. 따라서 민중의 문화 가운데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민요이다. 전통시대의 민요는 일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은 미분화 예술인 것처럼 우리시대의 민요도 박제화된 전통예술의 한 장르가 아닌 구체적 현실에서 민중에 의해 불리워지는 민족의 노래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중가요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대중가요가 탄생한 것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축음기와 레코

드가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이다.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 국민들의 감수성에까지 그들 식으로 만들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왜색의 '뽕짝 가요'가 탄생한다.

한국의 대중가요는 미군정을 거치면서 또 한차례의 왜곡과정을 겪게 되었고 서구색이라는 기이한 변종을 탄생시켰다. 서구사조에 의해 대중가요는 제목에서부터 이국적 정서의 동경과 함께 한국인이 아닌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대중가요의 영향으로 민요가 점차 우리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지만, 대중가요의 발생과 흐름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대중가요에 대해서도 올바른 형태를 찾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3. 민요의 쇠퇴와 부흥의 방법

민요가 우리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된 요인을 살펴 본다면,

- 1)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문화침탈로 인한 민족자생적인 문화 전통의 단절
- 2)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노래의 상품화, 저속화된 서구문화의 무비판적 수용
- 3) 60, 70년대 이후 산업화 결과 노동과 놀이의 분화
- 4) 대학의 국악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악 즉 귀족음악이 전부이므로 계속적으로 쇠퇴
- 5) 매스컴의 영향

그렇다면 여기서 80년대 초부터 민족적 감수성을 익히기 위하여 민요운동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민요를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 1) 전통민요의 발굴과 보급
- 2) 노래시
- 3) 노랫말 바꾸기
- 4) 창작민요
- 5) 노래놀이

등을 들 수 있다.

4. 맺음말

정치적인 비호하에 은근히 득세하고 있는 가짜 문화, 상업 문화현상 따위들은 단호히 배격하고 사라져가는 정신적 고향으로서 민요, 민족적 정서의 원천으로서의 민요를 되살려 정서적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즉, 대중적 정서를 획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과 투쟁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려지고, 이것이 삶에 힘을 줄 때 진정한 우리 시대의 노래가 될 것이다.

여성문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글풀이연구회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면서 부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문학 분야에서도 '여성문학'이 초기의 선언적 문제제기에 이어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현 단계 문학논의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자 고투하는 중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여성과 문학이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논의를 살펴보고나서, 윤정모의 <고삐>와 이경자의 <목숨 앓이>에 나타난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성문학의 방향성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몸 말

1) 기존의 여성과 문학에 대한 논의

기존의 문학연구에서 여성문학의 연구는 여성작가 연구, 작품 속의 여인상 연구,

그리고 독자층으로서의 여성층 연구를 포괄하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로 앞의 두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는데, 독자층으로서의 여성층에 대한 연구는 통속소설과 여성독자의 관계를 밝히는 수준에서 간략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작업에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여성해방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성작가에 대한 비평은,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그들의 작품세계를 온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품 속의 여성상 연구는 개개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주인공의 유형을 당대 객관적 여성현실과 관련시키지 못한 채 현상적으로만 파악하여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2) 최근 전개되는 본격 논의들

1980년 중반에 활발했던 여성문제에 관한 논쟁에서 거둬들인 성과를 꼽자면, 여성문제는 결코 대남성투쟁이나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머무르는 것일 수 없으며, 사회 전반의 변혁운동과 동일한 궤에 놓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한 논의과정에서 성차별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분리 지배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남녀차별의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찾지 않고 가부장제라는 모순구조를 설정하여 남성지배문화에 대한 투쟁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SF(Social Feminism)적 편향을 지닌 입장들이 문학부문에서는 갈수록 목소리를 다듬고 있다.

여성을 억압해 온 남성지배문화의 폭력구조에 대해 새로운 대안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가꾸어나감으로써 그 모든 억압의 근원이었던 남성적인 이원적 대립구도를 무너뜨린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3) <고삐>와 <목숨앗이>에 나타난 여성문제

<고삐>는 주인공 정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을 얻어내고 있는 고삐를 벗어 던지게 되는가라는 점을 향해, 그녀의 기구한 혈연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윤락, 매춘의 체험이 조직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작품 속의 반미의식은 작가의 역사의식과 결부되어 아주 과학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의의는 매춘이

라는 문제를 외세의 지배와 착취구조에 연결시켜 보았다는 데 있다.

〈목숨앗이〉에서는 남편이 부재하거나, 남편이 더이상 가족의 수입원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성이 결국 그 문제를 짊어지게 된다는 힘겨운 삶의 모양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3. 나오는 말

여성문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바람직한 방향을, 작품 속의 여성상 탐구라든지 여류작가론 같은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인식과 역사관에 입각한 올바른 여성해방의 시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여성문학은 구체적인 작품이 민족·민중 현실의 총체적 모순구조 속에 형태로 내재해 있는 여성문제를 포착해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망을 제시, 분석, 비판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농민문학론

글평연구회

1. 농민의식의 형성

20세기 초엽에 있어서 한국 농민운동의 기본적 내용은 소작운동이었으며 그 주체는 물론 소작농민이었다. 당시의 신문에 수없이 등장한 소송문제와 현저하게 줄기 시작한 자작농의 실태, 그리고 이와 표리의 관계에 있었던 유랑민의 만주·북간도 이주 또는 화전민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형식과 직결되는 민족적 문제였다. 그러나 농민운동을 하나의 사회적 민족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19세기 말엽에 의병운동을 주도하여 외세에 침투를 극렬히 막아내고 주권국가 확립에 온 힘을 집중한 농민의 활동은 한국적 농민의식의 성격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 농민문학 논쟁

(1) 무정부주의의 농민 문학 논쟁

우리 문학사에 '농민문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시인 황석우의 <신년 문단에 고함>에서다. 문단을 향해 요구사항을 나열한 항목 중에 농민문학의 제창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 이 농민문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황석우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그는 <현 일본 사상계의 특질과 그 구조> (『개벽』, 1923. 4)에서 당시까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수용되었던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를 비교적 정확하게 대비함으로써 무정부주의 도입기의 대표적 이론가였다. 특히 일본 유학생의 무정부주의 단체인 흑우회(黑友會)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흑우회는 1922년 12월 박열(朴烈)이 조직한 순수한 무정부주의 단체로서 1921년 11월 조봉암, 김약수, 박열 등이 조직한 흑도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흑도회는 아직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의 연합조직으로 출발하였는데 곧 대립이 드러나서 결국 박열파의 '흑우회'와 김약수파의 '복성회'로 나뉘어 섰다. 황석우는 바로 이 '흑우회'에 참가함으로써 무정부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또한 그가 농민문학을 제창한 1923년은 우리 나라 무정부주의 운동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 논쟁

1923년 9월 서울에서 지상천국의 건설을 주의로 삼는 '천도교청년단'이 창건되면서 농민문학 제창은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당은 그 하부에 일곱 부를 베풀어 구체적 부분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천도교의 세력기반인 농민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1925년 10월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

농민사'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농민운동을 출범시켰다. 촌는 천도교측의 발의로 발족했지만 당의 하부기관은 아니었다. 천도교측으로 보면 일종의 외곽조직으로 농민운동가측에서는 합작조직으로 창립된 것이다. 촌는 창립되자마자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되어 최대의 농민조직으로 성장하여 민주적 중앙집권체로의 새로운 조직 변경을 시도, 계몽적인 지식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벗고 진정한 농민운동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조선농민사는 월간지 <조선농민>을 발간하였는데, 그 창간사에서도 보이듯이 뚜렷한 목적을 가진 이 잡지는 2만여부를 발행하는 놀라운 대중성을 발휘하였다.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운동은 전문적 문인에 의거하기보다는 농민들 스스로 그들의 기쁨과 노여움과 꿈을 기록하고 노래하도록 복돋았으며 농민창가와 농촌단문을 모집함으로써 농민문학운동은 그 주체인 농민 대중 속으로 개방되었다.

(3) 카프 계열의 농민문학 논쟁

30년대에 들어서자 카프측에서 농민문학론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930년 11월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 하리코프에서 '혁명문화 국제국' 주체로 열린 제2회 세계대회에서이다.

이 이전 카프측 인사로는 유일하게 농민문학론을 제기한 김기진의 <농민문예에 대한 소안> (조선농민 1929. 3)에 주목해 보면, 1927년 형식 논쟁을 제기, 1928년 대중화론을 펼쳐 대중으로부터 유리되고 있던 카프의 극좌적 선회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우익 기회주의로 간주되었다.

극좌 소장파들은 하리코프회의의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고서야 농민문학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박태원이 동아일보에 <하리코프에 열린 혁명작가회의>란 제목으로 미국의 프로문학잡지 <새로운 대중>에 게재된 글을 번역·소개하자, 이에 대해 카프의 강경파로 김기진의 대중화론을 반박한 바 있던 권환은 즉각 <하리코프대회 성과에서 조선 프로 예술가가 얻은 교훈>이라는 글을 발표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3. 식민지시대의 농민문학 작품

(1) 이광수의 〈흙〉, 심훈의 〈상록수〉

일제의 식민지 농촌 수탈은 한국의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농촌 계몽 운동은 1932년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이, 또한 일제의 농촌진행운동이 자력갱생이라는 미명하에 전개되어 하나의 유행처럼 퍼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쓰여진 이광수의 〈흙〉, 〈무정〉 등 장편소설과 심훈의 〈상록수〉는 민족주의적 농촌 계몽 소설의 범주에 놓일 수 있다고 하겠다.

(2) 김정한의 농민소설

문학평론가 염무웅씨와 김형걸씨는 김정한의 소설을 리얼리즘 농민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농민의 실상과 자기 현실로 수용, 자기 동화의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며 현실과 부조리에 맞서는 결의의 지속을 김정한의 문학적 자세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한 문학의 리얼리즘은 공꾸드형제의 이른바 “너무나 가치없는 계급,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어떤 비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생기를 잃은 삶에 활력을 주입하는 것으로, 그의 작품의 현실은 균중적 삶의 한 복판에서 체득한 육화의 세계로 이러한 세계를 다이나믹한 리얼리즘이라고 개념화 하고 있다.

(3) 이기영의 〈고향〉

프로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집단성의 전형적 묘사를 보이는 경향적인 작품세계를 드러내는 이기영은 소작인과 지주의 대결, 빈궁의 문제 등을 제시해 농민소설의 득의의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서의 단계에 쓰여진 작품으로는 〈농부 정도룡〉, 〈고향〉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고향〉은 식민지시대 한국농촌소설의 대표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이무영의 <제 1과 제 1장>

1936년과 1940년에 각각 발표되었고 흔히 이무영의 대표작들로 손꼽히고 있는 <제 1과 제 1장>과 <흙의 노예>는 그 내용이 작가의 귀농 행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전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제목은 다를지언정 그 내용이나 성격상 <흙의 노예>가 <제 1과 제 1장>의 속편에 해당하며, <제 1과 제 1장>의 내용이 한 지식인의 귀농과정과 농촌생활의 실질적인 체험을 그리고 있다면, <흙의 노예>는 주인공이 그 체험을 통해서 전형적인 한국의 농민으로 변신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시창작연구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문대학 휴게실에서 시화전을 갖었다. 다음은 시화전에 출품된 작품들이다.

강 남 훈(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나

박 정 섭(2) 새벽기동 - 훈련·하나 / 한가위

오 충 훈(2) 노교수의 방 / 가을

임 미 경(2) 갈림길

장 연 심(2) 골목길

진 정 숙(1) 존재와 정열 1 - 비, 사랑, 존재

존재와 정열 2 - 햄릿

존재와 정열 3

- 산위의 정열 : 몬트리올 Jesus

김 동 현(1) 억새 / 잔디밭을 지나며

부 유 섭(1) 가을 바다 지는 해를 보자

송 성 덕(1) 가을풍경 / 진흙 속의 세상살이